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金 呂 珠 敎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金陵 南公轍의 詩世界 硏究

2012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鄭 愉 珍

金陵 南公轍의 詩世界 硏究

金 呂 珠 敎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鄭 愉 珍

認 准 書

鄭愉珍**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槪 要

金陵 南公轍은 영조 36년에서 헌종 6년(1760～1840)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 대표적 京華世族이자 관각문인이다. 정조조에는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정조의 近臣으로 활동했고, 순조조에는 세도정국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며 벼슬은 文衡・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남공철에 대한 연구는 정조의 문체반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그의 문학론과 산문 전반의 특징이 소개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남공철의 詩에 대한 연구는 안순태의「南公轍의 文藝趣向과 漢詩」한 편으로, 남공철의 詩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의 문학세계는 家學과 스승의 영향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六經과 古文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고문가의 면모가 바탕이 되었고, 연암그룹과의 교유로 인해 '今'의 가치를 인식하고, 道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등, 한때 문학관이 轉變하기도 하였지만,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務自己出'의 문학이다. 그는 일생동안 '務自己出'의 문학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胸中에서 우러나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쓰기를 추구한 것이다.

詩에 있어 남공철은 부친 남유용을 비롯한 英祖朝 四家를 통해 김창협의 天機論을 계승하였다. 그것은 남공철이 '性情에서 우러나는 詩' 쓰기를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천기론에 의한 작시태도를 계승한 것이다. '胸中에서 우러난 시'를 중시한 이러한 태도는 詩와 文을 막론하고 '務自己出'의 문학을 강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공철의 생애와 문학관에 근거하여 1) 現實認識과 不遇에의 關心에서는 젊은 시절에 남공철이 今의 가치를 인식하여 당대의 物事에 대

해 가졌던 관심이 시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과 그 관심이 주변의 不遇한 사람에게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2) 官僚意識과 歸去來 志向에서는 가문과 관직생활의 영향으로 남공철의 바탕에 자리 잡은 관료의식이 시에서 드러난 모습과, 사대부로서 出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3) 雅趣와 淸遊의 追求에서는 조선후기 대표적 경화세족이었던 남공철이 고동서화 취미와 시주회, 그리고 산수유람을 통해 雅趣와 淸遊를 추구한 모습을 시에서 살펴보았다. 4) 純粹한 性情의 發現에서는 胸中에서 우러난 시를 쓰고자 했던 남공철의 詩觀이 贈別詩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꾸밈없는 순수함을 우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학사적으로 남공철의 시는 부친을 통해 김창협의 천기론의 영향을 받아 백악시단과 그 후배세대의 시풍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한시사적으로 백악시단 후배세대의 典雅한 시풍에서 백탑시파의 尖新風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에서 함께 나타나는 면모로 이들은 남공철과 문학적인 궤를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공철의 시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고동서화 취미 향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자 했던 18세기 한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산문가로서만 주목되었던 남공철의 詩를 살펴봄으로써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살피고자 한 것이며, 나아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경화세족, 관각문인 그룹이 조선 후기 한시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 지 밝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目 次

Ⅰ. 序論 ····· 1
1. 硏究 目的 ····· 1
2. 硏究 現況 및 方法 ····· 3

Ⅱ. 時代的 背景과 生涯 ····· 8
1. 時代的 背景 ····· 8
2. 生涯와 交友 ····· 14
1) 生涯 ····· 14
2) 交友 ····· 20

Ⅲ. 文學觀 ····· 31
1. 六經 學習을 통한 氣의 涵養 ····· 31
2. 道에 대한 認識 變化와 務自己出 ····· 38
3. 天機論과 性情之眞의 發現 ····· 48

Ⅳ. 南公轍의 詩世界 ····· 58
1. 現實認識과 不遇에의 關心 ····· 58
2. 官僚意識과 歸去來 志向 ····· 73
3. 雅趣와 淸遊의 追求 ····· 88
4. 純粹한 性情의 發現 ····· 101

Ⅴ. 文學史的 意義 ····· 109

Ⅵ. 結論 ····· 114

參考文獻

ABSTRACT

Ⅰ. 序論

1. 硏究 目的

金陵 南公轍(1760～1840・영조36～헌종6)은 양관 대제학을 지낸 南龍翼(1628～1692)의 현손이자 정조의 사부 南有容(1698～1773)의 아들로, 정조조에는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정조의 근신으로 활동했고, 순조조에는 세도정국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며 벼슬은 文衡・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집안과 벼슬을 보면 전형적인 관각문인으로 볼 수 있고, 18세기의 대표적 경화세족으로도 꼽힌다. 家學과 스승 김순택의 영향으로 唐宋古文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다소 보수적인 고문가로 성장했으며, 후에는 정조의 문체정책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의 문장은 20세 이전부터 당대의 文名 높았던 인물들로부터 高評을 받기도 할 만큼 특출하였고, 스스로도 文人으로 자부하였다.

지금까지 남공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문에 대한 연구와 문학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남공철의 문학론과 산문 전반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의 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당대 文衡을 지냈을 만큼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엮은 『金陵集』에 340題 443首, 『金陵集』을 간추린 『穎翁續藁』에 37題 43首, 『穎翁再續藁』에 52題 76首, 노년에 자신의 작품을 選集한 『歸恩堂集』에 124題 150首의 적지 않은 수의 詩를 남기고 있는 바, 남공철의 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남공철의 교우관계와 문학론이다. 16세경에 남공철은 스승 김순택에게 본격적으로 고문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박지원

이나 이덕무, 박제가 등의 백탑시파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서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무렵 박지원과 이덕무 등은 스스로의 문학관을 확립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공철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家學과 스승의 영향, 연암그룹과의 교유, 정조의 영향 등 상반되는 문학적 분위기를 경험한 남공철의 문학관은 얼핏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남공철의 문학관은 “동적으로 파악되며, 보수적인 고문가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 문학관을 변모시켜 가는 과정을 면밀히 보여준다.”[1]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문학관은 그의 시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며 실제로 그의 시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학관이 변모하면서 작시 경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경화세족’이자 ‘관각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화세족’, ‘관각문인’의 범주는 ‘정조조에 초계문신 등을 거쳐 성장하였으며, 순조조에 세도 정국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당시 京華의 문화를 주도하고, 비록 문단에 대한 예의 영향력과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文衡으로서 국가의 문풍을 관장하며 정조의 문학관의 자장 안에 있던 인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인물들로는 金祖淳・李晩秀・李相璜・沈象奎・徐榮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의 문화적 지향과 문학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남공철이다.[2] 이 그룹은 조선 후기 문학론의 통시적인 전개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시선이 비껴간 대상으로 한시사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며 남공철의 시를 연구함으로써 이들 그룹의 시적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

1) 안순태, 「南公轍 文學觀의 變移 樣相에 대한 硏究」, 『한문교육연구』 3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472면.
2) 안순태, 「南公轍 散文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2면.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공철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안순태의 「남공철의 문예취향과 한시」(2004) 한 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저서 『金陵集』·『潁翁續藁』·『潁翁再續藁』·『歸恩堂集』에 실린 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남공철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그의 문학관이 시세계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경화세족이자 관각문인으로서 남공철이 조선 후기 한시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 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그룹의 문학사적 위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硏究 現況 및 方法

남공철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문학론에 대한 연구와 산문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학계에서 남공철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정조의 문체반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윤현철이 「金陵 南公轍의 文學論 硏究」[3]에서 남공철의 생애와 교유 및 주요 문학론을 살피면서 남공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윤현철의 연구는 남공철 문학론의 여러 국면을 실상 그대로 드러내 남공철의 문학에 대한 관점을 학계에 소개하여 관심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경아는 「南公轍의 文學思想」[4]에서 남공철의 주요한 문학론을 육경 중시와 양기론, 개성적 표현의 중시, 今文에 대한 긍정, 善變의 강조 등 네 가지로 파악하고 문

3) 윤현철, 「金陵 南公轍의 文學論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9.
4) 이경아, 「南公轍의 文學思想」,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학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공철의 산문을 소개하였다. 근래에 명평자는 「金陵 南公轍의 古文論 硏究」[5]에서 고문가로서의 남공철의 문학관에 대해 크게 문폐에 대한 비판과 대안, 문장학습의 방법과 지향, 眞文章의 추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이후 남공철에 대한 연구는 산문 작품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광섭의 「金陵 南公轍의 文學觀과 作品世界」[6]는 序記文, 尺牘題跋文, 傳狀碑誌文을 중심으로 남공철 산문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 대체적인 면모를 소개한 첫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어서 안순태는 「南公轍의 傳狀碑誌文 硏究」[7]에서 남공철의 傳狀碑誌文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살핀 바 있으며, 김현경의 「南公轍 尺牘硏究」[8]에서는 남공철의 척독을 주제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남공철 산문의 세부 국면에 집중하였다.

최근 김광섭은「金陵 南公轍 散文 硏究」[9]에서 남공철 산문을 풍격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했다. 정원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산수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한 글들에는 '雅潔淸幽'한 풍격이, 흥취나 정감 등을 주로 드러낸 척독과 제발에는 '淸新奇絶'한 풍격이, 逸士나 藝人을 대상으로 한 傳과 碑誌에서는 '遒逸風神'의 풍격이 있다고 하였다. 또 남공철이 20대 중반에 한차례 문학관의 변화를 겪었음을 지적하고 정조 16년(1792), 정조의 문체 관련 조치 이후 다소 보수화되는 경향을 띠기는 하지만, 明淸諸子의 산문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 그들의 글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안순태는「南公轍 散文 硏究」[10]에서 남공철을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한 경화세족과 관각문인의 문학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인물

5) 명평자, 「金陵 南公轍의 古文論 硏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광섭, 「金陵 南公轍의 文學觀과 作品世界」,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0.
7) 안순태, 「南公轍의 傳狀碑誌文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8) 김현경, 「南公轍 尺牘 硏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9) 김광섭, 「金陵 南公轍 散文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10) 안순태, 「南公轍 散文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로 파악하고, 남공철의 산문을 크게 취향의 문제, 형상의 문제, 의론과 지향의 문제라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尺牘과 題跋, 傳과 墓誌銘, 序와 記 가운데 주목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밖에도 소품문의 창작과 관련이 깊다는 경화세족의 취미생활에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김성진의「朝鮮後期 文人들의 生活相과 小品體 散文」[11], 남공철의 경화세족적 생활상과 그의 고동서화 취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 강명관의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12], 남공철의 한시를 통해 그의 고동서화 취미를 조명한 안순태의「南公轍의 文藝趣向과 漢詩」[13], 18세기 당시 서화 감상과 비평 양상을 탐색하는 관점으로 成海應(1760~1839)의 「書畵雜志」와 함께 남공철의 서화발미를 살핀 손혜리의「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평에 관한 연구」[14]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사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남공철에 대한 관심은 정조의 문체반정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어 그의 문학론·문학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이후 1990년대에는 소품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남공철의 고동서화 취미가 주목을 받았으며 書畵觀과 詩經論, 산문 전반으로까지 연구 영역이 확장되어 최근에는 산문 전반의 특징이 소개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남공철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안순태의「南公轍의 文藝趣向과 漢詩」한편 뿐인데, 그러나 이 연구 또한 남공철의 한시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의 문예취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남공철의 한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공철의 한시를 연

11) 김성진, 「朝鮮後期 文人들의 生活相과 小品體 散文」, 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12) 강명관,『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13) 안순태,「南公轍의 文藝趣向과 漢詩」, 『한국한시연구』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14) 손혜리,「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평에 관한 연구」,『한문학보』19, 우리한문학회, 2008.

구 대상으로 하여 남공철이 살았던 시대상황과 교우관계, 그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그의 시세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공철의 문집은 『金陵集』(24권 12책),『穎翁續藁』(5권 2책),『穎翁再續藁』(3권 1책), 『歸恩堂集』(10권 5책)이 전한다. 남공철은 4개의 문집을 自編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親子가 없었고, 글씨와 활자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으며, 부친 남유용 또한 중년에 장성한 자식이 없자 아우 南有定(1722~1775) 및 조카 南公弼(1715~1763)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집을 스스로 편차해 둔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서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만큼 스스로 제작하거나 선정한 활자로 자신의 문집을 간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인으로서의 자의식 등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815년 간행한『金陵集』에는 남공철 생애의 대부분, 즉 1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지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1822년 남공철이 63세 되던 해에 간행한 『穎翁續藁』에는 권1의 詩를 제외하면 疏箚와 같은 관각문자나 청탁에 의해 부득이해서 지은 묘도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830년경에 간행한 『穎翁再續藁』에 수록된 내용도 『穎翁續藁』와 크게 다르지 않다. 『歸恩堂集』은 벼슬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1834년(순조 34년)에 간행한 것인데 대부분이 자신의 이전 문집에서 선발한 시문이어서 選集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남공철의 시는『金陵集』에 340題 443首, 『穎翁續藁』에 37題 43首,『穎翁再續藁』에 52題 76首, 『歸恩堂集』에 124題 150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는 남공철의 시세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Ⅱ장에서는 시대적 배경 및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문학의 흐름과 남

공철의 삶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남공철의 문학관에 대해 살펴보겠다. Ⅳ장에서는 시세계를 다루었는데 제재분류한 시작품의 모습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겠다. Ⅴ장에서는 남공철의 시 문학이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알아보겠다.

Ⅱ. 時代的 背景과 生涯

1. 時代的 背景

18세기는 모든 방면에서 변화의 파도가 일었던 시대였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면, 선조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된 붕당정치는 17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 측면이 확대되어 당쟁으로 변질되었다. 당쟁의 병폐를 인식한 영·정조는 탕평책을 시행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는데, 국왕의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하고 각 당의 전위 조직처럼 되어 있는 언론기관을 약화 내지 혁파시켰다.[15] 특히 정조는 임금이 宗統은 물론이고 道統까지 통합하여 계승한 '聖王'임을 천명하고, 임금과 스승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 규장각이라는 학문연구 및 국정논의 기관을 창설하는 한편, 抄啓文臣制라는 문신 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君師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재야의 사림이나 산림을 견제하는 기구인 동시에, 정권의 핵심적 기구로서 개혁 정치를 이끌어 나갈 측근 세력의 양성소였다.[16] 또한 정조는 군자당을 자처하는 노론만의 당론을 부인하고 소론과 남인 및 북인의 당론 역시 정당함을 인정하였으며, 각 당에서 유능한 인재를 혼합하여 등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17]

그러나 정조의 개혁정책 및 통치방식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勢道政治의 등장이 그것이다. 정조에 의한 언관과 史官제도의 폐지 내지 약화는 왕권 및 권신·척족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조 재위 시에 權臣 洪國榮(1748~1781)이 등장한 사실과, 정조의 사후에 정순왕후

15) 『英祖實錄』 17年 4月 22日 丙辰條.
16) 이성무, 『조선왕조사』, 수막새, 2011, 661면.
17)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 역사, 2001, 95~180면.

가 대리청정으로 女君과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 金祖淳(1765～1832) 같은 외척세력들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8]

정조 사후에는 대왕대비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1801년(순조 1년)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경주 김씨 노론 벽파는 먼저 이가환, 정약용 등 남인 세력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해 斥邪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적 탄압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辛酉迫害'이다. 이 신유박해로 기호 남인은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 되었다. 벽파는 또 같은 노론이지만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 시파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이던 장용영을 혁파해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려 하였으며, 정조 생전에 정혼한 순조와 金祖淳의 딸의 국혼을 저지해 안동 김씨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김조순은 정조의 부탁을 정치적 명분으로 삼고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와 연대해 결국 국혼을 성사시켰다.[19] 1804년(순조 4년) 12월, 정순왕후의 죽음으로 대리청정이 막을 내리고, 순조는 직접 정사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구 김조순과 외조부 박준원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후 60여 년 간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횡행하게 되었다.[20] 뇌물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811년(순조 11년)에는 민란인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이앙법과 이모작 등 농업생산기술이 발달하여 廣作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부농이 등장하였다. 더불어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층의 분해는 더욱 촉진되었다. 한편 1791년(정조 15년)에 이른바 辛亥通

18) 박현모, 『정조 사후 63년- 세도정치기의 국내외 정치 연구』, 창비, 2011, 52면.
19) 이성무, 앞의 책, 725면.
20) 이성무, 앞의 책, 697면.

共이 실시되어 상업의 자유화가 인정되면서, 서울에는 시전 이외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오개[梨峴]시장과 남대문 밖 서울역 부근의 七牌시장, 종로 부근의 종루 등 3대 상가가 그것이다. 이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을 다양하게 취급했고, 서울은 이에 힘입어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21] 서울이 대도회로 발달하고 서울과 지방사회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京鄕의 사회적 分岐현상이 일어났고, 경화세족이 대두하게 되었다.[22]

경화세족은 士林간의 黨爭의 격화로 소수의 벌열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는데, '서울에 世居하면서 淸要職의 획득 가능성이 높았으며 독특한 문화적 취향을 가졌던 양반가'로 정의할 수 있다.[23] 이들은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로부터 대량의 서적을 수입하여 장서가가 되기도 하였고, 고동서화에 대한 취미, 博學에 대한 경도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향촌의 양반과는 차별화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인맥과 학맥으로 연결되어 학문과 문학의 커다란 바운더리를 형성하며 당대의 문예취향을 주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안동김씨·반남박씨·풍양조씨·청송심씨 등을 들 수 있으며, 남공철의 가문인 의령남씨 또한 대표적 경화세족이었다.[24]

사회적으로는 영조조에 시작된 서얼들의 신분상승운동인 通淸운동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영조는 蕩平의 뜻에 근거하고 사적인 동정심을 곁들여 서얼들을 등용하는 데 나섰지만,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받들어 서얼허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節目을 마련하였지만, 강고한 사회적 관습을 깨뜨릴 수 없었고, 다만 서얼들을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하여 배려할 수밖에 없었다. 정조의 이러한 신분에 대한 관심은 노비제

21) 정옥자,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게, 1999. 43면.
22)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23면.
23) 강명관, 『조선시대 문화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2001, 279면.
24) 안대회, 위의 책, 24면.

개혁에서도 나타나, 추쇄관 제도를 혁파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직접 노비 명단을 관리하도록 했으며[25], 이 같은 의식은 순조조로 이어져 1801년(순조 1년)에는 6만여 명 공노비의 해방이 선포되기도 하였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17세기를 관통한 國是는 삼전도의 치욕에서 기인하고, 화이론에 기초한 '북벌론'이었다. 그러나 북벌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의미가 점점 퇴색 되었고, 대신에 점차 조선중화주의를 형성시켰다. 尊周論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둔 조선중화사상은 조선 고유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는 조선 문화 전반에 고유색이 나타나 이른바 '眞景文化'를 이룩하였다.[26]

한편, 18세기 벽두부터 노론학계 내부에서는 湖洛論爭이 본격화 되었다. 이 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發하지 않은 마음의 본체는 본래 선한가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인과 보통 사람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人物性同論을 주장한 낙론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호론이 사람의 본성이 물질의 본성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은 기존의 화이론적 사유 체계, 즉 존주론을 그대로 계승함을 의미했다. 그들에게 있어 청은 여전히 오랑캐인 것이다. 반면 인성과 물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한 낙론의 논리에서는 더 이상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필요치 않았다. 홍대용은 조선인과 청인은 다같이 중국화한 夷狄임에 틀림없으므로 스스로를 높이거나 상대를 깔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사람의 재질을 가진 존재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라며 그 나름의 풍속도 긍정했다. 그러므로 화이론에 구애될 때가 아니었고, 청의 문화가 곧 중화 문화였다. 청은 타도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변화하였고, 북학론이 힘

25) 정옥자,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게, 1999. 39~41면.
26) 정옥자,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23면.

을 얻기 시작했다.[27]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18세기 한시는 17세기 한시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인해 일어났다. 17세기 시단을 풍미한 사조는 복고주의와 낭만주의였다. 17세기의 시인들은 격조와 기세를 높이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擬古'를 택하였다. 기본적으로 學唐의 테두리 안에서 낭만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지만 晩唐, 盛唐를 넘어 漢魏古詩를 학습하고자 하였다. 시인이 배워야할 높은 수준의 시를 상정하고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학습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이나 소재의 선택, 시어의 구사, 시법의 講究, 시체의 선택에서 복고적 양상을 띠었다. 또한 정서면에서는 감동, 격정, 비장과 같은 낭만적이고 감성적 색채가 농후한 主情的 면모를 보였으며 호방한 격조와 기상의 풍격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17세기 한시의 특징은 兩難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17세기의 시대적 사명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明代의 복고적 시론을 수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28]

18세기 시단은 이러한 17세기 시단의 시풍을 부정하는데서 출발하였다. 17세기가 전통 준수의 시대라면, 18세기는 전통을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한 시대였다. 18세기의 시에는 전통부정의 정신이 매우 강하게 표명되고 있으며, 매우 역동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몇 개의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첫째 그룹은 17세기 말엽에서 18세기 초엽에 활동한 金昌協・金昌翕을 주축으로 한 白嶽詩壇이고, 둘째 그룹은 李秉淵을 비롯하여 李天輔・吳瑗・南有容 등 김창협 형제의 후배세대들이다. 셋째 그룹은 서울과 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인・소북 계열의 시인들로 李用休・李彦瑱・柳慶種 등을 들 수 있으며, 넷째 그룹은 李德懋・朴齊家・柳得恭 등 서얼문사들이 주축이 된 白塔詩派이다.

---

27) 이성무, 『조선왕조사』, 수막새, 2011, 650면.
28)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14~22면.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는 18세기 한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學詩에 있어 전범을 부정하여 격식과 규범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법을 버리고, 시를 변화시키고, 忌諱를 피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험한 것도 쓰고 기이한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작가의 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러한 개성 강조는 시의 내용, 서정, 詩體의 선택, 작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시의 소재와 묘사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詩法을 버리고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자연과 현상을 개성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연자체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시인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가식 없이 창작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니, 모두 진실한 표현과 사실적 묘사를 지향한 것이다.[29]

이렇듯 모든 방면에서 변화의 파도가 이는 18세기를 살았던 남공철은 정치・문화・사회 제 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가 보여주고 있는 동적인 문학관 역시 당시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남공철은 백악시단에서 백탑시파로 진행되는 문학사・한시사의 흐름에서 그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학관의 변모와 작시경향의 추이를 동반하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9) 안대회, 위의 책, 37~53면 참조.

2. 生涯와 交友

1) 生涯

南公轍은 1760년(영조 36년) 南有容(1698～1773)과 安東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字는 元平, 號는 金陵, 思穎, 宜陽子, 爾雅道人, 穎翁 등이며, 본관은 宜寧이다. 남유용은 첫째 부인 杞溪兪氏와의 사이에서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일곱은 어려서 모두 죽고[30] 公輔만 남았으나, 그마저도 28세에 요절하고 말았다. 公轍은 남유용이 셋째 부인 安東金氏와의 사이에서 63세에 얻은 아들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으리라 짐작된다. 실록에는 그의 외모에 대해 키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묘사하였다.[31]

먼저 남공철의 집안을 살펴보면, 남공철의 고조부 南龍翼(1628～1692)은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고, 문집으로『壺谷集』, 詩選集으로『箕雅』을 남겼다. 증조부 南正重(1653～1704)은 충청도관찰사를 지냈고『碁峯集』을 남겼다. 조부 南漢紀(1675～1748)는 지돈령부사를 지냈고,『寄翁集』을 남겼다. 부친 남유용은 정조의 스승으로 양관대제학을 지냈고 형 有常(1696～1728)과 함께, 문장과 덕망으로 이름을 날렸다. 남유용의 문집으로는 『雷淵集』이 남아있다. 이렇듯 남공철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는 이러한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남공철은 1760년(영조 36년) 11월 16일 서울 明禮坊(현 明洞 일대)에서 태어났다. 남공철이 유년 시절을 보낸 명례방 일대는 남촌에 속하는데 남촌에는 명문거족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당색도 뒤섞여 있었다. 남공철의 생활공간에는 양반들뿐만 아니라 중인 서리층도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었고, 시전이 있던 종로나 화원들이 그림을 내다 팔던 광통교와도 근접하여 유년 시절

30) 南有容, 『雷淵集』卷23,「亡子公輔墓表」: “其父有容, 母兪氏, 兪氏八子亡其七.”
31)『憲宗實錄』6年 12月 30日條.

남공철은 시정의 삶과 당시 급변하던 도시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남공철의 또 다른 생활공간이었던 외가 건덕방이 속한 동촌은 朴齊家가 살던 남이장군 집터, 이덕무가 살던 寬仁坊 大寺洞이나 박지원이 살던 전의감동과 멀지 않아 유년 시절과 수학기에 그들과 활발하게 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거주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2]

남공철은 4세 때 成川府使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부친에게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부친이 노쇠해져 남공철을 가르치기 어려워지자 10세 때에는 모친에게『詩經』,『論語』,『孟子』등을 언해로 배웠다.[33] 1772년(영조 48년), 13세에 金用謙(1702~1789)의 주관으로 冠禮를 행했고, 얼마 후에 淸州韓氏 韓用和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다음해 7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남공철은 16세 때 고모부가 되는 金純澤(1714~1787)으로부터 古文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순택은 擬古主義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唐宋古文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고문가로서 남공철의 문학관에 영향을 미쳐 남공철 또한 보수적인 고문가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남공철의 문학관에 또 하나의 큰 영향을 준 것은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등 이른바 연암그룹과의 교류이다. 이들과의 교류는 고문을 배우기 시작한 16세경부터 20대 후반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남공철은 이들과 신분과 당색의 차이를 뛰어넘어 교류하였는데, 前代의 교류가 이미 있었고 또 거주지역과 활동범위가 겹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공철의 관직생활은 1784년(정조 8년), 24세에 음직으로 翊衛司 洗馬가 되면서 시작되었고, 같은 해에 6품에 올라 사옹원 주부가 되었다. 관직생활

32)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13~15면.
33) 南公轍, 『歸恩堂集』附錄,「宜陽子年譜」, 英祖 45年, 己丑條 : “時文淸公已老, 不能親自勤課, 母夫人取二南, 論, 孟諸書, 諺而敎之.” 앞으로의 주석에서 남공철의 저서 『金陵集』, 『潁翁續藁』,『潁翁再續藁』,『歸恩堂集』의 앞에는 편의상 ‘남공철’을 생략하기로 한다.

초기에만 해도 서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박지원, 이덕무 등과 활발한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7세에 산청 현감이 되는 등 지방관직을 거치게 되고, 점점 관직생활에 바빠지면서 관계가 소원해 지게 되었다.

20대 중후반 이후에는 수학기부터 절친했던 金載瑾(1750～1785), 崔北(1712～1786), 朴南壽(1758～1787), 李亶佃(?～1790)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남공철은 이들을 위해 입전하거나 묘지명을 짓고, 輓詞를 남겼는데,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그 친밀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792년(정조 16년)은 남공철이 33세 되던 해로 생애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남공철은 이해 1월에 對策으로 人日製에서 장원을 하고, 3월 殿試에서는 丙科 제1인으로 뽑혔으며, 이어 규장각 초계문신[34]으로 뽑혀 전례 없이 홍문관을 거치지 않고 규장각 지제교에 서임되는 영예를 입었다.[35] 그러나 같은 해 10월, 남공철이 對策文에 '古董書畵'라는 말을 쓴 것과 성균관 유생 李鈺이 소품문체를 본떠 지은 表文이 함께 문제되어 정조로부터 견책을 받았다.[36] 정조는 남공철이 정조의 스승 남유용의 아들임을 상기시키면서 문책하였는데[37], 지제교의 직책을 감하하고 남공철이 自訟을 지어 올릴 만큼 엄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까운 신하인 남공철을 처벌하여 다른 선비들로 하여금 타산지석을 삼도록 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문체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정조의 의도였다.[38]

---

34) 정조는 즉위 후에 규장각을 재정비하였는데 이것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던 정조가 戚里를 소탕하고 宦侍를 배제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재를 포섭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후 점차 정치색이 표백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다음으로 인재양성의 기능이 강화되니 1781년(정조5) 규장각에 부설되는 초계문신 제도가 그것으로 초계문신은 참상·참하(6품 이상이나 7품 이하)의 당하문신 중에서 승문원 분관(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으로서 승문원·교서관·성균관의 박사 추천이 된 사람) 중인 37세 이하의 사람을 議政府에서 뽑아 교육하다가 40세가 되면 許免되도록 규정했다. 초계문신에 뽑히는 것 자체가 이미 격려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신분보장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35) 『歸恩堂集』, 「宜陽子年譜」, 正祖 16年 壬子條 : "未經玉堂, 直拜內閣, 自公始."

36) 『正祖實錄』 16年 10月 24日條.

37) 『正祖實錄』 16年 10月 甲申: "日前南公轍之對策文中 有數句引用小品處 是誰之子…."

38)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남공철의 문학 창작 양상은 순문예적 성격이 두드러진 글의 창작량이 급감하는 대신 관각문자의 창작량이 많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그 이유는 정조로부터 문체 문제로 견책을 받아, 이전처럼 소품문적 성향이 강한 글들을 짓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요직에 머무르게 되면서 관각문자를 제작할 일이 많아지고 바쁜 관직 생활로 글을 지을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9] 이후 태도를 바꾼 남공철은 1797년(정조 21년) 정조로부터 그 문장이 雅潔하고 古法이 있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40] 그 이듬해에는 정조가 元子에게 일러 "이 경은 내가 벗과 같이 여기니 너도 또한 사랑하라"라 하여 정조의 총애를 입기도 하였다.[41] 1796년(정조 20년) 37세에 이미 성균관 대사성에 오른 남공철은 이후 형조참판, 예조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강원도 관찰사로 금강산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800년 3월 정조 사후, 순조가 등극하자 남공철은 정순왕후의 명에 의해 金載瓚, 李晩秀, 金祖淳, 尹行恁과 함께 돌아가면서 순조를 가르치게 되었고(8월),[42] 이후 효명세자의 사부가 되기도 하였다.

순조 연간의 조정은 노론 일색이었으며 시벽의 적나라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논의가 실종, 홍경래의 난과 같은 민란이 속출하던 난국이었다.[43] 남공철은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 가운데 노론 시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우선 남공철이 이미 오랜 관직 생활과 김조순과의 친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해 둔 까닭으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때 마침 남공철이 경상도 관찰사(1802~1804)와 모친

39)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15면.
40) 『歸恩堂集』, 「宜陽子年譜」, 正祖 21年 丁巳條.
41) 『歸恩堂集』, 「宜陽子年譜」, 正祖 22年 戊午條.
42) 『純祖實錄』 卽位年 8月 17日條.
43) 박현모, 「제5장 순조시대의 정국운영과 언론」, 『정조 사후 63년: 세도정치기의 국내외 정치연구』, 창비, 2011.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17면에서 재인용.)

상(1804~1806)으로 중앙 정계와 떨어져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는 남공철의 정체성이 문인에 가까웠고, 정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44], 당파에 관계없이 폭넓은 교류를 하였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45]

남공철은 1802년(순조 2년) 2월,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갔다가 2년 후에 조정으로 복귀하였는데 복귀 직후 모친상을 당하였다. 이때부터 3년 간 廣陵에 마련한 又思穎亭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이 기간은 남공철의 관직생활 중 가장 여유로운 기간이었다. 1806년, 삼년상을 마치고 형조참판으로 관직에 복귀한 남공철은 이듬해 동지정사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이 때 연경에서 曹江, 陳希祖, 李林松 등 淸의 명사들과 교류하고 그들로부터 序文을 받아 『金陵集』을 간행할 때 문집 서문으로 수록하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는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 문형 등을 지냈다. 이후 1810년(순조 10년), 보기 드문 가뭄과 기근으로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나던 그 때 남공철은 조정에 있는 것이 불안하여 일부러 외직을 구해 개성부 유수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못 되어 京職으로 복귀하였다.[46] 이후 예문관 제학, 홍문관 제학,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거치면서 바쁜 관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 틈

---

44) 남공철은 37세의 이른 나이로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으며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에도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었고, 정조 사후에는 규장각 직제학이 되어 『정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여하는 등 규장각에 오래 머물렀다. 또한 정조는 남공철을 '진흙탕 속에 빠졌어도 더럽혀지지 않은 인물'로 평하기도 하였다. (『穎翁續藁』 卷5, 「自碣銘」: "乙卯, 上謂諸閣臣曰, 近日權妖出近列, 朝紳多連累者, 而獨南某嶄然, 泥而不滓.'")

45) 남공철은 『金陵集』 卷1, 「余嘗扁其所居之堂曰爾雅 要姜豹庵 世晃 書揭此 公年七十 筆法愈奇妍 甚可珍翫也 遂作此寄謝」에서 초서를 잘 썼던 강세황이 자신의 堂인 爾雅堂의 편액을 써준 것에 대해 감사했는데, 칠십 세나 된 남인 강세황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노론 벌열 남공철에게 선뜻 편액을 써준 것으로 보아 남공철이 당색을 넘어 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1818년 남공철이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남인이었던 정약용의 放釋을 단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실록에는 '진퇴하고 奏對하는 데에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 조정의 縉紳이 다 칭찬하였다.'(『憲宗實錄』 6年 12月 30日條)하였으니 그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현명한 처신을 짐작해볼 수 있다.

46) 『歸恩堂集』, 「宜陽子年譜」, 純祖 10年 庚午條. : "六月, 拜開成府留守. (時公有不安于朝者, 力朮外廟堂首薦之.)"

틈이『金陵集』간행을 준비하여 1815년(순조 15년)에 『金陵集』 24권 12책을 간행하였다. 이즈음에 그는 용산에 心遠亭과 亦畵舫齋를 두고 이따금 그곳을 오갔다. 1816년에는 잇단 도목정사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잠시 체직되었다가 곧 복귀하여 문형에 오르고 이어서 1817(순조 17년)에는 우의정에 올랐다. 이 해에는 남공철이나 김조순 등의 시파와 대립하던 벽파의 영수 박종경이 죽고, 이어서 한치응의 계획에 의해 茶山 해배 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1818년 남공철은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정약용의 放釋을 단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47] 남공철은 정약용과 당색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에 대해 우호적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남공철이 유년시절을 보낸 명례방과 정약용의 집이었던 회현방이 가까웠던 것, 正祖代에 함께 관직생활을 하며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년 시절부터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48]

정순왕후 사후 안동김씨와 반남박씨가 주도하던 세도정국은 1817년(순조 17년) 박종경의 죽음으로 반남박씨 대신 풍양조씨가 득세하게 되어 1849년(헌종 15년)까지 金-趙 二戚의 世道期가 이어지게 되었다. 남공철은 1822년(순조 22년), 50대 중반 이후 쓴 글들을 모아 5권 2책의『潁翁續藁』를 간행하였고, 이듬해에는 영의정에 오르게 되지만 2년 만에 해임되어 간만에 한가로움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남공철은 貞陵에 머물며 김재찬 등과 모임을 갖거나 용산의 심원정에 가서 기거하기도 하고 광주에 성묘하러가서 우사영정에 머물기도 했다. 1833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廣州에 기거하다가, 1840년(헌종 6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남공철의 묘소는 廣州 청계산 자락에 있으며 詩號는 文獻이다.

---

47)『純祖實錄』18年 5月 25日條.
48)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18면.

2) 交遊

남공철의 교유관계는 크게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친족 가운데 교유한 이들로 南有衡・南有斗 등이 있고, 둘째는 집안끼리 대대로 교유가 이어져 알게 된 이들로 吳允常・李存秀・趙鎭球・李顯綏 등이 있다. 셋째는 젊은 시절에 특히 활발히 교유한 연암그룹으로 이덕무・박지원・유득공・박제가・이서구・金龍行・成大中 등이고, 넷째는 閭巷藝人 및 수학기에 절친하게 어울린 친구들로 崔北・李亶佃과 金載璉・朴南壽 등이다. 다섯째는 관직생활을 하며 교유하게 된 이들로 金祖淳・沈象奎・李相璜・李始源・徐榮輔 등이 있다.[49]

첫째・둘째 그룹은 대체로 평생에 걸쳐 교유하였고, 셋째・넷째 그룹은 주로 젊은 시절에 집중적으로 교유하였으며, 다섯째 그룹은 본격적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순조조에 이르기까지 교유하였다.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남공철이 종의 신분이었던 李亶佃에서부터 庶族, 그리고 세도가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룹인 南有衡(1715~1778)과 그의 아우 南有斗(1725~1798)는 친족 가운데 남공철이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이들이다. 이들은 남용익의 庶子인 南聖重(1665~1733)의 손자로, 남공철에게는 7촌뻘 되는 再從叔이다. 남유형의 字는 君山이다. 그는 측실의 자손이어서[50] 애초부터 고위 관직에 진출하여 영달할 뜻을 두지 않았지만, 평생 杜甫詩를 모범으로 삼아 배웠으며, 가난한 포의이면서도 천하의 일을 근심하는 면모가 있었다. 특히 詩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평생 지은 시 520수를 세 권으로 편차하여 『苞甘集』을 세상

49)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0면.
50) 南有容, 『雷淵集』 卷21, 「進士南君墓誌銘」: "始余曾祖文憲公有側室三子, 其仲曰聖重."

에 내놓았다. 남유형의 동생 남유두도 그의 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평생 벼슬하지 않고 스스로 '樵夫'라 칭하며 자족적인 삶을 살았다. 남공철이 시에서 '芝山樵夫', '南湖樵夫' 등으로 지칭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킨다.[51] 그는 나무꾼의 삶을 살면서도 평소 經書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詩才가 있어서 여항시인 李亶佃이 그를 스승으로 삼아 시를 배우기도 하였다.[52] 남공철은 남유형에게 묘지명과 그의 詩集『苞甘集』의 序文을 써주었으며[53] 남유두에게는 묘지명을 지어주었다.[54]

둘째 그룹은 집안끼리 대대로 교유가 이어져 알게 된 이들로 吳允常・李存秀・趙鎭球・李顯綏 등이다. 집안끼리 대대로 교유가 이어지는 경우, 대부분 집안의 비슷한 또래들과 유년 시절부터 어울리게 되는데, 남공철과 그러한 사귐을 가진 대표적 집안으로는 吳瑗(1700～1740), 李天輔(1698～1761)의 집안을 들 수 있다. 오원과 이천보, 남유용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黃景源(1709～1787)과 더불어 英祖朝 四家로 불리는 英祖朝의 대표적 관각문인들이다.[55] 英祖朝 四家는 이른바 '東村派'로도 알려져 있는데[56] 東村에서 함께 어울려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황경원을 제외한 오원, 이천보의 집안은 남유용의 집안과 대를 이어 교유한 흔적이 확인된다.[57] 오원, 이천

51) 남공철이 남유두를 위해 쓴 「眞樂先生墓誌銘」(『金陵集』卷17)에 남유두가 스스로 '樵夫'라 칭하였다(自稱以樵夫)고 하였으며, 남유두가 만년에 芝山에 살았다(先生晩居芝山)고 하였다. 그러므로『金陵集』卷2에 실린「訪芝山樵夫」; 「風雪 憶南湖樵夫」, 같은 책, 卷3의「哭芝湖樵夫」는 남유두를 대상으로 쓴 시로 보인다.

52) 趙秀三,『秋齋集』卷8,「李亶佃傳」: "嘗師南樵夫, 後改師李燜菴, 由是其詩幽巧, 絶有二家風焉."

53)『金陵集』卷11,「苞甘集序」; 같은 책, 卷17,「南君山墓誌銘」

54)『金陵集』卷17,「眞樂先生墓誌銘」

55) 임유경,「英祖祖 四家의 文學論 硏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참조.

56) 이규상은 오원·이천보·남유용·황경원의 네사람을 '東村派'라 칭하고 이들의 시문에 대해 평한 바 있다. 이규상 지음,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18세기 조선인물지-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47~53면 참조.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1면 주49에서 재인용.)

57) 황경원은 親子가 없어 馨을 入系하였으며 馨 또한 후사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황경원 집안과의 대를 이은 교유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1면 주46.)

보, 남유용의 다음 세대에는 오재순과 이문원이[58], 그 다음 세대에는 오윤상 형제와 이존수, 남공철이 서로 교유하였는데, 이들은 같은 세대끼리만 교유한 것이 아니고 아래 세대나 위 세대와도 활발하게 교유하거나 종유하였다. 모두 東村에 살고 있었고 남공철도 健德坊 外家에 자주 들렀기에, 거리상 교유하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가운데 오윤상은 남공철보다 열네 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師友관계로 우애가 돈독했다.[59] 오윤상은 두 집안이 대대로 사귀어 온 교분을 들어 남공철을 벗과 같이 여겼고, 남공철은 나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오윤상을 스승처럼 여겼다. 남공철은 이존수와도 대대로 교유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벼슬에 나아간 이후에 가깝게 어울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를 이어 교유한 이들로는 兪漢雋-兪晩柱 父子, 趙璥-趙鎭球 父子 등을 더 들 수 있다. 유한준은 남유용으로부터 문장을 배웠고[60], 유만주와 남공철은 종종 文酒之會를 함께하며 어울렸다.[61]

비록 吳瑗 집안이나 李天輔 집안처럼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지는 못했지만, 남공철의 조부 남한기로부터 남공철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교유한 집안으로 李德弘 집안을 더 들 수 있는데, 남공철이 7, 8세 무렵부터 평생 동안 가깝게 교유한 李顯綏(1759～1825)가 이덕홍의 손자이다.

남유용의 부친 남한기는 첫째부인 靑松沈氏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남유상과 남유용이고 딸은 宜寧南氏이다. 남유용의 누이동생 宜寧南氏는 일곱 살에 『詩經』의 周南과 召南에 통할 만큼 재주가

58) 남공철의 형인 南公輔(1721~1748)는 요절하여 오재순이나 이문원과 교유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더불어 교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9) 『金陵集』 卷11, 「送吳士執遊成都序」; 같은 책, 「與吳士執」

60) 『穎翁續藁』 卷4, 「著菴集序」: “公輾先君子, 旣致政家居. 故參議著菴兪公, 時以進士, 抱刺立門外請謁曰, 某於先生, 有山斗之仰久矣. 顧布衣不敢跡宰相之庭, 今先生懸車退朝, 某見之無嫌. 先君子亟迎見之, 公狀貌魁梧, 眞博茂君子也. 數語後, 命酒飮至醉, 罄其全書使讀之.”

61) 『金陵集』 卷10, 「與吳士執」: “夜回起居萬重, 崔士龍丈傳欲自二十一日, 出住鍾巖別業. 稍俟日氣益凉, 約一往過, 溪山文酒之樂, 可能繼先輩風流, 預可喜也. 通園兪伯翠, 因僕聞遊事, 欲往從之.”

있었는데 불행히도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이덕홍의 부친 李聖好가 宜寧南氏의 德을 높이 사서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여 이덕홍과 의령남씨의 혼인이 성사되었다.[62] 남유용과 이덕홍은 妻男과 妹弟의 사이가 된 것이다. 게다가 바로 이웃하여 살고 있었고, 연배도 같아, 두 사람은 형제 같이 지냈다. 오재순이 이들의 우애를 韓愈와 孟郊, 梅堯臣과 歐陽脩에 견줄 정도로, 이들은 절친한 관계였다.[63] 결국 이현수는 남공철과 동년배로서 평생을 좋은 벗으로 지냈지만, 사실 남공철의 내종조카(6촌)인 셈이다. 이덕홍이 죽자 남유용은 그 손자 이현수를 데려다가 남공철과 함께 가르쳤는데, 남유용은 늘 이현수만 칭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함께 어울린 이현수와 남공철은 평생 동안 허물없이 지냈다.

남공철의 세 번째 교유그룹은 이덕무・박지원・유득공・박제가・이서구・金龍行・成大中 등 이른바 연암그룹이다. 연암그룹과의 교유는 남공철의 문학관이 한차례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남공철은 16세 무렵부터 28세 무렵까지 연암그룹과 활발하게 교유하였는데, 남공철의 부친 남유용이 박지원의 장인 李輔天(1714~1777)와 이종형제 사이였기 때문에 박지원과는 더 이른 시기부터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64] 박지원이 전의감동에 머문 시기는 남공철의 나이가 13세 내지 14세로부터 19세에 이르는 시기로 그의 수학기와 상당기간 겹치는데, 이 기간에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文酒之會가 빈번하게 있었으며, 남공철은 당시의 모임을 통해 수많은 인사와 교유하고 그들로부터 문학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박지원은 '法古創新'

---

62) 南有容,『雷淵集』卷22,「處士李君恭人南氏合墓誌銘」: "吾先子有女士子, 七歲通詩二南, 旣長以孝友聞六親, 不幸廢于明, 蹇其配. 進士公聞之, 歎曰 : '嗟夫, 求婦者以貌乎, 將以德矣. 南氏世世名德聞, 其女甚賢, 吾必以吾子婿焉.' 媾遂以成."

63)『穎翁再續藁』卷3, 「淸風府使李君墓誌銘」: "始君大父拙翁公性高介, 隱江湖不仕, 與余先君子文淸公爲妹婿而有兄弟之好. 自少至老, 文酒相追隨. 嘗從入四郡金剛, 其詩多傳誦于學士大夫. 醇菴吳文靖公載純, 嘗作拙翁稿序,以東野之於退之, 聖兪之於永叔爲比. 余自髫齔, 與君家對門以居, 相遊戲."

64)『金陵集』卷18,「遺安處士李公墓表」: "不佞先君子, 與公爲姨從兄弟, 嘗情好篤至. 先君子之葬也, 公來臨穴哭甚哀."

으로 요약할 수 있는 특유의 문학관을 정립하고 참신한 산문들을 다수 창작했는데,[65] 남공철은 이 시기에 박지원과 교유하며 문학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1778년(정조 2년) 박지원은 홍국영의 위협을 의식하여 연암협에 은거하였다가 이태 뒤 삼종형 박명원을 따라 중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게 된다. 남공철의 박지원과의 교유는 『열하일기』가 세상에 행해지고 나서도 계속 활발하게 이어진다. 1779년, 남공철이 20세 되던 해에는 박남수의 寄所園亭에 박남수・이덕무・박제가 등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천하 고금 문장의 高下에 대해 토론하고 시를 짓기도 하였고[66], 1, 2년 뒤에는 박남수의 碧梧桐館에 박지원・이덕무・박제가・박남수와 모여 박지원이 『열하일기』 읽는 것을 듣다가 술에 취한 박남수와 박지원이 갈등했던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67]

남공철과 박지원은 꽤 오랫동안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1792년(정조 16년) 정조의 문체 관련 조치가 있었을 때, 정조는 당시 문폐의 주요한 요인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지목하고, 박지원에게 반성의 글을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편지로써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명받은 것이 남공철이었다.[68] 정조에 의해 정조와 박지원 사이의 중계자로 지목된 것이다. 또한 이후 1797년 박지원이 면천군수로 부임하게 되어 관아를 돌면서 인사할 때 남공철에게 들른 것에서도 그 친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오랜 기간 교유하였고 수학기에는 특히 자주 어울리면서 문학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남공철은 패관기서를 좋아하고 俗語를 즐겨 사용하였던 박지원의 일련의 표현법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고, 자신의 문집에 박지원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남겼다.[69]

---

65) 김명호,『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189면.
66)『金陵集』卷13, 「寄所軸跋」
67)『金陵集』卷17, 「朴山如墓誌銘」
68) 이 편지는『燕巖集』卷2,「答南直閣書」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덕무는 연암그룹 가운데 남공철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다. 이덕무와는 16세경부터[70] 남공철이 벼슬을 시작한 25세 이후까지도 활발히 교유하였으며, 1793년(정조 17년) 이덕무가 죽은 뒤에는 그의 묘표와 문집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71] 남공철은 박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덕무를 중심으로 한 벗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았고, 박지원과 직접 빈번하게 교유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덕무와 연락을 주고받아, 주로 이덕무를 통해 박지원을 접하였다.[72] 그것은 벼슬에 나아간 직후 이덕무에게 보낸 척독인 「與李懋官(二)」[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은 이덕무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옹원으로 한 번 들러줄 것을 일렀는데, 이덕무가 사옹원에 왔다는 말을 들으면 박지원 또한 합석할 것이라고 한 데서 남공철과 연암그룹과의 교유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 인물이 이덕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열아홉 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공철은 이덕무와 패관이서를 함께 읽고 담론하거나 勝景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74] 취미 생활을 공유할 만큼 허물없이 지냈다. 남공철은 종종 이덕무에게 자신이 지은 詩文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75]

---

69)『金陵集』卷17, 「朴山如墓誌銘」: "山如謂燕巖曰 : '先生文章雖工, 好稗官奇書, 恐自此古文不興.' … 余以是歎燕巖奇氣有虛己之量, 而益知山如議論之正也." ; 『金陵集』卷13,「金知縣農政書跋」: "世稱兪蒼崖, 朴燕巖之作爲最著. 兪文章奇崛, 而闊於事務. 朴雜以俚語, 頗可厭."

70)『金陵集』卷1,「送李懋官作沙斤丞」에 "去路千餘里, 交情五六年"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덕무가 1781년에 사근도 찰방으로 가게 되었으므로, 남공철이 16세 되던 1775년부터 교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1)『金陵集』卷18,「積城縣監兼奎章閣檢書官李君墓表」; 『金陵集』卷11,「雅亭集書」

72) 그렇다고 해서 남공철이 박지원과 소원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아 남공철은 동년배의 벗들보다는 박지원을 대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터이다. 문학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남공철은 박지원에게 동조하지 않는 점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 관계까지 소원해 질 이유는 없었던 듯하다. 1792년 정조의 문체 관련 조치 이후에 정조의 명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공철이 박지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든가, 박지원이 면천 군수직을 맡고 면천으로 떠나기 전에 남공철을 찾아가 비교적 소탈한 대화를 나눈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7면 주77 인용.)

73)『金陵集』卷10.

74)『金陵集』卷10,「與南丞士樹」: "前月抵京師, 偶逢李懋官誇遊事, 懋官始疑而不信, 及出龍淵瀑布詩諸篇, 而後樂之"

成大中(1732～1812)의 字는 士執, 號는 靑城으로 남공철이 약관을 전후하여 교유하기 시작했다. 庶族 출신으로 영조 때 서얼들의 신분 상승 운동인 서얼 통청 운동에 힘입어 청직에 등용되었고, 정조의 知遇를 입어 부사의 벼슬까지 올랐다. 연암그룹과 교유하며, 연암그룹의 문학사상에 동조하였지만 정조의 문체정책에도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연암그룹과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 성대중은 1800년, 정조가 서거하기 까지 남공철과 함께 문폐의 일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남공철은 평소 성대중과 문장에 대해 토론하며 시를 주고받았고, 성대중은 남공철의 원고를 평정해주기도 하였다.[76] 남공철은 성대중이 세상을 떠났을 때, 輓詞[77]를 짓기도 하는 등 오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네 번째 그룹은 여항예인들 및 수학기에 절친하게 어울린 친구로 李亶佃, 崔北, 金載瑾, 朴南壽 등이다. 이들은 남공철이 문학과 예술에 관한 견해를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었는데, 남공철이 20대 중후반을 지날 때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남공철은 이들을 위해 입전하거나, 묘지명을 짓거나, 시를 지었는데, 이들은 남공철의 문학 창작에 강한 동기를 부여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공철이 여항예인들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것에는 남다른 書畵에 대한 관심이 작용하였다.[78] 남공철의 서화에 대한 관심은 부친 남유용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79], 癖이라고 표현될 만큼 지대하였다.[80] 이러한 관심은 교유

75) 남공철이 이덕무에게 보낸 시 (『金陵集』卷2,「訪懋官」)를 두고 이덕무가 고평을 하자 남공철이 편지를 써서 “二篇豈曰詩乎哉! 聊以敍中間離別, 自見其志爾.”(『金陵集』卷10,「與李懋官德懋」)이라고 한 것이 한 예이다.

76)『金陵集』卷2,「邀成士執, 評定文藁, 寄謝」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

77)『金陵集』卷4,「成北靑士執輓」

78)『金陵集』卷23,「洪氏寶藏齋畵軸」: “余少癖於書畵, 見有賣名品者, 至脫衣裘而易之. 聞人家有善本, 則輒往觀, 皆有品題.”

79) 南有容,『雷淵集』卷13,「題伯氏漁父圖小詞後」: “余童時嗜畫, 類王猷之於竹也. 聞人家有好畫, 必往求觀焉. 鄰居趙君, 滄江之孫, 而滄江善畫, 故畜古畫甚多. 余嘗見安堅, 李楨畫人物尤絶好. 日往求觀, 主人或厭之, 而余則愈不厭也.”

방면에서 이단전이나 최북과 같은 이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남공철이 언제 이단전을 처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단전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최북을 소개받았다.[81] 남공철이 최북에게 보낸 편지 「答崔北」(『金陵集』卷10)이 1778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아 남공철은 19세 이전부터 최북을 알고 있었고,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단전을 알게 된 것이다.

이단전(?~1790)은 字가 耘岐 또는 耕傳이고 호는 疋漢이다. 그의 어머니가 兪彦稿(1730~1796)의 종이어서 그도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았다. 지독한 추남이었으며 말도 어눌하였는데, 술을 좋아해 사람만 보면 술을 찾아서 그를 싫어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詩文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름이 자자했다. 이단전은 남공철의 再從叔인 남유두와 이덕무로부터 시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唐詩를 배웠고, 나중에는 明이후의 徐渭(1521~1593)·袁宏道(1598~1610) 등의 시를 배웠으며, 詩에서의 진실한 감정을 중요시했다.[82] 남공철은 이단전과의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격의 없이 그와 어울렸으니, 이단전이 약속도 없이 갑자기 남공철에게 들를 정도였다.[83]

최북은 초명이 埴이고 자는 聖器·有用이며 호는 星齋·豪生館 등이다. 여항 출신 화가인 그는 특히 산수화와 메추리 그림을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車佐一·千壽慶·張混·王太 등과 함께 松石園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84] 48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북은 남공철과

80) 『金陵集』卷23, 「洪氏寶藏齋畵軸」: "余少癖於書畵, 見有賣名品者, 至脫衣裘而易之, 聞人家有善本, 則輒往觀, 皆有品題."
81) 『金陵集』卷13, 「崔七七傳」: "始余因李佃, 識七七."
82) 『金陵集』卷11, 「李君詩序」: "李亶佃閭巷人也, 少學唐詩, 旣而盡焚其藁, 下學徐袁鍾譚."
83) 『金陵集』卷2, 「春日李佃至」: "好事莫如君, 偶然來不約."
84) 呂圭亨, 『四名子詩集』附錄, 「行狀」: "與崔北, 千壽慶, 張混, 王太, 諸名士, 結社于城西之松石園, 優遊文墨, 放浪形骸."

격의 없이 어울렸는데,[85] 남공철은 최북의 예술가적 면모를 높이 평가하여 「崔七七傳」[86]으로 그를 입전하기도 하였다.

朴南壽와 金載瑾은 남공철이 수학기에 절친하게 어울리던 이들로, 남공철은 20세경부터 이들과 의기투합하여 어울렸다. 남공철이 박남수를 처음 만난 것은 성균관에서였는데[87], 성균관은 남공철이 박남수 및 김재련과 어울리던 주된 공간 가운데 하나였다. 셋은 성균관에서 함께 어울리며 시를 지어,『太學唱酬集』을 엮기도 하였고, 남공철은 「題太學唱酬集後」를 지어 태학에서 함께 노닐던 일에 대한 감개와 세 사람의 교유 내력을 간단히 서술한 바 있다.[88]

박남수(1758~1787)의 자는 山如이고 호는 修隅·靜存窩 등이며 본관은 潘南이다. 그는 韓愈를 모범으로 삼고 唐宋文과 秦漢文을 본받고자 하였으며, 明末 이후의 문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인물로, 박지원이 패관기서를 본받은 문장을 쓴다고 하여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다.[89] 박남수는 30세에 요절하였는데 남공철은 박남수의 묘지명에서 弱冠부터 교유했던 명사 중에서 박남수가 가장 출중했다고 말하였다.[90]

김재련(1750~1785)의 字는 國器, 호는 默觀이다. 정조 연간에 영의정을 지낸 金煜(1723~1790)의 아들이자, 정조 연간에 이조판서를 지내고 순조 연간에 영의정을 지낸 金載瓚(1746~1827)의 아우이다. 1780년에 서른 살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한 후 이렇다 할 벼슬을 하지 못하고 서른 다섯의 젊은

85)『金陵集』卷10,「答崔北」: "朝自南衙還, 聞虛過, 悵然也. 僮僕皆傳生來時被酒, 亂抽案上書帙, 紛然滿前, 仍欲狂叫嘔吐, 爲人扶出而止, 能免街上顚仆之患不." 남공철이 집을 비운 사이 최북이 술에 취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남공철은 최북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안부를 걱정하는데서 알 수 있다.
86)『金陵集』卷13,「崔七七傳」
87)『金陵集』卷10,「答朴山如書」: "僕聞足下名久矣. 又因知舊, 得其所爲歌詩數篇而讀之. … 及見足下於太學也, 靚然其貌, 溫然其色, 望之昂昂, 而與之語, 愷悌君子也."
88)『金陵集』卷13,「題太學唱酬集後」
89)『金陵集』卷17, 「朴山如墓誌銘」
90)『金陵集』卷17, 「朴山如墓誌銘」: "且余自弱冠治文詞, 所與交多知名士, 而山如最傑."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공철의 초년시절 벗 중에 가장 뜻이 잘 맞았던 친구로 남공철은 여러 詩文을 통해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토로하였다.[91]

셋째 그룹인 연암그룹, 넷째 그룹인 여항예인 및 수학기의 벗들은 남공철이 젊은 시절에 주로 교유한 그룹이다. 이 중 연암그룹과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활발히 교유하다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남공철이 27세에 산청현감직을 맡아 2년 넘도록 지방관 생활을 하는 등 관직생활 때문에 바빠졌기 때문이고, 또 34세 되던 해에 절친했던 이덕무가 죽고 나니, 연암그룹과 이전처럼 함께 어울리진 못하게 되었던 듯하다. 또한 여항예인이나 수학기의 벗들과는 20대 중반 이후 잇따라 사별하게 되어, 이후 남공철은 관직생활을 함께 하는 이들과 주로 교유하게 되었다.

金祖淳・沈象奎・李相璜・李始源・徐榮輔 등은 관직생활을 하며 함께 교유하게 된 이들이다. 이들은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함께 활동하였고, 정조가 베푼 賞花釣魚宴에서 함께하거나 사적인 모임을 갖는 등, 남공철이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교유를 이어나갔다.

이 중 金祖淳(1765~1832)은 남공철, 이상황 등과 함께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활동하였고, 순조조에 國舅가 되면서 세도정국을 주도하였다. 이상황과 함께 소설을 읽다가 정조에게 적발되어, 후에 자송문을 지어 바치자 그에 대해 정조는 “문체가 바르고 우아하며 뜻이 풍부하여 무한한 旨趣가 있음을 알겠다”라 하여 그 문체를 극찬한 바 있다.[92] 남공철이 김조순과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직에 나아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교유한 것으로 보인다.[93]

---

91)『金陵集』卷1,「悼國器」; 卷11,「金國器詩集序」; 卷13,「題太學唱酬集後」; 卷13,「金國器書簡帖跋」; 卷14 「祭金國器文」

92)『正祖實錄』16年 11月 8日條 : “文體爾雅, 意匠汎濫, 頗覺有無限旨趣.”

93) 出仕 이전에 지은 남공철의 시문 가운데서는 김조순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의 교유

沈象奎(1766～1838)은 沈念祖(1734～1783)의 아들로, 심염조가 정조로부터 '涵齋'라는 賜號를 받은 데 이어 심상규 역시 정조로부터 '象奎'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심상규 역시 1789(정조 13년)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었으며, 20대 초반부터 남공철과 본격적으로 교유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시문에 대한 견해를 자주 주고받았다.[94] 심상규의 문학적 궤적이나 문화적 취향 등은 남공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95] 이외에도 남공철이 길고 짧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李相璜・李始源・徐榮輔・徐有榘・尹行恁・金載瓚 등과 관직생활을 하며 자주 어울린 것을 여러 詩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남공철이 1788년에 김조순에게 쓴 척독「答金士源」(『金陵集』卷10)이다. (안순태, 앞의 논문, 30면, 주95.)

94)『金陵集』卷10,「與沈穉敎書」; 같은 책,「與沈穉敎」

95) 그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젊은 시절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활동하고 순조조에 들어서서 김조순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문형을 지냈다는 삶의 궤적이 흡사하다는 점이다. 둘째, 젊은 시절 남공철이 심상규에게 쓴 편지에서 "지금 穉敎의 文은 어찌 그리도 제 마음과 잘 맞는 지요?"[今穉敎之文, 何其與吾心合也.](『金陵集』卷10, 「與沈穉敎書」)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남공철의 문학관과 부합하는 면이 많았다는 점이다. 셋째, 화려한 주택인 嘉聲閣을 경영하여 속세와 단절된 자신만의 공간을 조성하여 閒雅한 경지를 향유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안순태, 앞의 논문, 31면 주97.)

Ⅲ. 文學觀

1. 六經 學習을 통한 氣의 涵養

남공철은 童子때에 부친의 권유로 고모부 김순택(1714～1787)에게『論語』,『孟子』와 사마천, 唐宋諸子의 문장을 배웠다.[96] 16세에는 본격적으로 고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한준(1732～1811), 황경원(1708～1787), 오재순(1727～1792)을 찾아가 자신의 문장을 보이고 '小韓愈', '韓法歐趣'[97]의 高評을 받기도 하였다. 20세경에 文學觀을 이미 확립한 그는 '文以載道論'의 시각에서 六經을 중시하였다.

일반적으로 道文一致를 중시하는 儒家에서는 육경을 문장의 근본으로 삼았는데, 전통적으로 육경의 작자를 聖人이라고 인정해왔기 때문에 후인들은 육경에 담겨진 도와 문사를 문장의 전범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경을 도의 근본으로 삼고 문장학습의 우선 과제로 여겼으며, 남공철의 경우도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98]

> 선비가 道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道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聖人을 배워서 문장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성인이 없지만 詩・書・易이 道가 되는 것은 만세토록 행할 만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高遠하여 실천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애써 奇僻함을 숭상하여 글을 짓는 자는 모두 道의 죄인입니다. 그러니 문장을 잘 지을 줄 알고 詩・

96)『金陵集』卷11,「玉溪金先生文集序」: "公輟爲童子時, 先人使受學於玉溪金先生, 每早起盥梳, 挾冊至先生所, 受論孟諸書, 先生間或取太史公唐宋諸子文."
97)『潁翁續藁』卷5,「自碣銘」: "年十六, 始學爲古文, 兪蒼厓漢雋題其卷曰小韓愈, 醇菴吳文靖公載純見而評之曰韓法歐趣. 弱冠, 携文謁大學士江漢黃公景源, 黃公曰古文絶於世久矣 子其勉之."
98) 명평자,「금릉 남공철의 고문론 연구」, 2008, 51면.

書・易에 종사한다면 거의 지극한 경지라 할 것입니다.[99]

성인을 배워 문장을 지어야 하는데 성인은 지금 세상에 없다. 그렇지만 詩・書・易에 그 道가 있다고 하였다. 남공철은 당대 사람들이 성인의 도가 담긴 詩・書・易을 버려두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六經을 성인의 道가 구현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 六經의 학습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육경을 학습하는 목적은 성인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인데, 남공철은 學問과 學文의 방법을 나누어,[100] 學問에 대해서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下學而上達'을 중시하였다. '下學而上達'은 도학가들의 學問방법으로, 程朱가 밝힌 理氣心性을 토대로 공부하여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은 각 단계의 學問적 성취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有德者, 必有言'이 대표적 명제라 할 수 있다.[101]

남공철은 程朱之學性, 즉 性理學 연구와 관련하여 글을 남기고 있지 않다. 다만, 六經과 四書를 공부할 때, 반드시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펼치려는 태도를 비판하였다.[102] 그래서 四書는 오로지 程朱의 訓詁에 의거해 읽고, 六經은 程朱의 義理와 漢儒의 註疏를 절충하여 육경의 本旨를 이해하는 漢宋折衷的 학문관을 제시하였다.[103] 이러한 學問觀은 宋明이래 宋學을 중시하

99)『金陵集』卷10,「與成校理大中論文章書」: "然士不學道則已, 如欲學道, 必學聖人而爲文. 世無聖人矣, 至於詩書易之爲道者, 亘萬世可行而不變也. 今以爲高遠不足爲, 而務尙奇僻以爲文者, 皆道之罪人也. 有能爲文章而從事乎詩書易, 則庶乎至矣."

100)『潁翁再續藁』卷2,「古文原流序」: "然而學問貴歷階級, 故宜下學而上達, 文章尙氣力, 故上學而下達, 學書亦然."

101) 김광섭,「금릉 남공철 산문 연구」, 2009, 14면.

102)『金陵集』卷11,「詩草木鳥獸譜序」 "今吾生於其後, 訓詁之博雅, 義理之明切, 於毛鄭氏朱子, 固不敢望而及, 而欲以區區管蠡之見, 容喙其間, 則人將不信, 不信而言, 妄也. 懼其不信, 而必欲伸己見, 則其言愈妄, 而其弊爲務勝前賢, 於心術有害."

103)『潁翁續藁』卷5,「思潁居士自誌」: "其讀經頗有法, 讀四子, 專主程朱訓詁, 經則以程朱義理, 參以漢儒註疏, 持循而通變. 於其駁者, 黜去不疑, 而其醇者則多從之. 嘗著詩書春秋易繫辭論, 以自見其意."

고 漢學을 홀시하는 풍토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가진다.[104]

> 漢의 儒者들이 詩經을 훈고하였으니 그 공이 더욱 크다. 이름과 사물, 제도에 그 배움이 깊어서 가장 박아하다고 칭할 만하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공자께서 시를 刪定하신 것을 일러 '易을 부연한 것이고 春秋의 마음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으니, 독자들은 마땅히 먼저 성인의 세밀하고 심오한 뜻을 먼저 연구하여 의리의 타당한 바를 구해야한다. 이것이 곧 시의 주요한 뜻이지 훈고는 급한 바가 아니다.[105]

漢의 儒者들이 詩經을 훈고한 것에 대해 먼저 칭찬하고 있으나 詩經을 학습함에 있어 무엇보다 '성인의 세밀하고 심오한 뜻을 먼저 살피고 義理의 타당한 바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 훈고는 급한 것이라 아니라고 하였다. 즉 성인이 육경을 지은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 육경은 모두 성인의 도를 싣고 있다. 선비들이 육경을 배우는 것은 성인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이다. …성인의 도는 하나일 뿐인데 학설은 매우 많다. 그 하나의 도에 근거하여 의미를 구한다면, 육경처럼 알기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 학설을 따라 그 의미를 구한다면, 육경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없다.…名物度數는 漢儒를 위주로 하고 理氣心性은 程朱를 위주로 하여 古文과 今文을 참고하면서 육경의 의리와 사물을 탐구하면 된다. 그러니 후대 학자

104)『金陵集』卷11,「送沈大學士李侍讀赴燕序」: "經學之正, 莫如宋明. 然士知尊程朱, 而不知漢諸儒於經亦有功, 以十三經註疏, 爲無用之書而束閣不讀, 則其陋已甚. 顧今中州之學, 大抵皆宗程朱, 而間有主漢儒者出, 其學漸盛."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73면. 유봉학은 남공철의 한송절충론은 표면상 한학, 송학에 대해 어느 한쪽의 우위를 논하지 않고 양자를 병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학문태도는 經學에서 漢學을 우위에 두는 입장으로 나아가던 당시 경화학계의 추세를 반영하고 그 영향을 촉진시켰다고 보았다.

105)『金陵集』卷14,「詩論」: "漢儒訓詁於詩, 其功尤鉅. 其學深於名物度數, 最稱博雅. 然余嘗謂夫子之刪詩, 乃演易修春秋之心也, 讀者當先究聖人之微奧, 以求義理之所安. 此乃詩之宗旨, 訓詁非所急也."

들의 수많은 설들이 어찌 이보다 낫겠는가!…내가 여러 번 설명하고 변증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106)

육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인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성인의 도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각자의 학설을 만들어 성인의 도를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남공철이 바라보는 당시 經學에 대한 비판이다. '하나의 도에 근거하면 육경처럼 알기 쉬운 것이 없다'는 말은 육경이 '하나의 도' 즉, 程朱에 의해 이미 다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 태도는 朱子의 四書解釋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고 연구의 범위를 육경의 고문으로 확대한 남인계와 소론계의 학문 방법과 차이를 보인다. 老論 洛論 계열인 남공철은 육경과 사서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지양하여, 宋代의 程朱와 우리나라의 先賢이 心性理氣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이를 따라 배우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서는 주자의 『四書集註』를 정본으로 삼고,『周易』은 程子의 傳義를,『詩經』은 朱子의 集註를,『書經』은 蔡沈의 集傳을 주로 하되, 漢儒의 성과물인『十三經注疏』를 참고하여 육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다.107)

그의 주된 관심은 文章에 있었다. 그가 제시한 문장학습방법인 '上學而下達'은 最古의 문장 전범인 六經을 먼저 배우고『史記』,『漢書』, 唐宋八家 등 아래 시대의 문장을 차례로 익히는 방법이다. 남공철이 옛 시대부터 아

106)『金陵集』卷11,「贈趙國珍鎭球序」: "六經, 皆載聖人之道, 士之學六經者, 將欲學聖人之道也.…夫聖人之道一而已, 而說之者甚衆, 執其一道而求之, 則易知者莫如經, 而從其衆說而究之, 則難知者亦莫如經也.…名物度數主漢儒, 理氣心性主程朱, 參互古今文, 而究其義理與事物, 則後人之千言萬語, 豈有勝於此者乎.… 故余屢爲說以辨之, 而世之人不余信也."

107)『金陵集』卷11,「送沈大學士李侍讀赴燕序」: "又自宋明以來, 立學官敎授, 專尙程朱之書, 科擧之士, 易主程子傳義, 而陰陽卜筮之學廢矣. 詩主朱子集註, 而毛鄭草木鳥獸名物之譜不講矣. 書主蔡沈集傳, 而孔壁所得竹簡之序不傳矣. 沈嘗受書於朱子, 朱子雖不自傳, 謂沈書爲朱子之書, 可不誣也. 以是論之, 經學之正, 莫如宋明, 然士知尊程朱, 而不知漢諸儒於經亦有功, 以十三經註疏, 爲無用之書而束閣不讀, 則其陋已甚.…盖明義理則程朱之說, 最得其正, 榷訓詁則漢儒之學, 號爲博雅.…士之生於今世者, 當以程朱之義理, 漢儒之訓詁, 合而讀之, 以求其旨之所安而已."

래 시대로 학습 순서를 정한 것은 文道가 시대를 따라 내려올수록 쇠미해진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문장에 있어 氣(力)를 중시하는 것이다.

문장에서 氣를 중시하는 태도는 남공철의 高祖 南龍翼(1628~1692)으로부터 확인되는 집안 전통이다.[108] 남용익은 자신이 가장 文氣가 빼어날 때 지은 작품은, 글 짓는 솜씨가 더 노련해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 詩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氣임을 강조하였다.[109] 남공철의 부친 남유용 역시 志가 氣를 통솔할 수 있게 된 후에야 氣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氣로 작문에 임해야 한다고 하여[110] 문장에서 氣를 중시하였다. 남공철은 이렇듯 집안 대대로 이어진 氣에 대한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 문장은 氣를 주로 삼아야 하고, 法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을 氣라 합니까? 氣는 육경에 있으니, 반드시 먼저 육경을 읽고, 하늘의 이치와 성인의 도가 모인 곳을 살피어 깊이 체득하고 충실히 하여 빛남이 있게 하여 나의 기를 기르고 또 나의 기를 통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문장으로 발하면, 문장은 기를 바라지 않아도 절로 기가 있게 됩니다. 육경은 正氣입니다. 老子, 莊子, 韓非子, 田駢, 鄒衍, 列禦寇 등은 비록 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邪氣입니다.[111]

남공철은 이 글에서 문장에서 氣가 중요하고 法은 그 다음이라고 하였으며, 문장가는 이치와 도가 담긴 육경 속에 涵泳함으로 학문을 충실하게 하여 氣를 길러 통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氣가 충실하면 문장에 기를 표현

108) 안순태,「남공철 문학관의 변이 양상에 대한 연구」,『한문교육연구』제33호, 2009. 478면.
109) 南龍翼,『漫筆』三, 張43.
110) 南有容,『雷淵集』卷16,「答兪景明」
111)『金陵集』卷10,「與金國器載璉論文書」:“文章以氣爲主, 法次之. 何謂氣, 氣在六經, 必先讀六經, 以窺其理道之淵藪, 涵泳渟蓄, 充實光輝, 以養吾氣, 以達吾氣, 然後發之於文, 文不期氣而自氣, 六經正氣也. 老莊, 韓非, 田駢, 鄒衍, 列禦寇諸子, 雖有氣而皆邪氣也.”

하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기가 있게 된다는 말은 문장가가 힘써야 할 선험적 과제가 기의 함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공철이 강조한 氣(力)는 문장가의 정신역량이자 문장을 통해 드러난 氣勢를 말한다. 氣勢는 문장가의 氣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문장가의 氣가 어떠하냐에 따라 문장의 氣勢가 달라지기 때문이다.[112]

문장가의 氣에 대한 해석은 문장가의 도덕정신을 의미하는 것(맹자)과 문장가의 개성을 의미하는 것(조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맹자는 문장가의 사상과 도덕의 배양을 중시하는 養氣論을 펼쳤는데, 맹자가 말하는 氣는 유가의 義와 道를 근본으로 하여 義의 부단한 축적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浩然之氣'로, 남공철이 언급한 '眞氣'이기도 하다.[113] 眞氣는 문장가가 몸소 體認한 참된 정신역량을 말한다. 眞氣는 시간적 선후관계로 말하면 元氣에 해당되고, 유교적 가치를 포함하여 말하면 正氣가 된다. 이러한 眞氣가 온전히 문장에 실려 있는 것이 바로 六經이다.

남공철은 正氣는 성현의 저작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선택의 대상이라 여겼다. 따라서 邪氣도 존재한다. 邪氣는 儒家의 시각에서 孔孟의 설에 어긋난 老莊, 韓非, 田駢 등 제자백가의 글에 존재하는 것이다. 남공철은 氣를 '正氣'와 '邪氣'로 나누고, 氣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 체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 西漢唐宋이래로 氣의 바름을 얻은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겨우 사마천이 천부의 재질로 온 세상의 명산대천을 유람하고 또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성현이 絃誦揖讓하는 유풍을 들어 그 깨끗함(潔)을 얻었습니다. 한유는 천년

112) 김광섭,「금릉 남공철 산문 연구」, 2009, 19면.
113)『嶺翁再續藁』卷2,「古文原流序」:"今天下之文, 患無眞氣而不合於古人之法. 合古法者, 或拘牽摹擬, 不能自變化."

이 지난 시기에 맹자의 학문을 전하여 사문을 흥기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그 순수함(醇)을 얻었습니다. 구양수는 禮樂仁義의 실상을 드러내어 공자에게 이르게 해서 그 전아함(雅)을 얻었습니다. 소식은 걸출하고 뛰어난 자태와 맑고 굳세어 꺾이지 않는 절개로 만년에 영남에서 고생했지만, 훌륭한 문장과 고상한 인품은 천하의 으뜸이 되기에 충분해서 기이함(奇)을 얻었습니다. 潔·醇·雅·奇라는 것은 모두 氣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육경을 배워서 추구한 것이 바름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114]

사마천의 潔, 한유의 醇, 구양수의 雅, 소식의 奇는 모두 正氣에 해당하는 일례이다. 육경의 正氣와 작가의 개별적인 氣가 공명작용을 일으켜, 작품을 통해 특색 있는 氣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司韓歐蘇를 평가할 때, 正氣의 범주를 潔·醇·雅·奇로 나누고 작가의 개성을 강조한 면이다. 이것은 작가가 각각 자기의 本然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115]

그러나 潔·醇·雅·奇의 개념은 글을 쓰는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달리 표현된 것일 뿐 이들은 모두 正氣의 개념을 담은 것이다. 남공철은 司韓歐蘇의 문장을 六經을 제대로 배워 '求弗畔正'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국 남공철은 正氣를 획득 할 수 있는 길은 六經의 올바른 학습에 달렸다고 파악한 것이다.[116]

---

114) 『金陵集』 卷10, 「與金國器載璉論文書」: "西漢唐宋以來, 得氣之正者, 絶罕僅有, 司馬遷以天縱之才, 游天下名山大川, 又至齊魯, 得聞聖賢絃誦揖讓之遺風, 得其潔. 韓愈傳孟子之學於千載之後, 以興起斯文爲己任, 得其醇. 歐陽脩著禮樂仁義之實, 以達於孔氏, 得其雅. 蘇軾以豪邁拔俗之姿, 淸剛不撓之節, 及其晩節, 崎嶇嶺表, 文采風槩, 有足高天下, 得其奇. 曰潔曰醇, 曰雅曰奇, 皆謂之氣, 此皆學六經而蘄弗畔正."

115) 김광섭, 앞의 논문, 20면.

116) 윤현철,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연구」, 1990, 42-43면.

2. 道에 대한 認識 變化와 務自己出

남공철은 16세에 고문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수학기 내내 보수적인 면모를 보였다. 글에 구현해야 할 도를 성인의 도로 한정하였고, 육경 및 사마천과 당송고문가들의 글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공철은 25세 되던 1784년(정조 8)에 문학관이 轉變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文氣 함양을 위해 독서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두루 읽을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옛날의 도와 지금의 도가 다르고, 도에 대해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내세우게 되었다.[117]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 남공철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118] 라고만 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암그룹과의 교유가 그의 문학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공철이 보수적 고문가였던 스승 김순택으로부터 고문을 배우기 시작한 때가 16세경인데, 이덕무나 박지원, 박제가 등 이른바 연암그룹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남공철과 이들은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함께 모여 詩酒會를 자주 가졌다. 이 무렵 박지원은 '法古創新'으로 요약되는 문학론을 이미 확립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古文을 본받되 이를 당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119] 그런데 이 '법고창신'의 이론은 남공철이 「與金國器載璉論文書」에서 언급하고 있는 '通變'과 거의 일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공철은 「與金國器載璉論文書」에서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篇法·句法·字法이 있으며, 문체에 따라 각기 그 문체의 法이 있음을 말한 후 '본받기는 하되 답습하지는 않는 것', 즉 '通變'을 法 운용의 요체로

117) 안순태, 「남공철 문학관의 변이 양상에 대한 연구」, 2009. 483면.
118) 『金陵集』 卷10, 「與沈穉敎象奎書」 "何爲變前之見乎? 曰, 僕有知之者矣."
119)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56~67면.

제시하고 있다.[120] 즉 고문을 본받아야 한다는 '法古'는 다름 아닌 '通'에, 그것을 다시 지금에 맞게 변용시켜야 한다는 '創新'은 '變'에 대응된다. 아직 보수적인 문학관에 머물러 있던 남공철이 비록 문장의 法에 한정해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지원의 문학 이론인 법고창신론과 흡사한 통변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121]

또한 남공철이 절친하게 지낸 이덕무의 詩文의 성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은 이덕무의 초기 시문을 엮은『嬰處稿』의 서문에서 柳琏(1741~1788)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柳琏은 이덕무의 시문집을 보고 "옛사람의 시를 배웠음에도 그와 비슷한 점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는 곧 오늘날의 시이지 옛날의 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덕무의 시에 今의 가치가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남공철은 이덕무와 어울리며 자주 문학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는데[122]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로인해 古의 가치와 더불어 今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남공철의 문학관의 변화 양상은 남공철이 25세 되던 1784년에 쓴「與朴山如南壽」·「答金國器載琏」·「與沈穉敎象奎書」의 세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與朴山如南壽」는 문학관이 전변하던 과도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123]

「與朴山如南壽」는 남공철이 벗 박남수에게 쓴 편지로, 글을 지을 때 모

120)『金陵集』卷10,「與金國器載琏論文書」. : "法相師而不相襲. 序記主醇雅齊整. 碑誌務摹寫風神, 鋪敍簡而該. 章疏策論 導情欲婉而切, 述事欲明而覈. 其或川橫馳騖, 變化百出, 而各至工力之所及. 尺牘題跋, 淸新奇絶, 纖細斷續, 時有爛草戱作, 各極其妙. 今人作文, 患不知法. 以史漢之筆力, 移之於尺牘題跋而失之矣. …中略… 嘗怪人學書. 喜二王者, 爲題額大字, 臨蘭亭洛神諸帖而廣之, 非蘭亭洛神矣. 喜顔柳者, 爲畵識書品, 倣家廟玄秘諸碑而小之, 非家廟玄秘矣. 若使二王顔柳當之, 必不泥於一法. 學文如學書, 在其人通變之如何. 故曰法相師而不相襲."

121) 안순태, 앞의 논문, 484면.

122) 남공철은 주로 이덕무나 박제가 등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박지원을 만났을 뿐 단독으로 박지원을 만난 일은 드물었다. 그에 반해 이덕무에 대해서는 남공철 혼자서도 그를 찾아간 일도 적지 않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일하는 사옹원에 들러줄 것을 청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교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순태, 앞의 논문, 주42.)

123) 안순태, 앞의 논문, 487면.

의하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폭넓게 독서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글을 지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六經과 당송고문을 중심으로 한정시켜 두었던 독서의 범위가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124] 노자나 장자, 순자와 같이 이전에는 邪氣가 있는 이단으로 분류했던 이들 저술의 의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125] 등은 이전의 문학관보다 태도가 유연해졌음을 볼 수 있다.

「答金國器載璉」은 김재련에게 보내는 편지로, 時文을 낮추어 보던 당시의 세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옛날의 字句나 가져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고문을 짓느니 차라리 사실에 꼭 들어맞는 時文을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재련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동일한 사람에게 쓴 편지이면서도 文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학관이 전변하기 직전에 김재련에게 보낸「與金國器載璉論文書」에서는 六經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氣를 함양해 文을 지을 것, 전국시대에 이르러 文과 道가 둘이 되었으며 시대를 내려올수록 文이 道를 따라 쇠미해지고 있다는 貴古賤今의 인식을 보여 여전히 문장에 구현해야할 것이 성인의 도임을 전제하고 있는 데 반해 김재련에게 보낸 나중의 편지「答金國器載璉」에서는 古文이 아닌 時文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126]

남공철의 변화된 문학관을 가장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沈象奎에게 보내는 편지인「與沈穉敎象奎書」이다. 남공철은 이 글에서 그동안 文에 드러낼 道를 성인의 도로 한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道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文에서 어떻게 道를 드러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먼저

124)『金陵集』卷10,「與朴山如南壽」
125)『金陵集』卷10,「與朴山如南壽」
126) 안순태, 앞의 논문, 488면.

그는 文은 載道之器임을 전제한 후 “道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道則與時相推移]”고 하는가 하면 “도는 크고 작음이나 높고 낮음이 없어 사람마다 각자의 도를 갖추고 있다[道非有大小高下也, 人人各具其道]”라 하여 도의 상대성을 강조하였다.[127] 道가 시대마다 변하고 사람마다 각자의 도를 갖출 수 있다는 말은, 곧 도가 三代 성인들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가장 잘 구현된 것이 육경이라고 주장하던 앞의 논의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며, 道에 대한 이해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남공철에게 道는 文에 실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仁義를 기반으로 한 聖人의 道라는 절대적 위상과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화된 道를 文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남공철은 상대적인 道를 文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文을 구성하는 말[辭]과 文의 내용 또한 옛것이 아닌 변화의 도정에 있는 ‘지금의 것’을 써야 한다고 하고 있다.[128]

> 옛날과 지금은 道가 다르고 그 말[辭] 또한 일찍이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같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글이 아니지요. …(중략)…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옛날의 물건과 일이 아닌데도 글은 억지로 옛날과 같이 쓰려한다면 이것이 원숭이가 의관을 갖추고 사람이 되려는 것이나 못생긴 자가 화장을 하여 서시가 되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129]

글을 쓸 때 ‘지금’ 쓰는 말로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갖추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夏는 ‘忠’을 숭상했고, 殷은 ‘質’을 숭상했으며, 周는 ‘文’을 숭상한 것처럼 각 시대가 숭상하는 것은 변하기 마련[130]이라고도 하였다. 그

127)『金陵集』卷10,「與沈穉敎象奎書」
128)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50면 참조.
129)『金陵集』卷10,「與沈穉敎象奎書」 :“古今異道, 其辭未嘗相同. 同則非文也.… 今之所見聞, 皆非古之物事, 而文則强爲之, 是何異於猿狙衣冠之爲人, 醜子施粉之爲西施乎?”
130)『金陵集』卷10,「與沈穉敎象奎書」 :“故夏尙忠, 殷尙質, 周尙文, 皆變之極者也.”

러므로 앞에서 ‘바른 기[正氣]’를 온전히 구현한 글로 존숭하던 六經도 결국 변화 과정에 있던 당시의 道를 잘 담은 글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공철은 기본적으로 재도론적 문학관을 표방했지만 이처럼 道와 文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사이에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도문일치를 표방하였지만, ‘儒家의 절대적 道’가 아닌 ‘각자의 道’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성리학의 절대적 기준 대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가치 기준에 주목하였다. 또한「東園花樹記」[131] 와 같은 글에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존재 가치가 평가, 재단되는 것에 반대하고 만물은 저마다 그 자체로 존재 의의가 있음을 역설한 것에서도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남공철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남공철이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 강하게 들어 있는 일련의 척독과 제발, 소외된 삶을 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南君山墓誌銘」이나 「眞樂先生墓誌銘」등의 묘지명, 儒家的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표창할 것이 없고 오히려 유가적 가치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 인물인 李亶佃이나 崔北 등을 대상으로 한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유가적 가치를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20대 중반에 전변한 道에 대한 인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공철은 기본적으로 時文보다는 古文에, 명청소품보다는 당송고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고, 그것은 중년기 이후에 쓴「四君子文鈔序」와 「宜齋藁序」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가문적 배경, 官歷, 正祖와의 관계, 구양수에 대한 지향 등 남공철은 체질적으로 古文 내지 당송고문에 기반하여 문학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젊은 시절 道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그의 문

131)『金陵集』卷12.

학 전반의 특징으로 규정지어져서는 안 된다.[132]

그렇다면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務自己出', 즉 자신의 胸中에서 우러나는 문학을 추구한 것이다. 이것은 당대 조선에 만연했던 문폐를 개혁하고자 했던 남공철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 당대 조선의 문사들은 博學을 하지 않고 편벽되게 독서하여 기호에 맞는 몇몇 작가들을 模擬하는 병폐에 빠져 있었는데, 남공철은 이러한 모방과 답습의 병폐를 "모방을 하면 이미 문장이 아니다"[133]라고 할 정도로 경계하였다.

> 漢을 모방한 것을 일러 '文'이라 하지만 '文'이 아닙니다. 唐을 모방한 것을 일러 '詩'라 하지만 '詩'가 아닙니다. 宋·元의 여러 문인들의 餘響을 좇아서 그것을 潤色한 것을 일러 '詞曲의 名家'라고 하지만 '詞曲의 名家'가 아닙니다. 예스럽고자 하면 오활함에 가까워지고 참되고자 하면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134]

이것은 秦漢古文이나 唐詩를 주창하였던 의고주의자들의 모방주의에 대한 신랄한 배격이며 동시에 宋·元의 詞曲을 본떠 윤색한 공안파의 거짓 眞에 대한 비판이다. 그들이 모방을 통해 고인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오활하게 되어 현실과 거리가 먼 글이 되었다. 眞을 추구한다면서 강조한 개성은 거짓이 되었다.[135]

남공철은 의고에 빠져 고문의 근저를 잃어버린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북쪽 사람에게 귤나무와 유자나무를 심게 하고, 월나라 사람에게 눈을 설명

---

132)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52~53면.
133)『金陵集』卷10,「與朴山如南壽書」:"摹擬, 則非文章也."
134)『金陵集』卷9, 「答金國器載璉」:"摹于漢謂之文, 不文矣, 倣于唐, 謂之詩, 不詩矣, 宋元諸公之餘響而潤色之, 謂之詞曲名家, 非詞曲名家矣, 欲古則近於闆, 欲眞則溺於贋."
135) 명평자,「금릉 남공철의 고문론 연구」, 2008, 82면.

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136] 또한 이들이 모두 고문의 근저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다투어 그림자와 여운을 본뜨고 표절하려 했기에 文의 폐단은 날로 심화되었다고 하였다.[137] 남공철은 이러한 당대 문단의 병폐를 안타깝게 여기며, 모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博學과 沈酣을 제시하였다.

> 글을 지을 때에는 模擬를 혐오하고 깊이 잠기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古今의 여러 대가들을 취하되 깊이 잠겨서 몸소 체득하여야 합니다. 종이를 잡고 글을 써 나갈 때에는 특정한 사람의 글이나 특정한 한 편의 유명한 작품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붓 끝이 닿는 대로 古法과 더불어 만난다면 자연히 모 인 모 편의 흔적은 없게 될 것입니다.[138]

글을 지을 때 한 작가・한 작품만을 공부하여 모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고금제가의 책을 널리 읽고[博學], 널리 읽은 것에 깊이 잠겨서[沈酣], 읽은 것을 몸소 체득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에 힘쓸 때 자연히 모의의 흔적은 없어진다고 하였다. 남공철이 이렇듯 박학과 침감을 강조한 것은 결국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함이다.

> 세상 사람들이 秦・漢을 좋아하는데, 나 역시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唐을 좋아하는데, 나 역시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宋・明을 좋아하는데, 나 또한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찌하여 널리 취하기만 하고 전일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고금제가의 글을 모아서 나만의 유일한 좋은 글을

136)『潁翁再續藁』卷2,「古文原流序」:“爲今人談古文, 譬敎北人蒔橘柚, 與越人語雪, 終莫能喩也.”
137)『金陵集』卷11,「玉溪金先生文集序」:“今夫世之爲大家者, 貪多無得, 不能深知古文之根底所在, 爭和剽販於影響形摸之間而文日益弊.”
138)『金陵集』卷10,「與李元履顯綏」:“作文惡模擬而貴沈酣. 取古今諸家, 沈酣體認. 及操紙下筆, 不會以一故人一名篇在胸中. 而觸手如古法會, 自無某人某篇之跡.”

쓰려는 것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139]

남공철은 박학을 하는 이유가 자신만의 유일한 글을 쓰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개성 있는 글은 한 작가·한 작품을 모방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박학으로 안목을 키워 고금제가의 글들에서 장점들을 취하고, 그 장점들이 깊이 작가와 일체가 되었을 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140]

남공철이 추구한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은 그의 문집에서 '務自己出'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務自己出'은 다시 '一從己出', '務出胸中'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 무릇 오늘날 大家라 하는 사람들은 글을 많이 짓기에만 힘을 써서 고문의 근저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알지 못하고 서로 다투어 그림자나 메아리의 모양만을 본떠 표절하여 文은 날로 더욱 피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의 글은 자기로부터 내는 것에 힘써서[務自己出] 비록 십년에 한 작품을 얻을 지라도, 長篇巨牘을 또한 남보다 잘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전인의 言外之旨를 얻었다.[141]

이 글은 스승이었던 玉溪 김순택의 문집에 서문으로 쓴 것이다. 김순택은 글을 지을 때 십년에 한 작품을 얻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를 자기로부터 내는데 힘쓰다 보니[務自己出] 남긴 작품의 수가 많지 않았다. 남공철은 김순택이 '務自己出'의 글을 쓰기 위해 힘쓴 결과, 남긴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言外之旨'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저술에서 추구해야할 바

139) 『金陵集』 卷9, 「與朴山如南壽」: "世人喜秦漢, 吾亦好之. 世人喜唐, 吾亦好之. 世人喜宋明, 吾亦好之. 如之何博取而不專一也, 曰 集古今諸家, 欲作吾一好文字爾."
140) 명평자, 앞의 논문, 44면.
141) 『金陵集』 卷11, 「玉溪金先生文集序」: "今夫世之爲大家者, 貪多務得, 不能深知古文之根柢所在, 爭相剽販於影響形摸之間而文日益弊. 然而先生之文, 務自己出, 雖十年得一作, 長篇巨牘, 且非其所長, 而能得前人言外之旨."

른 자세가 '務自己出'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142]

또한 남공철은 제자백가서들이 이단의 서적인데도 후세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모방이 아닌 '一從己出'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옛날에 노자는 성인을 죽이고자 하였고, 장주는 공자를 책망하고 헐뜯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경은 성악설을 주장했는데도 역시 맹자와 더불어 함께 전해졌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같이 자신으로부터 나와서[一從己出], 일찍이 타인을 한 글자도 모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멀리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異端의 書籍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聖賢의 도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143]

남공철은 儒家에서 이단의 글로 취급되던 노자·장자·순자의 책들이 孔孟과 함께 오늘날 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하나같이 자기로부터 나왔기[一從己出]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一從己出'했기 때문에 이단의 글도 전해지고 있는데 성인의 글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확증의 반문인 것이다.[144]

남공철은 스스로도 '務自己出'의 글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63세경에 『穎翁續藁』를 자편하며 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 文을 지을 때에는 문득 향을 사르고 벼루를 씻고, 깊이 생각하고, 두루 구하여서 여러 번 초고를 고친 다음에야 비로소 내놓았으므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리켜 迂闊하다고 하면 더욱 기뻐하면서 자부하였다.[145]

---

142) 명평자, 앞의 논문, 47면.
143) 『金陵集』 卷9, 「與朴山如南壽」: "昔老子欲死聖人, 莊周譏毁孔子, 然至今其書不廢. 荀卿言性惡, 亦得與孟子同傳, 何者. 一從己出, 不曾依倣他人一字, 是以能傳之遠耳. 異端之書猶如此, 況聖賢之道乎?"
144) 명평자, 앞의 논문, 47면.

글쓰기에 경건하게 임하며, 신중을 기해 글을 창작한 남공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붓을 들기 전에는 깊고 넓게 생각하였으며, 생각이 무르익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 비로소 글을 써내려갔다. 다 쓴 글은 여러 번의 퇴고로 가다듬은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내놓았다. 이렇게 나온 글은 더 이상 동시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었기에, 다른 사람이 迂闊하다고 평가할수록 남공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기뻐하였다. 만년까지 자신만의 글, 務自己出의 글을 내기 위해 힘썼던 남공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은 家學과 스승의 영향으로 六經과 史漢·唐宋八大家를 문장의 正宗으로 삼는 보수적 고문가로 자랐으며, '文以載道論'의 시각에서 六經을 중시하였다. 그는 육경을 학습함으로 그 속에 담긴 正氣를 길러 그 正氣가 문장에 저절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육경을 제대로 배워 정기를 함양한 작가로 사마천, 한유, 구양수, 소식을 꼽았다. 이렇듯 문장에 구현해야하는 도를 聖人의 도로 한정했던 남공철의 문학관은 연암그룹과 교유하면서 轉變하게 되었는데, 곧 박지원과 이덕무의 영향으로 今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공철의 문학 기저는 여전히 고문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설명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務自己出'의 문학이다. 이것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자신만의 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남공철은 모방과 답습을 일삼던 당시 문단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博學과 沈酣을 통한 '務自己出'의 문학을 제시하였으며, 일생동안 이러한 '務自己出'의 문학을 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45) 『潁翁續藁』 卷5, 「思潁居士自誌」: "其作文, 輒焚香拭硯, 冥思遐搜, 屢易藁迺出, 見者非笑之. 或指爲迂濶則益喜自負."

3. 天機論과 性情之眞의 發現

18세기 초 사상계에서는 朱子註에 대한 해석이 빌미가 되어 湖洛論爭이라 불리는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이 湖洛論爭의 의의는 이전 정통 성리학에서 인간의 心性問題에만 주력해온 것과는 달리, 인간 주변의 事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전통적 心性論 위주의 주자학과 대조되는 새로운 태도가 출현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物에 대한 관심은 日月, 星辰, 風雨 등 자연현상에까지 확대되어 자연만물에 대한 관심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하였는데, 조선의 山水를 그린 眞景山水의 유행도 이 시대의 自然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진경산수의 유행과 발맞추어 山水遊記의 창작 또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146]

詩에 있어서도 자연만물이 곧 詩라고 할 정도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남유용의 경우 “천하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모두 내 시이다. 그 변치 않는 것은 산천초목에 있고 변화하는 것은 바람 구름 안개 달빛에 있다.”[147] 고 하여 物에 대한 관심을 詩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박제가는 詩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이 다 詩다.”[148]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자연만물이 그대로 詩라고 하는 의식은 자연에 깃들인 天機가 발하여 시인의 작위적인 의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된다는 天機論의 다른 표현이다.[149]

18세기의 천기론은 이렇듯 자연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흥기하게 되었는데, 이 천기론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며 개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문학의 본질을 천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때 문학의

146) 임유경,「18세기 천기론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19집, 1996, 235면.
147) 南有容,『雷淵集』卷13,「鍾巖詩卷跋」: “盈天下者, 皆吾詩也. 其常在山川草木, 其變在風雲烟月.”
148) 朴齊家,『貞蕤閣集』, 卷1,「炯菴先生詩集序」, : “客曰然則詩何師, 曰盈天地之間者皆詩也.”
149) 임유경, 위의 논문, 235~236면.

원천이 인위적인 힘이 닿지 않는 하늘의 오묘한 조화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천부적 자질을 강조하게 된다.[150] 그와 더불어 신분에 대한 제약이나 학문의 성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천기론은 위항문학의 주요한 근거로써 전개되기도 하였고, 중국 한시에 대해 조선시의 개성(조선풍)을 옹호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시단에는 김창협・김창흡 등이 주요인물로 활동하였고, 그의 제자들과 그들과 교류한 위항시인들이 활동하였는데, 18세기의 천기론은 김창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시는 性情이 발로된 것이며 天機가 움직여 나온 것이다. 唐人의 시는 이것을 얻었으므로 初唐・盛唐・中唐・晩唐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자연에 가까웠다.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聲色을 모방하고 氣格에 힘을 써서 고인을 따르고자 하니, 그 聲音과 면모는 비록 비슷하지만 神情과 興會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 이것이 明人의 잘못이다.[151]

김창협은 古人의 시를 모방하고자 애쓰지 말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의해 시를 써야한다는 천기론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기격과 성률을 중시하고 漢魏盛唐詩를 지상의 모범으로 삼아 학습하던 당대의 의고주의를 비판하는 논의가 깔려있다. 그에 따르면, 詩는 인간의 성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天機가 유동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시가 바로 시의 가치기준에서 최고의 경지인 자연의 시인데, 시인들이 이러한 시의 본질을 망각하고 옛 사람의 성색과 기격을 흉내 내어 짓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옛

150) 손영희,「雷淵 南有容의 文學觀과 詩 硏究」, 2009, 20면.
151) 金昌協,『農巖集』卷34,「雜識」: "詩者, 性情之發而天機之動也. 唐人詩, 有得於此, 故無論初盛中晩, 大抵皆近自然. 今不知此, 而專欲摸象聲色, 黽勉氣格, 以追踵古人, 則其聲音面貌, 雖或髣髴, 而神情興會, 都不相似. 此明人之失也."

시인의 성색과 기격은 소리와 면모를 모사함으로 흉내 낼 수 있지만 그 신정과 흥회는 흉내 낼 수 없다. 김창협은 이렇게 성색과 기격을 흉내 내는 것을 형식주의와 의고주의의 폐해로 규정하고, 당대 작가들이 신정과 흥회를 시에 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2]

김창협의 이러한 천기론은 그의 제자들과 위항시인들에게로 이어졌는데, 김창협의 제자인 李縡(1680～1746)의 문하에서 수학한 英祖朝 四家에게서도 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吳瑗은 이재의 妻姪로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南有容과 李天輔 또한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먼저 吳瑗(1700～1740)은 자신의 시가 天機에 의해 지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위적으로 쓰이지 않은 시, 興이 모여지고 뜻이 이른 뒤에 무심히 發하여진 것이 좋은 시라고 생각하였다.[153]

李天輔(1698～1761) 또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지어진 시를 참된 시라고 하였다.

> 내가 汝精의 시를 보니 境으로 인하여 情이 생겨나고, 情으로 인해 말을 이루었으니 또한 詩에 意圖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말에 의도를 두지 않고 나온 말이 천하의 眞言이다. 詩에 의도를 두지 않고 시로 지어진 것이 천하의 眞詩이다.[154]

---

152) 안대회, 『조선후기시화사』, 소명출판, 2000, 128면.

153) 吳瑗, 『月谷集』 卷9, 「題詩稿後」: "至人無心. 必於無心, 非眞無心也. 自然而無則無心, 偶然而有則有心. 此眞無心也. 吾性好山水好友朋好酒, 又好詩, 其詩無故不作. 登山臨水則作, 見朋友則作, 有酒則作. 不求多不求工也. 方其興會意到, 其無心而發者, 未嘗使之有心也. 有心而成者, 不必欲其無心也. 故有如是而好者, 有如是而不好者. 好者固錄之, 而不好者亦不棄也. 人有求見者, 未嘗隱也. 稱其好, 未嘗不喜也. 摘其不好, 未嘗不服也. 旣無雋才奇氣, 而其用心不過如此. 人固不之貴, 吾亦不自信. 天機之自然, 知者其知之."

154) 李天輔, 『晉菴集』 卷7, 「題默窩詩卷後」: "竊觀汝精之爲詩, 緣境而生情, 緣情而成言, 亦惟曰, 無意於詩而已. 夫無意於言, 而言出者, 天下之眞言也. 無意於詩, 而詩作者, 天下之眞詩也."

여기에서 “시에 의도를 두지 않고 지어진 시[無意於詩]”라는 것은 시인이 외부적인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시적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155] 無意이면서 境으로 인해 情이 생겨나고, 그 情으로 인해 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天機에 의해 시가 창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남유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시론을 전개하고 있다.

> 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장차 “천하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모두 내 시이다. 그 변치 않는 것은 산천초목에 있고 변화하는 것은 바람 구름 안개 달빛에 있으니 그대가 가서 구하면 된다”라고 말해줄 것이다.[156]

남유용은 천하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모두 자신의 시라고 말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산천초목이나, 늘 변하는 바람이나 구름, 안개와 달빛 등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 내 안의 機가 발동되어 느껴지는 감정을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157] 또한 남유용은 시에서 흥취의 자연스런 표출을 중시하였다.

> 옛날의 시인은 辭에 뜻을 두지 않아 情을 표출하는 데에 곧음으로 하고 거짓이 없었다. 여항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읊은 것도 모두 王公에게 추천되어 管絃의 음률에 맞춰 불려졌다. 후세에 이르러 辭가 勝해지니 情이 숨어들기 시작하였다. 종신토록 시를 외워도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和愉하여 즐길만하다고 이르는 것을 識者들은 병자의 웃음이라 여기고, 사람들이 悽惋하여 슬프다고 이르는 것을 識者들은 광대의 울음에 비유하니 이는 모두 억지로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158]

---

155) 임유경, 앞의 논문, 245면.
156) 南有容,『雷淵集』卷13,「鍾巖詩卷跋」: “有求之者, 將應之曰盈天下者, 皆吾詩也. 其常在山川草木, 其變在風雲烟月, 子其往求之.”
157) 손영희, 앞의 논문, 21면.

시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예로 '여항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읊은 것'을 들고 있다. 또한 남유용은 오원의 시를 평하며[159] 흥취가 일어나 마음에 닿으면 시를 쓰고 그 내용은 꾸밈없이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천기에 의한 작시태도를 중시함을 의미하며, 시를 논할 때 시경의 국풍을 이끌어온다거나 고시의 정신을 잇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은 시의 형식을 문제 삼지 않고 내용의 진실을 추구하는 천기론의 맥락에 닿아 있다.[160]

남공철은 부친인 남유용의 이러한 시관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앞서 남공철의 교유관계에서 살폈듯이, 英祖朝 四家는 집안끼리 대대로 교유를 이어왔으므로, 남공철의 시관은 부친 뿐 만 아니라, 英祖朝 四家에게도 영향을 받은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통해 김창협의 천기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시를 배우는 자는 마땅히 거문고을 배워야 한다. 『說文』에 "거문고는 악기이다"라고 되어 있다. 시는 性情에서 발한 것이고 거문고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악기 가운데서 거문고가 시와 가장 서로 가깝다.[161]

이 글은 남공철이 민범대의 詩集에 써준 序文이다. 민범대는 庶族으로 추정되며[162] 남공철보다 4살이나 연상이었지만, 남공철에게서 시를 배웠다. 민

158) 南有容,『雷淵集』卷12, 「東溪集序」: "古之作者, 不志於辭, 情之出, 以直而無僞. 閭巷婦孺之所謳吟, 皆可以薦于王公, 而聲之管絃. 陵夷至後世, 辭勝而情始隱. 終身誦其言而不得其人, 故人所謂和愉而可樂者, 識者以爲病者之笑, 人所謂悽惋而可悲者, 識者辟之優人之泣, 此皆強爲耳, 未足以信其內也."

159) 南有容,『雷淵集』卷13, 「伯玉詩集跋」

160) 손영희, 앞의 논문, 24-25면.

161)『金陵集』卷11,「閔生詩集序」 : "學詩者當學琴. 說文曰琴樂器也. 詩發於性情, 而琴以正人心. 故樂之中, 琴與詩最相近焉."

162)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08면.

범대는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공철은 여기서 詩와 거문고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시는 性情에서 발한 것'이라고 시에 대해 정의한 부분이다. '시는 性情에서 발한 것'이라는 견해는 김창협이 앞서 "시는 性情이 발로된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며 그의 부친 남유용의 시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남공철이 쓴 글의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163)

> 내가 시를 배운 것이 이미 늦었고, 또 몇몇 작품은 좋아하지 않아서 금릉초집에 실은 바는 겨우 2권이다. 또 7-8년 동안 괴로이 남모르게 아파서 끝내 시 읊는 것에 종사하지 못했기에 지금 속고에서는 약간 편을 얻어 기록하였다. 대개 晩唐에서 明初의 한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재주와 힘이 미천하여 어렵고 싫증이 나서 스스로 보아도 역시 뜻에 만족하지 않으니 어찌 가히 망령되이 불후의 업이라고 하겠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性情에서 발한 것과 거짓 되게 수식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려 하여 이같이 續稿를 기록한 것이다. 이따금 江湖山林에서 멀리 바라보며 돌아갈 것을 생각함이 심해서 말에 드러났으니 말이 비록 많지 않지만 또한 그 뜻을 드러내기에는 족할 것이다.164)

남공철은 자신이 시를 배운 것이 늦었고, 재주가 없어 시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겸양하면서,「穎翁續藁」에 自編한 시의 성격에 대해 '性情에서 발하고 거짓되게 수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남공철이 자신의 시문집를 편찬할 때 적용한 기준인 동시에 자신의 시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

163)『金陵集』卷11,「苞甘集序」·「閔生詩集序」·「金國器詩集序」;『金陵集』卷13,「詩選跋」·「題李元履顯綏詩藁後」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4)『穎翁續藁』卷1,「詩藁小引」:"余學詩旣晩, 且不喜數數作, 金陵初集所載僅二卷. 七八年來, 又苦幽憂之疾, 絶不從事於吟咏, 今續藁得若干篇錄之. 盖欲於晩唐初明參據一席, 而才力凡下, 因難生厭, 自視亦不滿意, 何可妄擬不朽之業哉? 欲使覽者知其發於性情, 不假雕飾, 而若續藁所錄. 往往於江湖山林之間, 望遠思歸, 甚則形於言, 言雖不多, 亦足以見其志也."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위에서 부친 남유용이 “옛날의 시인은 辭에 뜻을 두지 않아 情을 표출하는 데에 곧음으로 하고 거짓이 없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평가이다. 또한 “이따금 江湖山林에서 멀리 바라보며 생각함이 심해서 말에 드러났다”고 한 것은, 이천보가 “境으로 인하여 情이 생겨나고, 情으로 인해 말을 이루었으니 또한 詩에 意圖하지 않았다”하여 詩作에 있어 의도를 두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것은 흥취가 일어나 마음에 닿으면 시를 쓰는 천기에 의한 작시태도[165]로, 천기에 의한 작시태도가 김창협에서 英祖朝 四家에게로, 그리고 다시 남공철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남공철은 곳곳에서 ‘性情에서 우러난 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 남공철이 말하는 性情은 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 ① 저는 일찍이 詩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히 스스로 詩道가 어떻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서 나오는 느낌을 노래나 시로 부친다면 볼 만할 것입니다.[166]

> ② 그의 시는 신령한 마음과 지혜로운 식견이 있는데다가 또 때때로 곤궁한 심기와 불평하는 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며 과부가 밤에 울고 나그네가 추운 새벽에 길을 나서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167]

> ③ 날이 저물자 군은 太一巖 꼭대기에 올라가 새벽이 되도록 거문고를 탔

165) 손영희, 앞의 논문, 24면.
166)『金陵集』卷11,「金國器詩集序」: “吾未嘗從事於詩矣. 雖不敢自謂詩道, 其情思之感而寓形於歌詩則可見也.”
167)『金陵集』卷11,「李君詩序」: “其詩有靈心慧識, 時又發之以困窮不平之言. 故如嗔如笑, 如寡婦之夜哭, 羈人之寒起.”

다. …중략… 천천히 어우러져 처연히 슬퍼지는 것이 마치 湘水에서 유배된 신하가 통곡하는 듯, 규방에서 한을 품은 여자가 시름하는 듯하였다. 곡이 끝나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지고 까마귀나 매가 놀라 구름 사이로 푸드덕 날아갔다. 기쁨과 울분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정격과 변격, 높고 낮은 것을 구분해보아도 어느 것이 시 읊는 소리이고 어느 것이 거문고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168]

①·②·③ 모두 詩集에 써준 서문으로, ①은 절친했던 김재련에게, ②는 여항시인 이단전에게, ③은 자신에게 시를 배운 민범대에게 써준 것이다. ①은 김재련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남공철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인용한 것으로, 남공철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詩道를 말하며 '情思之感'을 노래나 시로 부친다면 볼 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남공철이 시를 '情思之感'을 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며, '情思之感'이 담긴 시를 잘된 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②에서는 이단전의 시에 때때로 곤궁한 심기와 불평하는 말이 드러났는데,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였고, ③에서는 민범대의 거문고 소리와 시가 처연하여 유배된 신하가 통곡하고, 한을 품은 여자가 시름하는 것 같다고 하며, '기쁨과 울분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시에 담긴 감정을 말한 것으로, 감정이 마음[性情]에서 나오는 것이라 인식한 것이고, 그러한 감정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공철이 이렇듯 시를 性情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에 있어 감정의 표현을 긍정하고 중시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 시인들이 性情之正보다 性情之眞에 주목하게 되면서, 詩論이 主情的으로 기울게 된 것에 영향을

168)『金陵集』卷11,「閔生詩集序」: "日且暮, 君上太一巖絶頂, 彈琴至曙. … 紓然而和, 凄然而悲, 如湘水羈臣之痛哭也, 如閨房怨女之愁恨也. 及其曲終, 風吹木落, 鸛鵠磔磔驚起於雲霄之間. 懽愉憂憤, 皆出於心, 而以辨其正變高下, 不知誰爲詩而誰爲琴也."

받은 것이며, 앞 세대의 天機論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남공철 자신이 일생동안 견지한 '務自己出'의 문학관과도 관련이 깊다.

> 내 벗 이원리[이현수]는 性情이 맑고 우아하며 시를 좋아하여 업을 삼은 것이 또 몇 년이 되었다. 사사로이 일찍이 시를 논한 것에서 "情에서 느낀 것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으로는 성정의 사특함과 바름을 볼 수 있고, 밖으로는 治道의 성쇠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니, 시를 다스리는 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원리의 시는 맑은 것을 말하고 옛 것에 뜻을 두며 흉중의 말을 내는데 힘써 말이 다하면 그쳤다. 고로 그 발한 것이 소리에 드러나는데 미쳐서, 자세히 살펴보면 온화하고 의젓하며 겸손하여 맑은 태평성대의 음이 있었으니 근래 글을 쓰는 자들이 새롭고 공교하게 되는 것에 힘쓰며 스스로 좋아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169]

절친한 벗 이현수의 詩藁에 써준 글이다. 이현수의 시관을 드러내고 그의 시를 평하였지만,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자인 남공철이 이현수의 시관에 동조하며 자신의 시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역시 "情에서 느낀 것이 소리로 나타난다"고 하여 시를 성정 또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는 남공철의 일관된 시관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 治道의 성쇠를 볼 수 있다고 하여 시의 현실 반영적 측면 또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현수의 시가 '胸中의 말을 내는데 힘썼다'고 高評한 부분이 주목된다. 남공철은 끊임없이 '시가 성정에서 우러남'을 강조하였는데, 남공철이 말한 性情은 性情之眞, 곧 감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것으로, '性情에서 우러

169) 『金陵集』 卷13, 「題李元履詩藁後」: "余友人李元履性淸淡雅喜詩, 業之且有年矣. 竊嘗論詩者, 感於情而形於聲者也, 故內可以見性情之邪正, 外可以觀治道之汚隆, 治詩者, 不可以不擇也. 元履之詩, 詞淡而旨古, 務出胸中之言, 言盡而止. 故及其發而形於聲也, 俯仰曲折, 雍容揖遜, 鏗然有治世之音, 非如近世操觚家務爲新巧而自好者也.

난 시'라는 것은 곧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된 시를 말한다. 이것을 남공철은 '胸中流出', 곧 '가슴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표현한 것이며,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문창작에 있어서도 '胸中流出', 또는 '務自己出'의 문학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앞서 확인한 바로, 결국 남공철은 詩와 文을 막론하고 '務自己出'의 문학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Ⅳ. 南公轍의 詩世界

1. 現實認識과 不遇에의 關心

남공철은 조선 후기 대표적 경화세족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으며, 관료와 문인으로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도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詩文을 살펴보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사람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8세기에 들어서며 조선의 眞景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문학사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남공철이 20대 초반부터 연암그룹과 교유하면서 영향을 받은 문학관과도 관련이 깊다.

남공철은 20세 초반부터 교유한 연암그룹의 영향으로 道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지금의 道'와 '지금의 物事'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170] 결국 남공철은 "지금의 道로써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말을 써서, 지금의 物事를 갖출 따름입니다"[171]라고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생각은 그의 詩作에 반영되었고, 그가 초년기에 지은 악부시에는 당대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이 그려져 있어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은 자신이 인식한 백성의 현실을 형식적 제약이 비교적 덜한 악부시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이들 시에는 당대 백성들의 풍습과 어려운 생활상, 또는 세태에 대한 인식 등이 드러나고 있다.

---

170) 『金陵集』 卷10, 「與沈穉敎象奎書」: "人有問於僕曰, 當學古之文乎? 應之曰, 子非古之人, 柰何學古之文乎? 何爲變前之見乎? 曰, 僕有知之者矣. 子知今之人, 非堯舜周孔乎, 職方山川, 非禹貢周官乎? 衣服器皿, 非山龍絺繡簠簋宗彝乎? 今之所見聞, 皆非古之物事, 而文則强爲之, 是何異於猿狙衣冠之爲人, 醜子施粉之爲西施乎? 旣以此語人, 又不知."

171) 『金陵集』 卷10, 「與沈穉敎象奎書」: "僕與穉敎居乎今之世, 學文當求用於今之世, 然則不可不以今之道, 行今之言, 以備當時之物事而已."

歲之十二月除日　　해는 12월 섣달 그믐날
邑人爆竹傳故俗　　마을 사람 폭죽은 전해오는 옛 풍습이네
食殘豆粥掃罷塵　　남은 콩죽 다 먹고 청소하여 먼지 털고
敎送丁男斫如積　　장정을 보내 나무 베어 땔감 쌓듯 하네
節間汗流火力透　　잠깐 사이 땀이 흐르고 화력이 극에 달하고
兒童却走鬼辟易　　아이들은 도리어 달리며 귀신인 듯 물러나 피하네
大家取薪勝爇豆　　큰 집에서 땔감 취해 콩불 보다 크게 일으키는 것
小家掃糞如打灰　　작은 집에서 똥을 쓸어 재를 치는 것 같네
靑煙滿城天半白　　푸른 연기 성 가득해 하늘 절반이 하얗고
棲烏格磔散飛來　　깃든 새 쳐서 갈라 흩어져 날아오네
老少懽笑遙相望　　노인 아이 기뻐 웃으며 멀리 서로 바라보니
去年灾盡明年瑞　　작년의 재앙은 다하고 오는 해는 상서롭네
一聲二聲作雷吼　　한번 두 번 소리 울려 우렛소리 만들어
故令陰邪皆匿避　　짐짓 음험하고 사악한 기 모두 숨고 피하게 하네
將迎陽艷作好春　　장차 밝고 고운 풍광 맞아 좋은 봄을 만드니
政要炎炎火德熾　　政事도 활활 타올라 화덕이 성하겠네[172]

세밑에 마을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에 관해 쓴 시인데, 남공철이 산청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관할 아래 있었던 마을의 폭죽 터뜨리는 풍습을 눈에 보이듯 묘사하고 있다.

1~2구에서는 폭죽이 섣달그믐에 행해지는, 마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임을 밝히고 있다. 3~4구에서는 폭죽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5~6구에서는 폭죽이 터지며 아이들이 깜짝 놀라 물러서 피하는 모습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7~8구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모습을 "콩불 보다 크게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등의 자세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9~12구

172)『金陵集』卷1,「爆竹」

에서는 폭죽으로 인해 일어난 연기와 연기가 자욱한 하늘을 '青煙'와 '天半白'으로 표현하여 색채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들이 깜짝 놀라 흩어지는 모습, 어른과 아이들이 기뻐하며 서로 마주보는 모습, 즉, 폭죽이 터지고 난 후 주변의 상황을 가까운 위치에서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 이렇듯 폭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터뜨리고 난 후의 주변 모습까지를 근거리에서 보듯 자세하게 그려냄으로써 백성의 풍습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小熊伏林穴　　작은 곰은 숲 굴에 엎드려있고
大熊據野窟　　큰 곰은 들판 굴에 자리 잡고 있네
小熊食雞豕　　작은 곰은 닭과 돼지를 먹지만
大熊食人物　　큰 곰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雜人交觸逢　　사람 속에 섞여서 맞닿뜨리면
齒牙當劒鋒　　이빨이 칼끝 같이 드러나네
去年今年東南縣　　지난해와 올해 동남현에
赤地千里不成農　　붉은 땅 천리에 농사가 되지 않아
民方顚連無所寄　　백성이 바야흐로 매우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으며
挈妻携子逃于四　　처를 거느리고 자식을 이끌고 사방으로 도망하는데
匪兕匪虎是何獸　　무소도 호랑이도 아니고 이 무슨 짐승인가?
白日大道恣橫肆　　밝은 대낮 큰길에서 방자하게 내달으며
食人寡婦與孤兒　　사람 잡아 먹되 과부와 고아라
白骨委地流血滋　　백골이 땅에 버려지고 유혈이 낭자하니
人人戒嚴不敢行　　사람들이 경계하여 감히 나다니지 못하고
朝避林藪暮山陲　　아침에는 수풀에 숨고 저녁에는 산 부근에 숨어
州縣發卒數十百　　주현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네
持弓投石相與獲　　활을 잡고 돌을 던져 서로 함께 잡으니
家家敎送丁男去　　집집마다 장정 몇 명씩을 보내어서

以火取脂刀割肉　　불로써 기름을 취하고 칼로 고기를 베었네
爲民除患政所當　　백성을 위해 근심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의 당연한 바이고
殺人者死在三章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옛 법률에도 있는 것
豈但其掌我所欲　　어찌 다만 내가 하고 싶어서
直將手刃刺于腸　　곧바로 창자를 칼로 직접 찔렀겠는가?[173]

이 시 또한 남공철이 산청현감 시절에 쓴 것으로 보인다.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를 마을에 행패부리는 야생 곰에 비유하였고, 그로 인해 더욱 비참해진 백성의 삶을 드러냈으며, 백성의 근심거리가 된 존재를 힘을 합쳐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6구에서는 작은 곰과 큰 곰을 비교하고 있는데 작은 곰은 닭과 돼지를 잡아먹을 뿐이지만, 큰 곰은 사람 속에 섞여서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7~10구에는 이미 농사가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백성들은 매우 가난하고 의지할 곳도 하나 없어 처자식을 거느리고 사방으로 도망하는 상황이다. 11~14구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큰 곰이 밝은 대낮에 큰길에서 과부와 고아를 잡아먹어 백골이 뒹굴고 유혈이 낭자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15~16구에서는 사람들이 큰 곰을 경계하여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수풀과 산 부근에 숨는 지경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17~18구에서는 결국 큰 곰으로 인해 마을 사람 수십 수백 명이 죽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해지자, 백성들이 힘을 합쳐 곰을 잡아 죽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또 하나의 폭력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공철은 21~24구에서 이것은 백성의 근심을 제거하는 행위로, 올바른 정치의 일환이고, 옛 법률에도 나와 있는 바이며, 자신이 의도한 일이 아니라고 서술하여 자신의

173)『金陵集』卷1,「捉熊行」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처음 부분의 '사람 속에 섞여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큰 곰'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이며, 갑자기 수십,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큰 곰'은 가렴주구를 행하는 탐관오리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남공철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고 가까이 다가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一船去	한 척이 나가면
一船來	한 척이 들어오네
今日又明日	오늘 그리고 또 내일
幾人去復廻	몇 사람이 가고 또 다시 돌아올까
西岸有人催呼喚	저쪽 언덕에 사람 있어 재촉하여 부르니
湖南巡察使行急	호남을 순찰하는 사신 일행이 급해서라
交打兩槳來泊岸	교대로 노 젓고 양쪽이 도와 언덕에 배 대니
屛褥鋪陳猶未及	병풍, 요, 펴고 깔 것이 외려 아직 이르지 않았네
東岸忽復來相告	동쪽 언덕에서 홀연히 다시 오라 알리니
羣山漕運今朝發	군산에서 실어 나를 것이 오늘 아침 떠나야 한다 하네
其行恨不先此至	그쪽이 여기보다 먼저 부르지 않았음이 한스러우니
可奈人一船亦一	사람도 하나고 배 또한 하나인 걸 어찌하리오
官家咆哮送吏卒	관가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아전과 군졸을 보내어
捉頭鞭脛毆打去	머리를 움켜잡고 정강이를 채찍질 하며 때리면서 가자하네
但願明府少紓怒	다만 원하는 것은 관청에서 조금 화를 덜 부리는 것
區區小人何敢倨	보잘 것 없는 소인이 어찌 감히 거만하게 굴겠는가
彼亦國事此國事	저쪽 역시 나랏일이고 이쪽도 나랏일이라
不可爭先以要譽	중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하길 다툴 것 없네[174]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뱃사람들의 삶을 그린 시이다. 자신들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뱃사람들이 나라의 공무에 얽히게 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횡포가 적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뱃사람들의 처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1~4구에서는 포구에 드나드는 배와 오고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매일 그것을 바라보는 뱃사람의 삶을 그리고 있다. 5구부터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호남으로 가는 사신 일행이 급하게 배를 부른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 갔더니 함께 가야하는 물품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쪽 언덕에서 다시 부른다. 군산에서 실어 나를 것이 아침에 떠나야 한다며 그것을 실으러 가야한다고 한다. 사신 일행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도 부르는 것이다. 관리들은 재촉하기 시작한다. 아전과 군졸을 보내어 머리를 움켜잡고 정강이를 채찍질하며 때리면서 가자고 한다. 이러한 만행에도 뱃사람들은 "관청에서 조금 화를 덜 부리는 것[明府少紓怒]"만을 바라고 있다. 자신들의 힘으로 대항해봤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뱃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마지막 구에서는 '이 쪽 저 쪽 둘 다 중요한 나랏일이니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다툴 것 없다'고 오히려 중간에서 관리들을 달래고 있다. 뱃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그들의 현실을 구체적 상황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6구와 10구에 '湖南'과 '羣山'이라는 우리나라의 地名이 쓰인 것이 살펴볼 만하다. 18세기 후반에는 杜機 崔成大를 필두로 악부에 있어 새로운 경향이

174)『金陵集』卷1,「船人謠」

일어났는데, 중국의 고악부를 모의하거나 답습하지 않고, 악부시에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자연을 담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175] 남공철의 악부시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지명(호남, 군산)을 사용함으로 당대 조선의 意境을 시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不向長信宮中生　　장신궁에 살기를 바라지 않았고
不向宜春苑裏生　　의춘원에 나기도 바라지 않았네
一樹空立大道傍　　한 그루 큰 길 가에 서있는데
去人來人朝暮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아침저녁 지나가네
靑條不能挽遊騎　　푸른 가진 가는 수레 당겨 만류할 수 없으니
東風惹起車下塵　　동풍 불어 떠나는 수레 먼지만 일으키네
我生本無離別心　　나의 생은 본래부터 이별 마음 없는데
一日看盡幾歸人　　하루 종일 보는 중에 몇 사람이 떠나가나
二月三月陌上路　　2월 3월 밭두둑 길에서
與君作別楊柳前　　그대와 이별하던 수양버들 앞에서
爲言此行覓封侯　　당신 위해 이번에는 봉후를 찾아 간다 말하고
白馬蹄疾珊瑚鞭　　백마 발로 차며 산호 채찍 서두르네
豈知夫君浪子心　　어찌 남편의 낭인 같은 마음을 알아서
去作江水東西流　　떠날 때 강물이 동서로 흐르게 만들었나
去年忽得錦字來　　작년에 홀연히 비단편지 온 것에서
知君買茶淮北遊　　남편이 차를 사고 회북에서 노니는 것을 알았네
今年又得君邊信　　올해 또 남편이 변방에서 보낸 편지 얻었지만
知君更作江南客　　남편이 다시 강남의 객이 된 것을 알았네
不知明年在何處　　내년에는 어느 곳에 있을지 알지 못하니
江北江南杳消息　　강의 북쪽에도 남쪽에도 소식 아득하구나[176]

175)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176) 『金陵集』 卷1, 「道傍柳」

길가의 버들을 의인화하여 원치 않게 이별의 상징이 되어버린 버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으며, 길가에서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버들의 눈을 통해 남편과 이별하고서 기다리는 여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1~4구에서는 길가에 서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화려한 장신궁과 의춘원에 서있기를 바라지 않는 버들의 본심을 말하였고, 길가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5~10구에서는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길 가에 서서 아침저녁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버들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지로 수레들을 잡아 만류할 수도 없으니 바람이 일으키는 먼지를 무심히 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버들을 이별의 장소로 상정하고 늘 원망한다. 하지만 버들은 본래부터 누구도 이별시킬 마음이 없이, 그저 서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11~16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예시의 하나로 한 부부의 이별을 보여준다. 수양버들 앞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봉후를 찾아간다고 하며 갈 길을 서두른다. 그러나 사실 남편은 낭인 같은 사람으로 아내를 두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있는데, 홀연히 날아온 비단 편지에서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17~20구에서부터는 의인화 된 버들이 점점 여인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어 심경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남편은 올해 또 다시 변방에서 보내는 것처럼 거짓 편지를 보냈지만 아내는 이미 남편이 강남의 객이 된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버들은 '이제 내년에는 또 어느 곳에 있을지 알지 못하겠으며 소식 또한 끊겼다'는 말로 아내의 답답한 심정을 대신하여 표출하고 있다.

버들을 의인화하여 그 입장에서 먼저 버들이 원치 않게 이별의 상징이 된

이유를 재치 있게 풀어냈다. 의인화 기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들을 통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들은 처음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감정이 이입되어 끝내는 여인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 것이 재미있다. 앞의「船人謠」에서는 뱃사람들의 어려움을 직접 대변하였다면, 여기서는 의인화된 버들을 통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남공철은 백성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道'를 중시하는 의식으로 자신이 보는 백성의 현실을 詩에 담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시로써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공철의 이러한 시도는 그가 20대 시절에 지은 초기 악부시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삶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 20대에는 산청, 임실 등지에서 현감직을 지내며 백성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지만, 30대 이후에는 정조의 近臣으로 요직에 머무르게 되면서 백성들의 현실과는 물리적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남공철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관심의 대상과 그에 대한 표현방식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상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不遇한 인물들이다.

任志雖違俗　　뜻대로 해 비록 속세 멀어졌으나
安貧不失儒　　가난 편히 여겨 선비 됨 잃지 않네
放言誇宇宙　　맘껏 말해 온 세상에 거침없었던
隱跡有江湖　　은자의 자취 강호에 있도다
韻事今難見　　시 짓는 것 이제 보기 어려울 거니
英冤誰可呼　　꽃다운 넋은 누가 불러주겠는가?
老妻收舊墨　　늙은 아내 오래된 글 거둬 묻으니

一哭葬樵夫　　곡하면서 나무꾼을 장사 지내네[177]

이 시의 제목은 「哭芝湖樵夫」로 '芝湖樵夫'는 남공철의 再從叔 南有斗를 가리킨다.[178] 그는 庶族으로 평생 벼슬하지 않고 스스로 '樵夫'라 칭하며 자족적인 삶을 살았다. 신분적인 한계가 있어 나무꾼으로 살았지만 詩才가 있어서 여항시인 李亶佃이 그를 스승으로 삼아 시를 배우기도 하였다.[179] 남공철은 그와 가깝게 지내며 왕래하였는데, 재주가 있지만 불우한 삶을 살다 생을 마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 輓詞를 남긴 것이다.

首聯에서는 남유두의 처지와 처신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 남유두는 속세와 떨어져 은거하며 가난하게 지냈는데 그것은 '뜻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분의 굴레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남공철은 외적인 요인보다 남유두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가난을 편하게 여기며 선비 됨을 잃지 않았다'고 평하여 그가 安貧樂道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頷聯에서는 남유두의 사람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남공철은 이 시 외에도 그를 위해「眞樂先生墓誌銘」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그의 사람됨을 '평이하고 소탈함', '겉치레를 벗어젖힘', '꾸밈없음' 등으로 평하고 있으며, 꾸밈없는 행동 때문에 세상을 우습게 본다는 오해를 종종 받는다고 하였다.[180] 이것은 함련에서 '맘껏 말해 온 세상에 거침없었다'고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남유두의 방외인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그의 자취가 강호에 남아있다고 하여 불우했지만 은자적 삶을 살았던 그를 시에 그려놓고 있다. 頸聯에서는 詩를 잘 지었던 남유두를 추억하고 있

177)『金陵集』卷3,「哭芝湖樵夫」
178) 앞의 주석 51번 참조.
179) 趙秀三,『秋齋集』卷8,「李亶佃傳」: "嘗師南樵夫, 後改師李炯菴, 由是其詩幽巧, 絶有二家風焉."
180)『金陵集』卷17,「眞樂先生墓誌銘」: "盖先生之道, 平易坦直, 不以窮戚戚, 不以得欣欣. 翦撤匡幅, 于于施, 與物無牴, 不知者或疑以傲世."

는데, 그의 죽음으로 그의 시를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생전에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늙은 아내가 남편의 유언대로[181] 그의 원고를 관에 거두어 넣고 곡하며 장사 지내는 장례의 모습이 쓸쓸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장면으로 인해 남유두의 죽음과 불우함은 더욱 슬프게 느껴지며, 남공철의 안타까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 중기부터 서얼들은 관직에 차별 없이 등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庶孼 許通의 상소문을 계속적으로 올렸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영조 연간에 이르러서야 서얼 허통 정책은 빛을 보게 되었고 정조대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정조는 서얼 허통 정책을 실시하여 규장각에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능력 있는 서얼들을 검서관으로 대거 등용하였다. 그러나 서얼 철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남유두는 이러한 시기에 신분적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남공철의 주위에는 서얼들이 주축이었던 연암그룹, 위항시인 등 남유두처럼 재주가 있지만 不遇했던 사람이 많았다. 남공철은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였고, 그들을 제재로 한 詩文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蟹莊魚舍問前川　　물고기 잡는 어부 집을 강 앞에서 묻는데
楊柳長堤澹暮煙　　버들 늘어선 긴 둑에 저녁 안개 담박하네
明月來時携遠客　　밝은 달 떠오를 때 멀리 온 객 이끄는데
亂山多處送歸船　　어지러운 산 펼쳐진 곳 가는 배를 보내네
借書常有瓶中酒　　책 빌려도 항상 있는 건 술 단지 속 술이요
買屋曾無橐裏錢　　집을 사려해도 일찍이 전대 속엔 돈이 없네

181)『金陵集』卷3,「哭芝湖樵夫」:“聞孺人以所著文稿, 皆入實棺而葬之, 蓋遵遺命云.”

惟有熱河三卷記　　오직 있는 것은 열하의 세 권 기록뿐이지만
知君天下姓名傳　　온 천하에 그대 이름 알려져서 전할 테지[182]

유득공과 함께 박지원이 머무는 정자에 찾아가며 지은 시이다. 남공철의 부친 남유용이 박지원의 장인 李輔天(1714～1777)과 이종형제 사이였기 때문에[183] 남공철은 박지원과 이른 시기부터 알고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詩酒會에 자주 참석하고, 궁궐에서 그를 그리워하는 시[184]를 짓기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이 지냈다.

首聯・頷聯에서는 박지원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는 여정과 주변의 경치에 대해 읊고 있다. 해질 무렵 용산에서 어부의 집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버들이 늘어선 긴 둑에는 저녁 안개가 피어오른다. 서로 이끌며 배에서 내릴 때에는 달이 떠올라 빛을 비추고, 돌아가는 배의 앞에는 어둑한 가운데 산들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저녁 강가의 담박하면서도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취를 잘 그려내었다. 頸聯・尾聯에서는 박지원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당시 그는 연경에서 돌아와 平溪에 있는 처남 芝溪 李在誠의 집에 지내고 있었던 때로[185]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공철이 시에서 박지원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누어 대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 그에게 없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다. 돈이 없어 책은 빌려 읽고, 집을 살 수도 없어 처남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술 단지 속에 술은 항상 있다고 하여, 박지원의 처지를 우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치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그에게 있는 것은 『熱河日記』로 표현되는 그의 재주이다. 박지

182)『金陵集』卷1,「同柳惠甫 得恭 自龍山溯舟 訪朴監役 趾源 亭居」
183)『金陵集』卷18,「遺安處士李公墓表」: “不佞先君子, 與公爲姨從兄弟, 嘗情好篤至. 先君子之葬也, 公來臨穴哭甚哀.”
184)『金陵集』卷1,「詠禁城柳色呈燕巖」
185) 윤현철,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연구」, 1990, 14면.

원에게 있는 것은 오직 『열하일기』 세 권 뿐이지만, 남공철은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열하일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시로써 박지원의 상황을 위로하는 동시에 그의 존재와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半日柴扉爲客開　　한나절 사립문 객을 위해 열어놓고
殢人春色入螺盃　　情人과 봄빛은 술잔에 들어있네
酒腸漸大黃金盡　　주량은 점점 늘어 황금 다 써버리고
經業纔通白髮來　　경서공부 겨우 통하니 백발이 되버렸네
犢鼻短褌誰貯伎　　짧은 쇠코 잠방이에 누가 재주 담았나
馬肝新訣語多俳　　馬肝石 새로운 비결에 말이 더욱 많아지네
坐間忽憶丁窮士　　앉은 사이 홀연히 정의원이 그리우니
不向朱門自衒才　　권세 향해 자신 재주 뽐내지 않았었네[186]

남공철은 문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위항시인 李亶佃, 여항 화가 崔北 등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가깝게 교유하였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면·인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주인공인 許嶷 의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허의원은 일찍이 과거를 준비하였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의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었다. 이름 없는 의원이었으나 남공철은 그의 식견을 정조 때 내의원에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던 의원 丁希泰(?～?)에 견주고 있다.

首聯에서는 허의원과 함께하는 자리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한나절에 사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다. 열어놓은

186)『穎翁續藁』卷1,「贈許醫人嶷」

사립문은 허의원의 소탈함을 보여주며, 情人과 봄빛이 술잔에 들어있다고 하여 봄날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허의원의 사람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주량이 점점 늘어 황금을 다 써버렸다고 하여 재물에 뜻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서공부에 힘써 겨우 통하게 되니 백발이 되었다고 하여,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聖人의 道를 깨닫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였음을 드러내었다. 頸聯에서는 허의원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며 새롭게 드러나는 그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쇠코 잠방이는 농부가 일할 때 입는 짧은 잠방이로 그의 겉모습은 허름한 농부와 같다. 그렇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허름한 겉모습 안에 재주가 담겨있음을 작자는 느끼고 있으며, 화제가 전설상의 藥石인 馬肝石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자 더욱 말이 많아지는 허의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눈을 빛내며 이야기하는 才人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尾聯에서는 허의원을 의원 정희태에 견주어 칭찬하고 있다. 어느덧 대화는 당시 내의원에서 탁월한 의술로 인정되던 정희태에 이르렀다. 정희태는 특히 脈理에 정통했던 인물로, 내의원에서 병의 치료에 탁월한 솜씨를 나타내어 정조가 여러 차례 포상하려 했으나, 提調 康命吉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87] 정희태는 만년에는 易學에 정진하였는데, 남공철은 둘 다 경서에 정진했다는 점과 재주만큼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지만,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의원을 정희태에 비교함으로써 허의원을 높여 주고 있다. 또한 부제에서는 “의원이면서 선비였다”[188]고 하여 그의 선비다운 면모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남공철의 관심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재주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으며, 詩로써 그들의 존재를 그려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남유두나 박지원 외에도 이덕무・박제가・유득공 등과 시를 주고받았으며, 시 속

187)『梅山集』卷51,「丁希泰傳」
188)『穎翁續藁』卷1,「贈許醫人嶷」:“醫而儒者也.”

에서 그들의 不遇함을 위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189] 또한「春日李佃至」에서는 이단전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단전이 가난하여 행색은 볼품없었지만 본성을 지키며 시 짓기에 몰두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190]

남공철의 이러한 기록적 태도는 傳이나 碑誌, 序跋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남공철은 당시의 유교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아 狂人으로 취급되었던 위항시인 金龍行(1753~1778)이나 여항화가 崔北을 입전하였으며[191], 庶族이었던 남유형·남유두를 墓誌銘에서 높이 평가하였고[192], 종의 신분이었던 위항시인 李亶佃의 시집에 序文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詩文에는 모두 재주가 있었지만 不遇했던 이들을 기록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그것은 이름 없는 양반의 아내의 절행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정익주의 아내 李氏는 生烈로 특이하다. 향당의 모든 사람이 예부에 행장을 올리니 특별히 명하여 열녀문을 세웠다. 내가 일찍이 그 일을 듣고 감동하고 신이하게 생각했다. 최근에 그 자손 銓이 와서 선양하는 글을 구하기에 마침내 장편 한 수를 완성하여 이로써 그 절행을 알렸다. 후에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이 취해 보길 바라노라.[193]

이것은 남공철이 이름 없는 양반인 정익주의 아내 李氏의 절행을 기록하기 위해 쓴 시의 제목이다. 정익주는 오래 병을 앓다 죽었는데, 아내인 이씨

189)『金陵集』卷2「題楚亭幽居」; 같은 책, 卷3「和柳檢書惠甫韻」
190)『金陵集』卷1,「春日李佃至」:“好事莫如君, 偶然來不約. 容鬢漸疲皺, 衣巾亦弊落. 守素癖詩句, 妻子甘藜藿. 誓不謁公侯, 屑屑事干囑. 喜玆有素心, 晤言日將夕.”
191)『金陵集』卷13,「金舜弼傳」·「崔七七傳」
192)『金陵集』卷17,「南君山墓誌銘」·「眞樂先生墓誌銘」
193)『金陵集』卷3 :「鄭學究 翊周 配孺人李氏生烈特異. 鄕黨諸人, 呈狀禮部, 特命旌閭. 余嘗聞其事而感異之. 今者其胤子銓來乞掄揚文字遂成長篇一首, 以識其節行. 後有修史者, 庶幾取而觀之.」

가 동네 할미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이미 죽은 남편에게 먹이자 남편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절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열녀문을 세우기에 이르렀고, 이 일을 신이하게 여긴 남공철이 5언 72행의 장편고시로 기록한 것이다. 남공철은 詩의 말미에 “내가 이 일을 특별히 기록하여 장차 이로써 國史에 보탬되리”[194]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위에서 “후에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이 취해보길 바라노라”고 한 것과 같은 뜻으로, 남공철은 자신이 남긴 詩文이 역사에 남아 후대 사람에게 참고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 주변의 才人들과 그들의 처지를 시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2. 官僚意識과 歸去來 志向

南公轍의 가문인 宜寧 南氏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으로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고조부 南龍翼에서부터 정조의 스승으로 양관 대제학을 지낸 부친 南有容까지 권세와 문한을 자랑한다. 남공철은 이렇듯 대대로 집안에 전해오는 관료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일찍부터 자각하였다. 또한 남공철 자신은 25세 되던 해에 蔭職으로 翊衛司 洗馬가 되고부터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양관 대제학과 영의정까지 지냈고 74세에 致仕할 때까지 약 50년간 관직에 종사하였는데, 남공철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을 감안하면 거의 평생 동안 관직에 머무른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남공철은 여느 近臣들 보다도 더욱 군왕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정조는 자신의 스승

194)『金陵集』卷3,「鄭學究 翊周 配孺人李氏生烈特異. 鄕黨諸人, 呈狀禮部, 特命旌閭. 余嘗聞其事而感異之. 今者其胤子銓來乞掄揚文字遂成長篇一首, 以識其節行. 後有修史者, 庶幾取而觀之.」 : “我特書其事, 將以補國史.”

이었던 남유용을 생각하여 남공철을 집안사람처럼 여기며 각별히 배려하였으며,[195] 비록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정조가 문체정책을 펼 때 본보기로 견책을 받기도 했지만, 정조와의 가까운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196] 그리하여 정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누구보다 정조의 죽음을 슬퍼하며「正宗大王輓詞」를 25首 연작으로 짓기도 하였다.[197] 또한 정조 사후에는 정순왕후의 명으로 金載瓚, 李晩秀, 金祖淳, 尹行恁과 함께 돌아가면서 순조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후에는 효명세자의 사부가 되기에 이르렀음을 볼 때 순조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관직생활 내내 군왕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관각문학은 御製를 포함, 奎章閣, 弘文館, 春秋館 등 관각의 문인들이 玉冊文, 頒敎文, 箋文 등과 같이 공용의 목적으로 창작한 문학이다.[198] 또한 관료 생활을 한 문인이 문학의 장식적 기능을 중시하여 창작한 문학을 따로 관인문학이라 이르기도 한다.[199] 남공철은 일평생 관직에 종사한 관각문인인데다가 특별히 왕의 近臣으로 있으면서 왕명에 의해 지은 시나 군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한 시, 혹은 관료로서 자의식을 드러낸 시들을 적잖이 남겼다. 이러한 시들은 그대로 관각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관인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남공철의 시는 문학의 장식적인 기능을 중시하기보다는 近臣으로서 군왕과의 관계나 자신의 관료

195)『正祖實錄』16年 1月 17日條 ;『正祖實錄』16年 3月 20日條.

196) 안순태는 남공철이 近臣으로서 군왕과의 긴밀한 관계를 소재로 한 글을 여러 편 남겼는데, 남공철이 정조조에 16년간 관직생활을 하고, 순조조에서 34년간 관직생활을 했음에도, 산문에서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는 군왕은 대부분 正祖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부친 남유용을 매개로 남공철이 정조와 공유하던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21면.)

197)『金陵集』卷3,「正宗大王輓詞」

198) 관각 및 관각문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종묵,「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국문학연구』8, 국문학회, 2002, 42~50면; 신복호,「18世紀 館閣文學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0-22면 참조.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19면에서 재인용.)

199) 조동일,『한국문학통사』2, 4판 지식산업사, 2005, 359~360면.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19면에서 재인용.)

의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는데, 말단 관직과 지방관을 전전하던 초년기에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관리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본격적인 중앙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군왕과 가까운 위치에서 군왕과의 관계를 드러내며 왕화를 칭송하는 한편,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시에 표현하였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出과 處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에서 사대부 의식이 시에 표출되고 있다.

月正元日稱歲首　정월 초하루는 새해의 시작이라 하는데
火盆迎祥作祈辭　화로 피우고 상서로움 맞는 기도 글을 짓는다
但願家家長富足　다만 원하는 것은 집집마다 길이 풍족하고
男不啼寒女不飢　남자는 추위에 울지 않고 여자는 굶지 않으며
輕舟作商重船歸　가벼운 배 상선이 되면 무거운 배로 돌아오며
大牸引犢雞哺兒　큰 암소는 송아지를 끌고 닭은 병아리를 먹이기를
麥穗兩歧稻早熟　보리이삭은 길 양쪽에 벼보다 일찍 익고
拾綿盈筐蠶滿室　면화 따서 광주리를 채우고 누에는 집에 가득하네
秋來及期償官租　가을이 와 추수시기 이르러 관에 조세를 내고
賦餘將取作裙襦　조세내고 남은 것은 치마와 버선을 만들겠네
終年不見吏剝門　일 년 내내 아전 문 두드리는 일 없고
巷閭安閒狗不驚　여항은 편안하고 한가하여 개도 놀라지 않네
莫作賣癡詞人生　어리석음 팔아 글쟁이 되기 원치 않으니
不願多聰明　뛰어나게 총명한 것은 원하지 않고
莫作乞巧文　공교한 글짓기를 구하지 않으니
多才多技吾所鄙　재주가 많은 것은 내가 비천하게 생각하는 바라
古者鄒聖論王道　옛날 공자께서 왕도를 논할 때는
必自不飢不寒始　반드시 굶지 않고 춥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셨네[200]

200)『金陵集』卷1,「祈歲詞」

이 시에는 “때는 무신원년 내가 산청에 있을 때 이 글을 백성 위해 비는 글로 지었다.[歲戊申元朝 余在山淸 作此篇以爲爲民祈祝之詞]”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남공철은 27세 되던 1786년에 산청현감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시는 그 때 지은 것이다. 제목처럼 백성의 안위를 바라는 남공철의 관료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는 남공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백성의 삶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집마다 풍족하여 춥지 않고 굶지 않는 삶’이다. 그러나 이것을 뭉뚱그려 표현하지 않고 商船 경영, 가축 기르기, 보리농사, 면화 따기, 누에치기, 추수와 조세내기, 의복 짓기 등의 구체적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백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관찰력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백성의 삶이 경전에 근거한 것임을 공자 또한 왕도를 논할 때 ‘不飢不寒’에서 시작하셨다고 언급함으로 儒者的 면모를 표출하고 있다.

이 시에는 이상적인 정치상을 고민하며, 나아가서 위정자들에게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제시하는 남공철의 관료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료의식은 초년기에 지방관으로 지내며 지은 시에서 주로 드러나고 있는데, 「捉熊行」에서는 “백성을 위해 근심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의 당연한 바[201]”라 하여 백성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또 권하는 愛民의 자세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남공철의 序記文 중에는 군왕의 德으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낸다는 王化의식을 고취하는가 하면,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는 위정자의 이상적인 가치인 與民同樂을 구가한 작품들이 있는데[202], 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내

201)『金陵集』卷1,「捉熊行」
202)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221면.

고 있다.

經始爭來赴	시작할 때 다투어서 달려와서는
築斯不見勞	이 성 쌓음 수고롭다 보이지 않아
一城如許重	하나의 성 중하기가 이와 같으니
衆嶽讓其高	여러 산들 그 높음을 양보 하도다
火樹周遭遠	붉은 꽃나무 사방 멀리 서있고
旗門號令豪	깃발 문엔 호령소리 드높구나
聖人知倚用	성인은 함께 씀을 잘 아셔서
金甲詠同袍	군사들이 한 형제라 노래 부르네[203]

정조의 화성 행차를 곁에서 모시며 지은 시로, 화성의 야경을 감상하며 어제에 화답하였다. 화성을 쌓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완성된 화성의 웅장한 모습, 주변의 광경을 표현하였으며 그곳에 미친 王化를 칭송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화성을 쌓기 시작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다. 성을 쌓을 때 백성들이 다투어 달려왔고 성을 쌓으며 수고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백성이 화성을 쌓는 것을 수고로운 노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임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孟子』가 제시한 與民同樂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204] 정조가 화성을 쌓으며 與民同樂의 경지를 실천하였음을 칭송하는 것이다. 또한 尾聯에서는『詩經』「秦風」<無衣>를 인용하여 군사들이 모두 한 형제라 노래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조가 백성을 잘 다스려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王化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203)『金陵集』卷2,「陪駕登華城將臺 觀夜操 應製」

204)『孟子』,「梁惠王」下 : "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之聲, 管籥之音,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鼓樂也?'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 與民同樂也."

남공철에게 王化는 시의 주요 주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近臣으로서 왕의 명령으로 시를 짓거나, 어제에 화답하는 시를 자주 지어야 했던 남공철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면모는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 33세 이후의 시에 나타나며,『金陵集』권2 중반부터와 권3 초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들은 대부분 어가를 모신 자리에서 왕의 명령으로 짓거나 왕이나 고관들의 시에 화답한 것들로 王化를 칭송하며 王化가 널리 퍼지고 지속되기는 바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北山遊賞續春臺　　북산에서 노닒은 춘대 놀이 이었는데
今日花如昨日開　　오늘 핀 꽃은 예전에 핀 꽃과 똑같구나
但願百年叨此宴　　다만 원하는 건 백 년 동안 외람되이 이 잔치서
春風長醉太平盃　　봄바람에 길이 취해 태평성세 건배함이네[205]

남공철의 시 가운데는 임금이 베푼 자리에서 賞春하며 읊은 시가 적지 않다. 이 시 또한 임금이 베푼 賞花釣魚宴에 동료각신들과 참석하여 어제에 화운한 것이다. 賞花釣魚宴은 임금의 주최로 대부분 창경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곳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고, 꽃을 감상하며, 낚시를 하고, 시 짓기, 활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었다.[206]

---

205)『金陵集』卷2,「賞花釣魚 同諸閣臣賡和聖製 疊北山韻」

206) 정약용,『국역 다산시문집』권14,「芙蓉亭侍宴記」: “금상께서 등극한 지 19년째 되는 해 봄에 상께서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을 베풀었다. … 그때 대신(大臣)과 각신(閣臣)으로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10여 인이나 되었다. 상께서는 단풍정(丹楓亭)에서 말을 타시고, … 석거각(石渠閣) 아래에 이르러 상림(上林 대궐 안에 있는 동산)에서 말을 내렸다. 그때는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봄빛이 매우 화창하였다. … 술상을 물리치고 상께서는 여러 신하들과 자리를 옮겨 원(苑) 가운데 있는 여러 정사(亭榭)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해가 저물녘이었다. 부용정(芙蓉亭)에 이르러 상께서는 물가의 난간에 임하여 낚싯대를 드리웠다. 여러 신하들도 연못 주위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아서 통(桶) 안에 넣었다가는 모두 다시 놓아주었다. 상께서는 또 여러 신하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명하고 배 안에서 시를 지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시를 지어 올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연못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안치(安置)시키기로 하였다. 몇 사람이 과연 섬 가운데로 귀양을 갔는데, 곧 풀어주었다. 또 음식을 올리게 하여 취하고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상께서 어전(御前)의 홍사촉(紅紗燭)을 내려주셨으

起句의 北山은 경복궁 뒷산인 북악산이며, 春臺는 창경궁 안에 있는 春塘臺이다. 얼마 전 춘당대에서 봄놀이를 하였는데 오늘 다시 북산에서 봄놀이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춘당대에서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행해져 온 봄놀이가 오늘날 북산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承句의 '오늘 핀 꽃이 예전 핀 꽃과 같다'는 말에서 심화되고 있다. 轉·結句에서는 백 년 동안 이 잔치가 열리고 자신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봄날 아름다운 경치 속에 열리는 이 잔치는 백 년 동안 계속되길 바랄만큼, 또 잠시 떠올랐던 인생의 무상함을 잊게 할 만큼 좋은 잔치다. 작자는 이 시절을 태평성대에 비유하며 군왕의 善政을 칭송하고, 이 시절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신하로서 군왕에게 이러한 잔치를 계속 베풀어 주십사하는 뜻을 밝히고,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계속 이어가시라는 충언을 넌지시 하고 있는 것이다.

上元今日卽迎春　　정월 보름 오늘은 봄을 맞이하는 날
薦菜祀膏節物新　　나물 고기 제사하니 봄철 만물 새로웁다
二紀馨香陶鑄化　　해와 달 꽃다운 향 조물주가 만들어 내
藹然天地發生仁　　윤택하게 온 천지에 어짊 생겨나겠구나

千官冠珮競呼嵩　　모든 신하 의복 갖춰 다투어서 만세 부르니
愛日知年聖孝隆　　날 아끼고 해를 아는 성군의 효심 높도다
淸曉閤宮將有事　　맑은 새벽 신묘에는 장차 일이 있으니
六龍駕出五雲中　　육룡 수레타고 오색구름 속을 나가시네[207]

므로, 그것으로 길을 밝히며 원(院)으로 돌아왔다."
207) 『金陵集』 卷2, 「春帖子 二首」

立春을 맞이하여 대궐에 붙이기 위해 쓴 春帖子이다. 첫 번째 수에서 작자는 입춘이 정월 보름과 겹쳤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고 춘첩자를 쓰며 봄날의 새로운 기운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궁궐에 모든 신하가 모여 절기를 축하하는 모습과 임금이 신묘에 제사 지내러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첫 수의 轉句에서는 政事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해와 달의 꽃다운 향을 조물주가 만들어내 천지에 어짊이 생겨나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수의 承句에서는 “愛日知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愛日의 정을 뜻하는 것으로, 漢나라 揚雄이 『法言』에서 “부모를 섬기되 스스로 부족한 줄 아는 이는 舜이로다. 오래 할 수 없는 것이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이르니, 효자는 부모를 모실 시일이 적음을 안타까워한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작자는 이 구절에서 표면적으로 임금이 愛日의 정을 가지고 있음을 칭송하고 있지만, 동시에 임금에게 그러한 孝를 행하길 권면하고 있다. 군왕과 가까운 위치에서 궁궐의 일을 묘사하고 군왕의 덕을 칭송하며 신하로써 군왕에게 충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공철의 관료의식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도 나타난다.

玉堂今夜淸如水　　대궐의 오늘 밤은 맑기가 물과 같고
棐几晴窗翰墨香　　서재 책상과 개인 창엔 붓과 먹향 가득하네
豹直靑綾編日得　　당직 서는 관리는 일득록을 편집하고
龍圖銀燭校雲章　　규장각 은 촛불 아래 어제 문집 교정한다
筆還五色詩思盡　　붓은 되려 오색인데 시 생각은 다하였고
俸得三分異籍藏　　봉록은 적으나 기이한 책 모아두었네

臆說未宜加點竄　　억측 될까 글다듬긴 아직 마땅하지 않고
丹鉛不得下雌黃　　글자 고침 차마 자황 바르지를 못하겠네[208]

내각에서 숙직하며, 명으로 역대시집을 교정하는 과정을 읊은 시이다. 깊은 밤 규장각의 분위기를 묘사하며 어명에 따라 일을 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首聯에서는 깊은 밤 대궐의 분위기를 '물같이 맑다'고 하였으며 규장각에는 '붓과 먹향이 가득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시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頷聯에서는 정조의 어록인 일득록을 편집하고, 어제 문집을 교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頸聯에서는 규장각 각신으로서의 모습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시를 쓸 조건이 갖추어 졌지만 시상은 다하였고, 자신의 봉록이 적지만 기이한 책을 모아두었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다. 尾聯에서는 군왕의 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억측이 될까 하여 어제의 틀린 글자를 차마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작자의 어조는 규장각 각신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을 겸손하게 밝히는 듯하지만, 군왕의 글을 편집하고 교정하는 일을 맡은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尾聯에서는 어제의 틀린 글자를 차마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군왕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의 교정을 맡게 된 사람은 자신이므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젊은 날 규장각 각신으로서 군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어명에 따라 일을 맡아 하는 모습과 관료로서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을 잘 표현하였다.

208)『金陵集』卷2,「內閣直廬 述卽事 時承命校歷代詩集」

旅舘逢初度　　여관에서 생일을 맞이하니
鴨綠天一方　　하늘 끝 한 귀퉁이 압록에서라
幕客來相問　　지방 관리 서로 와서 인사를 하고
家人想應長　　하인들은 응대하기 공손히 한다
持盃倍惆悵　　잔 잡으니 쓸쓸함은 배가 되고
覽鏡還慨慷　　거울 보니 도리어 강개 하도다
但愧身未休　　다만 몸을 쉬지 못함 부끄럽지만
不憂鬢髮蒼　　머리털 하얀 것은 걱정 않는다
朝瞻五雲端　　아침에는 오색구름 끝 바라보고
暮倚北斗傍　　저녁에는 북두칠성 의지한다
原隰詠皇華　　높고 낮은 곳에서 황화장 읊으니
王命愼所將　　왕명은 삼가서 따라야 할 것
君子崇明德　　군자는 밝은 덕을 숭상하니
履道終允臧　　도를 행함 마침내 진실로 좋다[209]

남공철은 48세가 되던 1807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冬至正使로 연경에 다녀오게 되었다. 연경으로 가는 도중에 압록강 주변의 용만객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마침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그 때의 소회를 읊은 것이다. 1~4구에는 타지에서 생일을 맞이하여 느끼는 단절감과 쓸쓸함을 압록강변을 '하늘 끝 한 귀퉁이'로 표현함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정을 함께하는 관리와 하인들은 와서 축하해 주지만, 쓸쓸함은 가시지 않는다. 5~8구는 생일을 맞이한 자신의 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술잔을 잡으니 더욱 쓸쓸해지고, 거울 속의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강개함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늙음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君恩에 보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이것은 '머리털이 하얀 것은 걱정 않지만 몸을 쉬

209)『金陵集』卷3,「龍灣客舘 遇生朝志感」

지 못해 부끄럽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큰 공을 세우고 당당하게 귀향해야 하는데, 자신은 아직 그런 공을 세우지 못했으며, 그저 관직에 머물러 祿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강개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9~12구는 쓸쓸한 감정을 사명감으로 추스르는 작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연경으로 가는 사행은 아침에 해가 돋아 구름이 오색으로 물들 때부터, 저녁에 북두칠성이 보일 때까지 계속되는 고된 여정이다. 그러한 여정 속에 생일을 맞아 쓸쓸한 감정이 들지만, 높 낮은 곳 어디에서든지 임금이 자신을 사신으로 임명하며 보내던 모습을 기억하며 왕명을 삼가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3~14구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은 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행함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였다. 『大學』의 첫 문장과 『詩經』「鄘風」<定之方中>의 "卜云其吉 終然允藏"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儒者的 면모를 표출하면서 왕명을 맡은 관리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타지에서 생일을 맞이하며 드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맡은 일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추스르는 작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관료생활을 지향하는 出과 벼슬살이에 구애받지 않는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處라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은 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존하는 것이었다. 이 양자 사이의 갈등은 관직에 있을 때는 處에 대한 희구로, 전원생활을 하면서는 出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을 문인들은 자신들의 시작품을 통하여 표출해 내었으며 詩作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감정의 해소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210] 남공철 또한 오랜 관직생활 가운데 늘 전원에서의 한가한 삶을 동경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歸去來 할 수 없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그의 중년 이후의 詩文에서 주요한 주제로 등

210) 손유경,「慕齋 金安國의 詩文學 硏究 -그의 忠情詩를 중심으로-」,『한문고전연구』제1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164면.

장하고 있다.

일찍부터 남공철은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직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공철이 선택한 것은 서울 용산에는 心遠亭을, 廣州府 청계산 아래 금릉 둔촌(지금의 성남시 금토동)에는 별업으로 又思穎亭을 두고 틈 날 때 마다 왕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행히 틈을 얻어 별업에 돌아와 머무르며 지은 시에서는 자연과 동화되어 한가함을 누리는 모습 속에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산림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관직생활을 지속해온 남공철의 의식 전반에는 관료로서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세상과 조정에 대한 근심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朝罷烏巾坐翠微　　조회 끝나 오건 쓰고 푸른 산에 앉으니
今年三月見晴稀　　올해 삼월에는 맑은 날이 드물구나
落花撲面因風到　　바람 불어 지는 꽃은 얼굴을 때리고
乳燕全身貼水飛　　물 위 나는 어린 제비 온 몸이 젖었구나
信筆無難詞伯軸　　붓 가는 대로 쓰니 글 백축 이룸 어렵지 않고
薰香不歇侍臣衣　　풀 향기는 모시는 신하의 옷에 가시지 않네
故園景物知應好　　옛 정원 경치는 좋은 날에 응할 줄 아는데
未報君恩敢說歸　　아직 君恩 보답하지 못했으니 감히 귀향 말하겠나[211]

이 시는 남공철이 37세 되던 1796년 봄에 지은 것이다. 조회가 끝난 뒤 金祖淳, 李始源과 함께 모여 봄의 경치를 만끽하는 모습과 모인 사람들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주목되는

211)『金陵集』卷3,「春日 與士源 景深拈唐人韻 共賦」

것은 尾聯의 내용이다. 오랜만에 맑게 갠 옛 정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고서 아직 君恩에 보답하지 못하여 감히 귀향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좋은 경치 속에서 한가함을 계속 누리고 싶지만 아직 君恩에 보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귀향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남공철의 의식 속에 일찍부터 歸去來에 대한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夢憶龍山酒幔斜　　술집 깃발 비낀 용산 모습 꿈에 그리며
滄江歸計在浮家　　푸른 강에 돌아갈 계획은 부질없이 배에만 있네
聖恩遲却分符解　　임금 은혜 부절 푼단 분부 문득 더디기만 해
日日憑人問植花　　날마다 사람들께 꽃 심기를 물어 보네[212]

바쁜 관직생활 속에서 歸去來를 꿈꾸는 남공철의 심정이 잘 드러난 시이다. 서울에서의 관직생활은 비교적 가까운 용산에도 가지 못할 만큼 바쁜 생활이다. 그렇지만 작자는 용산의 심원정을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며, 배를 타기만 하면 떠날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직을 청해도 조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歸去來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원생활에서 시작할 꽃 심기를 물어보고 있다. 남공철의 歸去來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남공철은 늘 歸去來를 꿈꾸었으나 그의 사직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사직을 요청하여 요행히 틈을 얻기도 하였다.

一封疏懇戀靑山　　간절하게 청산 그리는 맘 상소 올렸으나
未許辭官許暫還　　사직은 허락않고 잠시 돌아감만 허락되었네
極目時憂猶未了　　눈가는 대로 바라보니 때로 근심 되려 끝없어

212)『穎翁續藁』卷1,「憶心遠亭」의 其一.

林泉難覺此身閒　　산림서도 이 몸 한가한지를 깨닫기 어렵네[213]

가을날 자신의 별업인 우사영정에 돌아와서 잠시 머물며 쓴 시이다. 전원에서 한가함을 누리고자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읊고 있다. 起・勝句에는 우사영정에 돌아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늘 歸去來하고자 했던 마음을 담아 致仕의 뜻을 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사직은 허락되지 않았고 잠시 휴가만 얻게 되었다. 轉・結句에서는 우사영정에 돌아와 머무는 데도 불구하고 때로 근심이 끝없어지며 한가함을 깨닫기 어렵다 말하고 있다. 자신의 원대로 산림에 돌아와 한가히 거하고 있지만 한 구석에 세상에 대한 근심을 놓지 못하는 작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남공철이 한가하게 머물며 쓴 시에는 종종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簾外澄湖湖外山　　주렴 밖 맑은 호수, 호수 저쪽 산을 보니
忘機鷗鳥自來還　　세상 잊은 갈매기는 절로 오고 가는데
憂時廊廟饒封事　　시절과 조정을 걱정하며 조정의 일 쌓아놓고
遲却衰翁一日閒　　느지막히 물러나온 늙은이 하루가 한가롭네[214]

이 시 또한 관직생활 중에 잠시 틈을 얻어 심원정에 머물며 지은 시이다. 起・承句에는 맑은 호수와 산, 갈매기가 있는 풍경을 그렸는데, 이것은 세상 근심과는 동떨어진, 매우 한가로운 풍경이다. 그러나 이 풍경을 바라보는 작자의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다. 轉・結句에서 작자는 바쁜 조정의 일은 다 쌓아두고 물러나와 하루를 한가롭게 보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일이 쌓여있다고 轉句에 언급한 것은 시절과 조정에 대한 걱정을 아예 접어버리

213)『金陵集』卷4, 「秋日 歸又思潁亭」
214)『潁翁續藁』卷1,「心遠亭 偶吟」

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틈을 얻어 자신의 별업에 한가로이 거하면서도 이렇듯 세상에 대한 근심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에는 거의 일평생 관직생활을 하며 몸에 배인 관료의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관료의식이란 “훈업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해 탄식하네”[215] “밝은 성군께 보답한 것 끝내 추호도 없어”[216]라고 하였듯, 큰 공을 세워 君恩에 보답하기위해 애쓰지만 君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보답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하며 분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혜 깊어 차마 致仕 자주하지 못하겠네”[217]라는 말처럼, 歸去來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君恩 때문에 致仕마저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고, 歸去來하여서도 시절과 조정에 대한 근심을 놓을 수 없어 한가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공철은 50여년 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관직생활을 하였는데, 특별히 왕의 近臣으로서 활동하며 왕명에 의해 지은 시나 군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한 시, 또 관료로서 자의식을 드러낸 시들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지방관을 역임한 초년기에는 백성들의 안위을 걱정하며 王化가 백성들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관리의 모습이 시에 드러나고 있다. 본격적으로 중앙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군왕과 가까운 위치에서 군왕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왕화를 칭송하는 한편,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시에 표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년 이후의 시에서는 늘 歸去來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君恩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出과 處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15) 『穎翁續藁』 卷1, 「三宜軒 吟示濟北生」 : “勳業于今歎未成.”
216) 『穎翁續藁』 卷1, 「三宜軒 吟示濟北生」 : “終蔑絲毫報聖明.”
217) 『穎翁再續藁』 卷1, 「焚黃先墓 吟示諸君」 : “恩深未忍乞骸頻.”

3. 雅趣와 淸遊의 追求

남공철은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경화세족의 고동서화 취미 향유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서화를 감상하고 그에 대한 비평을 가한 글 116제 154편을 엮어 『書畵跋尾』를 남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다.[218] 이 『書畵跋尾』는 대개 自家의 소장품에 대해 쓴 것인데, 남공철은 古董閣, 書畵閣과 같은 예술품 소장처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였으니 그가 거대한 고동서화의 소장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젊어서부터 서화에 癖이 있어서 名品을 파는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서라도 샀고, 남의 집에 善本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감상했다"[219]고 스스로 토로한 것을 보면 그의 서화에 대한 애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220]

고동서화의 취미는 골동품과 서화를 수집, 품평, 감상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행위들을 두루 포함한다. 즉, 향을 사르고, 거문고와 바둑판을 곁에 두고, 정원을 경영하고 화초나 수목을 가꾸며, 벗들과의 모임에서 패관이서와 고금의 經史에 대해 담론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고동서화 취미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221] 이러한 일련의 고동서화 취미는 세속적인 것이나 실용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으며 심미적인 것이 강조되었고, '雅趣'를 추구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雅'는 '俗'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배그룹이 治理를 어렵게 하는 인간 속

218) 신영주,「금릉 남공철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 『서화발미』」, 『동방한문학』47집, 동방한문학회, 2011, 109면.
219)『金陵集』卷23,「洪氏寶藏齋畵軸」: "余少癖於書畵, 見有賣名品者, 至脫衣裘而易之. 聞人家有善本, 則輒往觀, 皆有品題."
220)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76면.
221) 안순태, 앞의 논문, 77면.

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축적한 문화 정치적 기제로부터 형성된 미감"[222]이다. 그러므로 雅는 어느 정도 不俗, 혹은 脫俗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미감인 것이다. 한편 '趣'는 감각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명사에 붙어 그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이 나타내는 미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남공철은 "모습에 혼이 없고, 말에 맛이 없고, 웃음에 자태가 없고, 소리에 여운이 없으며, 걸음에 운취가 없다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의 진흙상일 뿐"[223]이라하면서 '趣'를 중시하였다. 진흙상이나 껍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趣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루하고 속되어서 高雅하지 못하면 趣가 없다"[224]고 한 것이나, "雅로써 趣를 드러낸다"[225]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공철은 趣를 雅와 긴밀하게 관련짓고 있다. 趣에는 興趣, 義趣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남공철은 유독 '雅趣'를 강조한 것이다. 남공철이 적극적으로 향유하던 고동서화 취미 또한 '雅'를 핵심으로 하는 취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동서화 취미 향유가 雅趣 추구의 방편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226] 남공철은 이러한 일련의 고동서화 취미를 시에 형상화함으로써 雅趣를 구현하려 하였다.

邂逅逢人話	요행히 친구들 만나 얘기 나누니
茅檐日已斜	처마 해가 벌써 지려하네
前年共作客	작년 함께 나그네 되었다가
三月更思家	봄 삼월에 다시 집 그리웠지
風落庭梧葉	바람이 뜰 오동잎 떨어뜨리고

222) 원종례,「미적 범주 '趣'와 '雅'의 심미의식 차이의 변화 추이에 담긴 문학사회학적 의미」,『중국문학』39, 한국중국어문학회, 2003, 60면. (안순태, 앞의 논문, 78면에서 재인용.)
223)『金陵集』卷10,「與金國器論文書」: "貌無神, 言無味, 笑無態, 聲無韻, 步無趣, 形骸徒存而一泥塑而已矣."
224)『金陵集』卷11,「四君子文鈔序」: "陋俗而不雅也.…(中略)…不雅則無趣."
225)『金陵集』卷11,「四君子文鈔序」: "精以立其法, 深以養其氣, 雅以著其趣."
226) 안순태, 앞의 논문, 78~79면 참조.

霜侵野菊花　　서리가 들 국화에 엄습하였네
欲將何供具　　장차 무엇을 차려 베풀까?
爐火倩烹茶　　화로에 차 끓여서 함께 할까나[227]

남공철이 자신의 고동각에 친구들을 맞이하여 정답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首聯에서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頷聯부터는 모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작년에는 서로의 사정으로 모두 집을 멀리 떠나 함께 모일 수 없었는데, 타지에서 봄을 맞이하게 되니 집과 벗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게 되었다. 頸聯에서는 '庭梧葉', '野菊花'로 가을을 맞는 모습을 묘사하여 비로소 집에 돌아오게 되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가을의 계절감을 통해 모임의 배경을 그윽한 가을 정취로 그리는 이중적 표현 방식을 구사하였다. 尾聯에서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대접할까 하는 작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화로에 차 끓여서 함께할까나[爐火倩烹茶]"라는 말에서 차를 끓여 마시는 담박하고 그윽한 정취와 이별했다가 친구들과 다시 만나 함께하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서화고였던 고동각에 모여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윽한 정취를 누리는 남공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은 고동서화에 대한 감상 비평 활동이 이미 학적 체계를 갖추어가며 성숙한 단계로 진입해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남공철은 이미 10세 이전부터 부친의 곁에서 서화를 열람하며 소양을 쌓았으며, 그의 주변에는 고동서화에 상당한 취미를 가졌던 인물들이 많았다.[228] 남공철은 이들과 함께 교유하며 고동서화 취미를 공유하였는데, 이 중에는 박지원・이덕무・박제가・박남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홍대용도 그 중

227)『金陵集』卷1,「古董閣 邀山如, 聖能, 黃述翁 (鍾五), 李元履 (顯綏) 作」
228) 신영주, 앞의 논문, 2011, 95면.

의 한 사람이었다.

篔簹墨竹可同羣	왕대 수묵은 같은 무리 삼을 만하고
行草神傳王右軍	행초서는 신이하여 왕희지의 솜씨 같네
他方萬里逢知己	만 리 먼 타향에서 지기를 만났으니
太守風流更似君	태수의 풍류 더욱 군자와 같도다[229]

남공철이 홍대용의 집에서 淸의 문사 潘庭筠의 書畵를 감상하고 남긴 시이다. 홍대용은 1766년 2월에 연경에서 潘庭筠, 嚴誠, 陸飛 등을 만나 인연을 맺고 귀국 후에도 계속 교류하였는데, 특히 반정균과 왕래한 書畵 수십 여 폭을 소장하고 있었다.[230] 남공철은 홍대용의 집에서 이것을 열람하고 시로써 반정균의 書畵에 대해 평하고 있다. 起・承句에서는 반정균의 그림 중에 특히 墨竹畵에 주목하여 '같은 무리로 삼을 만하다'고 하였고, 글씨 중에서는 行草를 높이 사 왕희지의 솜씨에 비견하였다. 이것은 그의 재주를 칭찬하며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轉・結句에서는 반정균과 교류하며 그의 書畵를 소장하고 있는 홍대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만남을 만리 타향에서 지기를 만난 것에 비유하고 있으며, 반정균의 書畵를 소장하고 있는 홍대용의 안목을 '군자의 풍류'로 높이 사고 있다. 반정균이 묵죽화와 행초에 뛰어난 것에 주목하여 먼저 홍대용의 안목과 취향을 '군자의 풍류'로 연결하였으며, 그들의 만남을 군자의 만남에 비유하였고, 함께 감상하면서 그들을 인정함으로써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이렇듯 남공철은 주변 인물들과 함께 서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며, 그 속에서 특유의 정취를 누리고자 하였다.

---

229)『金陵集』卷1,「題洪湛軒家藏潘香祖書畵卷」
230) 신영주, 앞의 논문, 101면.

斗葉芭蕉身尺許　　길쭉한 잎 파초, 길이 한 자 쯤 되는 것을
淺紅深綠次第栽　　옅게 붉은 것 진하게 푸른 것 차례대로 심었네
亂抽却似書千軸　　어지러이 싹 트니 되려 천권 족자 책 같아서
半捲春風又半開　　봄바람에 반쯤은 말려들고 또 반쯤은 펼쳐졌네

骨節玲瓏葉短長　　뼈대 마디 투명하고 잎은 좁고 길쭉해서
兩封雙緘欲何藏　　양쪽을 봉하고 묶어 어찌하면 보관할까
無端學得靑羅扇　　무심하게 푸른 비단 부채 얻으려 않아도
風自來時夏亦凉　　바람 절로 부는 때엔 여름 또한 시원하겠구나[231]

정원을 경영하고 화초나 수목을 가꾸는 것 또한 고동서화 취미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 아취로운 일로 여겨졌는데, 이 시에서는 파초를 가꾸고 감상하는 일에 대해 읊고 있다.

먼저 첫 수의 起·承句에서는 크고 길쭉한 파초의 생김새와 파초를 심어 놓고 바라보는 작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轉·結句에서는 파초가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할 때 파초 잎이 길쭉하게 뱅뱅 돌려져 아직 펼쳐지지 않은 모습을 족자에 비유하여 작자의 선비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파초를 심고 가꾸는 과정과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에서, 파초를 아끼는 작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다 자란 파초의 생김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잎의 줄기며 잎의 생김새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또한 파초를 양쪽을 봉하고 묶어다가 필요할 때 부채로 쓰겠다는 작자의 파초 사랑과 재치가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세워두니 바람이 불면 저절로 큰 잎이 펄럭이며 마치 부채를

231)『金陵集』卷1,「題芭蕉 二首」

부쳐주는 것처럼 되었고, 보기만 해도 시원한 모양이 되었다. 작자는 이것을 푸른 비단 부채를 얻은 듯 즐거워하며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파초는 잎이 지지 않으며, 먼저 나온 잎이 어느 정도 자라면 곧이어 늘 새로운 잎이 난다. 때문에 새 잎처럼 새 지식이 생겨난다는 뜻을 취해 학자들은 파초를 사랑했으며 선비들은 파초를 가꾸며 勉學의 뜻을 다졌다. 게다가 바람이 불 때는 펄럭이는 시원스러운 모습에서, 비가 내릴 때는 시원한 소리로써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선비들이 늘 곁에 두었다. 이 시에서는 파초의 심미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파초를 곁에 두고 정취를 즐기는 작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憂患支離歲月忙　　근심 걱정 번잡하고 세월은 바쁜데
官居況復寄他鄕　　관직 살이 하물며 다시 타향 머묾에랴
妓裙草色妬深綠　　기생 치마 초록빛은 짙은 풀빛 시샘하고
鶯翅楊枝較淺黃　　꾀꼬리는 옅은 노랑 버들가지와 겨루는 듯
碁局無關相勝敗　　바둑의 판세는 서로 승패와 상관없고
詩樽終亦近踈狂　　시 짓고 술 마심 끝내 미친 것에 가깝구나
春來公舘閒無事　　봄이 온 관청에는 일없이 한가하니
新火新茶試篆香　　불 피우고 차 끓이며 篆字향을 시험하네[232]

남공철이 산청현감을 지낼 때 山陰 換鵝亭에 노닐며 지은 시로, 연작 3首 중 其二이다. 환아정은 남공철이 산청현감에 부임한 이듬해(1787)에 폐허가 된 정자를 중수한 것으로, 산음현 객관 서쪽에 있으며 강물을 굽어보고 있었다고 한다. 현감 沈潾이 건축하였고, 花山 權攀(1419~1472)이 王羲之의

232)『金陵集』卷1,「山陰換鵝亭 倩孫繼 馳筆賦懷 三首」其二.

고사를 취하여 이름 하였다. 「換鵝亭記」에는 지명이 중국의 山陰과 일치하기 때문에 왕희지를 연상하였고, 왕희지의 거위와 관련된 고사에서 뜻을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33] 특별히 이 시에는 고상한 취미를 통해 아취를 즐기는 남공철의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首聯에서는 관직생활로 타향에 머무는 작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관직생활과 타향살이로 근심이 더욱 일어나지만, 작자는 벗과 함께 모여 노닒으로 이러한 근심을 잠시나마 풀고 있다. 頷聯에는 모인 자리의 풍경에 대해 읊고 있다. 봄이라 점점 짙어지는 풀빛은 기생의 초록치마와, 꾀꼬리는 이제 막 움이 돋는 노랑 버들가지와 그 색을 겨룬다. 비슷한 색의 사물을 짝지어 색채감을 살리고 있으며, 초록과 노랑의 색채 대비를 통해 봄날의 풍경을 화사하게 그려내고 있다. 頸聯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바둑판이 벌어지며,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렸는데, 바둑은 승패와 상관없다고 하여 정취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 쓰고 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은 자유분방하여 얽매이지 않는 狂客으로 그리고 있다. 尾聯에서는 봄날 관청에서 일없이 한가한 가운데 차를 끓여 마시며, 향을 피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차 마시기, 향 피우기는 앞서 묘사된 바둑 두기, 시 짓기, 술 마시기와 더불어 雅趣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일로, 이것을 시에 표현함으로써 시 속에서 雅趣를 구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남공철이 아취를 즐기는 모습은 其一・其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其一에서는 “잠에서 깨니 난간의 오후 해가 더디구나 / 행장 꾸리니 학 한 마리 거문고 하나 뒤따르네”[234]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탈속적인 정취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남공철이 이덕무에게 쓴 편지인「與李懋官(一)」

233) 김광섭,「금릉 남공철 산문 연구」, 2009. 78면.
234)『金陵集』卷1,「山陰換鵝亭 倩孫繼 馳筆賦懷 三首」其一 : “睡起闌干午景遲, 行裝一鶴一琴隨.”

에서도 나타난다. “복건을 쓰고 나귀 타고 동자에게 거문고 하나와 술 한 동이를 지게하고 태을산에 들어가 종일토록 거닐다 돌아왔습니다.”[235]라고 하여, 남공철이 종종 속세와 거리를 둔 사람의 차림새로 노니는 것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취는 남공철의 시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소재로 산수유람에서는 淸遊로 드러나고 있다. 율곡 이이는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山水를 좋아한다는 것은 저 물이 흐르고 산이 솟은 것만 취할 뿐이 아니고, 그 動靜의 본체를 취하는 것이다.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氣를 기르는데 이 산수를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는가.”[236]라고 하였다. 이것은 儒者의 산수유람이 경치를 즐길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유가적 이치를 궁구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산수 유람의 자세는 儒者들의 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문인들의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남공철은 그의 시에서 산수 유람을 통해 유가적인 이치의 顯現이나 氣의 함양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치나 대상 자체의 운치나 아름다움에 주목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幽爽淸絶’한 느낌을 통해 세속의 속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幽는 자연 지향적 정서와 의식의 성격을 형용한 말이고, 爽은 이러한 정서와 의식에서 느끼는 상쾌, 유쾌함을 말한다. 淸絶은 세속적 정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淸靜之心의 심리적 상황을 묘사한 말이다.[237]

---

235) 『金陵集』 卷10, 「與李懋官(一)」 : “僕已休暇矣, 幅巾騎驢, 令童子携琴一張酒一榼, 入太乙山, 逍遙竟日而歸.”

236) 李珥, 『全書』 卷33, 「附錄一」, <年譜上> : “孔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樂山水者, 非取其流峙而已, 取其動靜之體也. 仁智者之所以養氣者, 捨山水而奚求哉.”

237) 김광섭, 앞의 논문, 66면.

登高一騁眺　　높이 올라 마음껏 바라다보니
山色杳淸秋　　산색은 아득하게 맑은 가을이라
磴徑苔衣滑　　바위 길은 이끼로 미끄럽고
松杉水幅幽　　소나무 숲 물가는 그윽하다
桑麻通野屋　　뽕과 삼밭은 들의 집에 이어져 있고
鐘磬聞祠樓　　경쇠소리 절 누각서 들려오네
何幸游方外　　구석진 곳 노니는 것 무슨 복인가
提携盡勝流　　서로 끌며 노니는 이 다 명사들이네238)

남공철이 벗들과 수승대에 유람하며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搜勝臺라는 지명대로 경치 좋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마음껏 바라보는 모습을 읊고 있다. 또한 맑은 하늘과 단풍이 든 산을 바라보며 상쾌함을 느끼는 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頷聯에서는 수승대 주변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끼로 미끄러운 바위 길과 그윽한 소나무 숲 물가는 이곳이 속세와는 단절된 깊은 산 속임을 드러낸다. 頸聯에서는 멀리 내려다보니 뽕나무 삼나무 밭은 들의 집에서부터 이어져 있고, 가까운 절에서는 경쇠소리가 들려온다. 원경의 시각적 묘사와 근경의 청각적 감각의 조화를 통해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임을 드러낸 것이다. 尾聯에서는 “구석진 곳 노니는 것 무슨 복인가[何幸游方外]”라고 하여 이렇듯 속세와 단절된 그윽한 경치를 마주한 작자의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었고, 그곳에 노닐고 있는 이들을 다 ‘명사[勝流]’라고 표현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남공철은 현달한 관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세속적 가치에 거리를 두고 雅潔한 삶을 추구하였고, 그의 관심은 주로 강호자연과 서화고동 등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난 세계에 있었다.239) 남공철의 산수유람시에는 이렇듯 세속

238)『金陵集』卷1,「搜勝臺 與金知縣 (在淳) 士樹 閔生君憲 (範大) 同賦」
239) 김광섭,「金陵 南公轍 散文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66면 참조.

과 단절된 장소에서 그윽하고 맑은 정취를 즐기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四山沉碧樹酣紅　　사방 산은 깊은 푸른색, 숲은 붉게 물들었는데
蘆鴈汀鳧似畵中　　갈대밭의 기러기 물가 오리 마치 그림 속인 듯
獨往溪頭不垂釣　　홀로 시냇가에 와 낚시도 드리우지 않으니
幽人心事在秋風　　그윽한 사람 심사 가을바람 속에 있네240)

남공철은 1799년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금강산을 유람하게 되었다. 이 시는 그 때 쓴 것으로 금강산 영원동에 들어가기 전, 명연석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읊었다.

깊은 산 속, 사방은 모두 깊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 가을 숲은 붉게 물들어 있다. 물가의 갈대밭에는 기러기와 오리가 다니고, 자신은 낚싯대도 드리우지 않은 채 시냇가에 홀로 서 있다. 작자는 그림 같은 경치 속에 있는 자신을 관조하며, 자신을 이러한 경치 속에 한 부분으로 배치함으로써 시 전체를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듯 풀어가고 있다. 마침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작자가 이러한 정취 속에 푹 빠져들도록 돕고 있다. 남공철은 시적 배경으로 가을의 경치를 즐겨 그려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맑고 담담하며 그윽한 정취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九月滄溟三萬里　　구월의 푸른 바다 삼만리에
風靜波濤夜猶白　　바람에 파도는 고요하니 밤 되려 밝구나
況復萬松月魄射　　하물며 다시 해송에는 달빛이 내려 비쳐
琉璃天地湧金碧　　유리 같이 맑은 천지 금빛 푸른빛에 일렁인다

240)『金陵集』卷3,「將尋靈源洞 坐鳴淵石上偶吟」

秋雲落片大於帆　　가을 구름 조각은 돛배보다 더 크고
七星去樓只數尺　　북두칠성 누대에서 다만 몇 자 거리에 있네
我來兩腋欲生羽　　나의 양 겨드랑이 날개 솟아나려하고
爽然如躡銀河冰　　상쾌하게 은하수의 차가운 물 밟을 듯해
明日鏡浦仙刺史　　내일 아침 경포의 신선놀음 하던 관리
畵船笳鼓下江陵　　배를 타고 피리불고 북치며 강릉 가겠지[241]

남공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머물며 금강산 뿐 아니라 강원도 일대를 유람하였는데, 이 시는 낙산사에 하룻밤 머물며 야경을 감상하고 지은 시이다. 밤에 환히 뜬 달로 인해 바다와 주변 경물이 빚어내는 경치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1~2구에서는 낙산사에서 보이는 바다 경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넓은 바다에 파도가 잔잔한데 달이 유난히 밝아서, 주변은 환하고 바다는 멀리까지 보인다. 3~4구에서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설명하고 있다. 바닷가 해송에는 달빛이 '달의 혼백이 화살을 쏘듯[月魄射]' 내려 비친다고 하였고, 달빛으로 인해 천지가 유리같이 맑아졌으며, 천지와 달빛이 함께 파도에 비쳐 파도가 금빛 푸른빛으로 일렁인다고 하였다. 5~6구에서는 가을 하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맑은 하늘에 큰 구름 조각이 넓게 펼쳐져 있는 장관을 '구름 조각이 돛배 보다 크다'고 표현하였으며, 하늘이 너무 맑아 별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북두칠성이 다만 몇 자 거리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7~8구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작자의 모습이 보인다. 맑고 신비한 분위기로 인해 마침내 자신의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 신선이 되어 날아가며, 은하수의 차가운 물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9~10구에서는 아름답다 못해 신비한 경관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241) 『金陵集』 卷3, 「宿洛山寺東樓 是夜海月明甚」

‘신선놀음을 하는 관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관들이 다음 여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주 맑은 밤, 달빛이 매우 환하여 신비하게 느껴지는 낙산사의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하였으며, 맑은 곳에 노닐며 느끼는 仙趣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山明江合處　　산 맑고 강 합쳐진 곳에
突兀廢亭奇　　버려진 정자 우뚝하여 기이하구나
偶得幽閒地　　우연히 그윽하고 한가한 곳서
高吟隱遯詩　　은둔하며 시를 소리 높여 읊도다
花開春黯澹　　꽃 펴도 봄 날씨 흐려 담박하고
魚戲水漣漪　　물고기 노는 곳에 잔물결 일렁거리네
松桂當淸俸　　소나무 계수나문 녹봉 돼주고
讀書縣宰爲　　책 읽으니 마치 현령 된 것 같구나[242]

남공철이 강원도 인제 읍치(지금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合江亭에서 지은 시로 農巖 金昌協의 시를 차운하였다. 김창협은 1696년 8월 강원도에서 유람하였을 때 이곳에 들렀고[243], 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합강정 앞에는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여 흐르는데 김창협은 “두 줄기 물이 앞에서 합쳐지고 흰모래와 맑은 여울이 깨끗하고 호젓하다”[244]고 하였다.

首聯에서는 합강정의 모습과 주변 풍경에 대해 읊고 있다. 맑은 산 아래 두 줄기 강물이 합쳐져 흐르는 곳에 정자가 우뚝하게 서있다. ‘버려진 정자[廢亭]’라고 한데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외진 곳임을 알 수 있는데, 외

242)『金陵集』卷3,「次農翁韻 題合江亭」
243) 金昌協,『農巖集』卷24,「東征記」: “丙子八月十六日, 巳時, 自農巖發行, 秣馬花峴韓尙周家. 夕宿方吉里李子正庄奴家, 是日, 行六十里 … 二十八日, 午後發向寒溪, 五里登合江亭.”
244) 金昌協,『農巖集』卷24,「東征記」: “二水交會於前, 白沙淸湍, 瀟洒幽敻.”

진 곳에 우뚝히 서있는 정자의 모습에서 작자는 기이한 느낌을 받고 있다. 頷聯에서는 한적한 곳을 만나 그윽하고 맑은 정취를 마음껏 누리는 작자의 심회가 드러나 있다. 작자는 우연히 이렇게 한가하고 그윽한 곳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이곳에 은둔하며 시를 소리 높여 읊는다고 하였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호방하게 시를 읊어 맑은 정취를 한껏 누리는 것이다. 頸聯에서는 주변의 경치에 대해 읊고 있는데, 봄꽃이 화사하게 피었지만 날씨가 흐려 담박하다고 하였으며, 잔잔한 강물에는 물고기만 이따금 노닐어 잔물결이 인다고 하였다. 尾聯에서는 이러한 경치를 홀로 마음껏 누리는 작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정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니 그 일대가 모두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져 '현령이 된 듯하다'고 하였으며, 둘러서 있는 소나무와 계수나무를 '녹봉[淸俸]'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소박함과 경치를 누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합강정과 그 주변의 풍경을 담박하고 그윽하게 묘사하였으며, 정자의 한적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는 작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공철은 벗과 함께 모여 고동서화를 감상하고, 시를 짓고, 술과 차를 마시는 등의 모습을 시에 표현하였고, 이러한 시에서 그윽하고 맑은 정취, 즉 雅趣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취는 산수유람 시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산수유람에서 만나게 되는 경치나 대상의 운치와 아름다움을 시에 묘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幽爽淸絶'한 느낌을 통해 세속의 속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4. 純粹한 性情의 發現

남공철은 부친 남유용의 시론과 김창협의 天機論에 영향을 받아 '詩는 性情에서 발한 것'[245]으로 파악하고, 일생동안 시를 창작함에 화려하고 공교한 수사에 힘쓰기 보다는 胸中에서 우러나는 詩, 즉 務自己出의 詩를 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공철은 여러 곳에서 '시가 性情에서 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性情이란 기쁨과 울분 같은 사람의 감정이며, 남공철은 이러한 감정에서 시가 발현된다고 인식하고 있다.[246]

한편 남공철은 "평생 그림과 책을 동산으로 여겼고, 벗을 생명으로 여겼다"[247], "나의 성품이 愚陋하고 유독 交遊를 좋아하여 세상의 이름난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이 적지 않았다"[248]라고 밝혔는데,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교유를 좋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한 시를 많이 남겼다.[249] 그 중 특별히 남공철이 벗들과의 이별상황 가운데 주고받은 시를 살펴보면, 벗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아쉬움, 영원한 우정의 다짐 등 벗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 시에는 벗들과의 깊고 순수한 우정과 남공철의 시적 감수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挾弓莫射鴈　　활을 끼고 있어도 기러기 쏘진 말고
垂綸莫釣魚　　낚시는 드리워도 고기를 잡진 말라
或恐音信少　　두렵구나! 혹시 편지 드물어져서

245)『金陵集』卷11,「閔生詩集序」 : "詩發於性情."
246) 앞의 Ⅲ.文學觀 중 3. 天機論과 性情之眞의 發現의 내용 참조.
247)『金陵集』卷10,「答成士執」: "平生以圖書爲園囿, 朋友爲性命."
248)『金陵集』卷10,「韓子定詩集序」: "余性愚陋, 獨喜交遊, 與世之名勝懽結者, 不爲不多."
249)『金陵集』을 살펴보면 폭넓은 인간관계만큼이나 교유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주고받은 시, 모임에서 읊은 시, 또는 만남과 우정에 관해 읊은 시가 전체 340題 중 113題나 되며, 卷1부터 卷4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수록되어있다.

漸與故人踈　　차츰차츰 친구들과 멀어질까봐[250]

기러기는 漢의 蘇武가 비단에 쓴 편지를 기러기의 발에 매어 武帝에게 보냈다는 고사에서 雁書, 즉 편지를 의미하고, 물고기 또한 잉어의 뱃속에 흰 비단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고사에서 鯉素, 즉 편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작자는 기러기와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기러기와 물고기가 드물어지게 되면 편지 또한 드물어지고, 그러면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고사와 편지, 우정을 재치 있게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벗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남공철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남공철은 벗들과 자주 시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하고, 우정을 확인하며, 그리움을 드러내었는데 다음 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晴煙起處氣氤氳　　개인 안개 일어나는 곳 기운이 화평한데
宿雨纔收霽色新　　내리던 비 겨우 그쳐 맑은 빛이 새롭다
十里靑山頻送目　　십리 밖 푸른 산에 눈길이 자주 가고
每年芳草欲傷神　　해마다 꽃다운 풀에 마음이 상할 듯해
月明樓上初聞鴈　　달 밝은 누각 위서 기러기소리 처음 듣고
梅落床前正念人　　매화 지는 침상 앞 바로 이 사람 생각 하네
莫道知音今世少　　知音이라 말할 이 지금 세상 드물다 말게
憑君一曲和陽春　　그대 곡조 의지하여 밝은 봄날 화답하네[251]

이 시는 金載瑾(1750~1785)이 보낸 시에 남공철이 화답한 것이다. 김재련은 남공철이 수학기에 절친하게 어울리며 뜻을 같이한 벗으로 그와 주고받은 시가 많다. 안타깝게 김재련이 요절한 이후에도 남공철은 평생 그를 그

250)『金陵集』卷1,「古意」
251)『金陵集』卷1,「酬金國器載瑾」

리워했다.[252] 이 시에는 봄날의 경치와 김재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김재련은 봄날 경치를 감상하다가 남공철이 생각나 그리운 마음을 담아 시를 보낸 것 같다. 이 시는 그에 대한 화답시인데, 먼저 봄날의 경치를 그리고 있다. 首聯에서는 봄비가 지나간 후 따뜻하고 맑아진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頷聯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며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푸른빛이 가득한 먼 산을 바라보았다가 바로 앞의 芳草를 본다. 비 그친 후 깨끗하게 보이는 산과 해마다 봄이 되면 싱싱하게 돋는 풀의 아름다움을 보니 이것을 함께 감상할 사람이 옆에 없는 것에 문득 마음이 상한다. 頸聯에서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다. 홀로 달이 뜬 누각 위에 있을 때 마침 기러기 소리가 처음 들린다. 방 안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니 매화가 지고 있다. 이러한 경치는 외로운 심사를 극대화시키며, 계속 쌓였던 그리운 감정을 표출시켜 '바로 이 사람' 즉 김재련이 생각난다고 말하게 한다. 尾聯의 첫 구에서 '知音'을 언급한 것은 김재련이 먼저 보낸 시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마지막 구에서 "그대 곡조 의지하여 밝은 봄날 화답하네"라고 하여 자신이 知音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잘 담아내면서 김재련과의 깊은 우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故人嘉州去　　친구는 가주로 떠나가기에
江口來相別　　강 하구에 와서 서로 이별 하였네
十月凉風起　　시월이라 서늘한 바람 일어나고
蕭蕭鴈羣絶　　쓸쓸히 기러기 떼 사라져가네[253]

252)『金陵集』卷3,「南至前二日 夢與國器飮酒梅花樹下 劇談亹亹而罷 覺來 夜已五鼓矣, 」; 같은 책,「夢惟人」
253)『金陵集』卷1,「新安江口贈別」

제목의 신안강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에 흐르는 강으로 보이니 남공철이 산청현감으로 있을 때 벗과 이별하며 써준 시인 듯하다. 起・承句에서는 떠나는 벗의 목적지와 헤어지는 장소를 밝히며 이별의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담담히 읊고 있다. 轉・結句에서는 이별할 때의 주변 경치를 읊고 있다. 10월이라 강가에는 서늘한 바람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늘에는 기러기 떼가 쓸쓸히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경치는 벗과의 이별로 인해 이미 쓸쓸하고 허전한 작자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며 독자에게는 여운을 주고 있다. 작자의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상황의 서술만으로 이별의 정서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五馬明朝發　　태수의 말이 내일 아침 출발하니
南州作使君　　남주에서 사신되어 떠나게 됐네
佳辰來送客　　좋은 계절 돌아올 때 객 보내고
芳草怨離羣　　꽃다운 풀 원망함은 이별해서라
驛路千年險　　역로는 천년동안 험하였고
官橋二水分　　관교는 물을 둘로 나누었네
臨歧聊極望　　갈림길서 끝없이 바라만 보니
城上但歸雲　　성 위에는 구름만 흘러갈 뿐[254]

남공철이 1763년 趙曮을 따라 日本에 通信使로 가게 된 성대중에게 준 시이다. 首聯에서는 조엄을 따라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성대중의 상황에 대해 먼저 서술하고 있다. 頷聯을 살펴보면 성대중을 보낼 때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절은 아마도 봄인 듯하다. 봄이 돌아와 풀이 푸르른 경치와 이별

254)『金陵集』卷1,「送成明府士執」

의 상황이 극명히 대비되어 작자의 슬픔은 더욱 커지고, 결국 풀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頸聯에서는 역로가 늘 험난하였기에 그 길로 떠나는 벗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교가 물을 둘로 나누듯, 벗과 자신이 사행에 의해 나뉘는 것 같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尾聯의 첫 구에서는 작자가 갈림길에 서서 사행의 무리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별의 안타까움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마지막 구에서는 시선을 돌려 성 위에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여줌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성대중과 이별하는 안타까움이 구절마다 잘 드러나고 있으며 마지막 구의 풍경 묘사로 인한 여운으로 詩味를 획득하고 있다.

남공철은 이렇듯 공무나 여타 다른 사정으로 벗과 이별하는 일이 잦았는데, 벗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한 시가 적지 않다.

京洛春風暮　　서울 봄바람 부는 저녁에
梅花且莫愁　　매화 펴도 또한 근심치 말자
鴻聲雲外樹　　기러기는 구름 밖 숲에서 울고
客夢水南樓　　객은 강남 누각에서 꿈을 꾸겠지
一與故人別　　한번 친구와 이별하고서
幾思前日遊　　몇 번이나 전날 놀이 그리워했나
無窮懷古意　　친구 그리는 맘 끝이 없어서
獨坐正搔頭　　홀로 앉아 그저 머리 긁고 있다오[255]

이 시는 봄날 멀리 떨어져 있는 朴南壽(1758~1787)를 그리워하며 그에게 부친 시로, 박남수는 남공철이 김재련과 함께 수학기에 절친하게 지냈던 벗이다. 首聯에서는 '서울의 봄바람 부는 저녁'이라는 시적 감성을 불러일으키

255)『金陵集』卷1,「寄朴山如」

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고서 매화가 피어도 근심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있다. 매화가 피면 만나고 싶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서로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頷聯에서는 시상을 전환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벗의 상황을 추측해 보고 있다. 숲에 머무르는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쓸쓸함을 환기 시키며, 벗은 누각에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頸聯에서는 그러한 벗의 모습에 화답하듯 작자도 이별하고서 지난 날 함께 노닐던 일들을 많이 그리워했다고 한다. 尾聯에서는 그의 모습을 상상도 해보고 지난 일을 되새겨 보아도 그리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어서 결국 홀로 앉아 그저 쓸쓸해서 머리를 긁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매화가 피면 예전에 노닐었던 벗과 함께 매화를 감상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간절하게 풀어냈다.

下堂攬明月　　마당에 내려와 밝은 달빛 움켜잡으니
瑤華空滿手　　옥 같은 빛 부질없이 손안 가득 차 길래
欲贈離居者　　멀리 사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花間佇立久　　꽃 사이에 우두커니 오래 서있네[256]

5언 절구의 짧은 시이지만 남공철의 벗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그리움, 그리고 시적 감성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마당에 내려와 달빛을 감상하던 작자는 문득 달빛을 손에 받아보니 밝은 달빛이 두 손을 환하게 비추어 가득 찬 듯 보인다. 작자는 달빛을 본 순간부터 벗이 생각났다. 환하고 아름다운 달빛을 보니 벗과 함께 감상하고 싶은데, 벗은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承句에서는 달빛이 손에 부질없이[空] 가득 찼다고 하였다.

256)『金陵集』卷1,「絶句」

그것은 달빛이 손에 잡히지 않는 無形物임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벗의 부재로 인한 작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작자는 결국 멀리 있는 벗에게 달빛을 보내주려고, 마당에 핀 꽃들 사이에서 좀 더 달빛을 받기 위해 우두커니 오래도록 서 있다. 이것은 달빛을 오래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벗에게 달빛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쩔 줄 몰라 그대로 정지하듯 서 있는 것이다. 달이 환하게 뜬 밤의 아름다운 정취와 벗에 대한 그리움, 순수한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표현되었으며, 남공철의 시적 감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앞의 시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남공철은 벗들과의 交遊을 매우 좋아하였고 늘 벗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공철은 생애 초반에 절친했던 벗들과의 사별을 수차례 경험하였다. 19세에는 친척인 南有衡이, 24세 되던 해에는 집안끼리 오래도록 교유하여 朋友之間으로 지내던 吳允常이, 26세 및 28세 되던 해에는 수학기에 뜻을 같이 하며 교유한 金載璉과 朴南壽가, 27세 및 31세에는 각각 崔北과 李亶佃이, 34세 되던 해에는 취향을 공유하며 문학적으로도 많은 교유를 한 이덕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남공철 자신도 젊은 나이에 친한 벗을 많이 잃은 것을 스스로 안타깝게 여겼으며,[257] 이들을 위해 立傳하거나 墓誌銘을 짓거나 詩를 남겨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明朝佳約正慇懃　　내일 아침의 아름다운 약속 막 은근한 것은
爲掃溪堂共討文　　시냇가 집 쓸어놓고 함께 글 의론해서네
小驢來訪城南宅　　작은 나귀로 성 남쪽 집에 찾아 왔으나
獨有梅花不見君　　매화만 홀로 있고 그댄 보이지 않네[258]

257)『金陵集』卷13,「金國器書簡帖跋」: "余年未衰耄, 而哭朋友之死者多矣."
258)『金陵集』卷1,「悼國器」

知音이었던 김재련과 사별하고 지은 「悼國器」 二首 중 其二다. 먼저 작자의 조금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늘 그랬듯 벗과 함께 글에 대해 의론할 것이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것이다. 그러한 감정은 시냇가 집을 청소하며 벗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벗과 작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기다리는 벗은 오지 않는다. 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지고, 결국 벗의 집을 직접 찾아간다. 그러나 늘 함께 감상하던 매화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벗은 이미 세상에 없다. 벗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벗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상상만으로도 들뜨는 작자의 모습은 서로간의 정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보여준다. 깊은 그리움은 작자가 벗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게 만들었으나 그것은 결국 벗의 不在를 재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結句에서는 벗의 '不在'가 매화의 '在'에 대비되어 부각되고 있으며, 슬픔이 더욱 증폭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절절하게 토로하지 않고도, 감정과 상황의 담담한 대비만으로 벗을 잃은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공철은 벗과의 여러 가지 이별상황에서 지은 시에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표출시키고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시에 남공철의 시적 감수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시를 性情에서 발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胸中에서 나오는 시를 짓고자 했던 남공철의 의식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文學史的 意義

18세기 시단은 17세기의 복고적·낭만적 시풍을 비판하고 반성하며, 끊임없이 기존의 규범으로부터 탈피하려 하였고, 시인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양상도 매우 多岐하여 그 특징을 규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당대의 시풍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몇 개의 그룹을 살펴보면, 첫째 그룹은 17세기 말엽에서 18세기 초엽에 활동한 金昌協·金昌翕을 주축으로 한 白岳詩壇이고, 둘째 그룹은 李秉淵을 비롯하여 李天輔·吳瑗·南有容 등 첫째 그룹의 후배세대들이며, 셋째 그룹은 서울과 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인·소북 계열의 시인들로 李用休·李彦瑱·柳慶種 등을 들 수 있고, 넷째 그룹은 李德懋·朴齊家·柳得恭 등 서얼문사들이 주축이 된 白塔詩派이다.[259] 18세기의 혁신적 시풍은 김창협·김창흡을 주축으로 한 첫째 그룹에 의해서 개척되었으며, 그 후배세대들인 둘째 그룹으로 이어졌고, 이용휴를 중심으로 한 셋째 그룹에 의해 한번 변모하였으며, 넷째 그룹인 백탑시파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남공철과 영향 관계에 있는 그룹은 白岳詩亶과 白塔詩派이다. 白岳詩亶은 金昌協과 金昌翕 형제를 중심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서 시단의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킨 시인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주변에 있는 자연, 인물, 풍속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시에 있어 계획된 의도나 꾸밈을 고려하지 않아 形과 神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세계를 이상적인 경지로 생각하였다. 이들은 '眞詩', '性情의 詩', '天機' 등을 강조하면서 등장해 조선 후기 시단에 참신한 충격을 던져주었는데[260], 이러한 이

259)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14~38면.
260)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2010, 360면.

들의 시론은 이병연・이천보・오원・남유용 등 그들의 후배세대에게로 이어졌다.

白塔詩派는 서울의 中部, 백탑의 서쪽 지역에 거주하며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풍을 추구했던 李德懋・朴齊家・柳得恭 등의 서얼 문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장인적인 엄격함과 열정을 가지고 신분적 한계로 인한 자신들의 울분을 시 창작에 쏟아, 고답적이고 순수서정적인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시에 있어 기교를 중시하며 참신성을 추구하였고, 조선의 인정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는데, 도회나 농촌 주변의 小景이나 지식인들의 일상적 삶을 逼眞하게 묘사하여 '지나치게 정교하고 너무 결벽증이 있다[太淸而過潔]'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261]

남공철은 부친 남유용과 이천보・오원을 통해 백악시단의 시론을 계승하였는데, 동시에 이덕무를 비롯한 백탑시파와도 교유하며 영향을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262] 그러나 남공철의 詩는 기교나 참신함, 사실적 묘사에 힘쓰기보다는 자신의 性情, 즉 胸中에서 우러난 詩를 추구하여 김창협의 天機論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백악시단을 비롯한 그 후배세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詩史的으로 백악시단 후배세대들의 典雅한 詩文風에서 白塔詩派의 참신하고 개성적인 詩風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러한 문학적 궤적을 보인 것은 남공철뿐 만은 아니었다. 金祖淳・李晩秀・李相璜・沈象奎・徐榮輔 등은 남공철과 문학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보이며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金祖淳(1765~1832)은 金壽恒(1629~1689)의 5대손으로 家學으로 인해 백악시단의 시문풍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젊은 시절 북학과 패관소품을 접하면서 그것

261)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347~359면.
262) 앞의 Ⅲ. 문학관 참조.

에 흥미를 느끼고 '里俗'적 표현을 즐겨 구사하게 되었는데, 문체정책으로 남공철 등과 함께 견책을 받은 이후, 정조의 입장에 순응하여 순정한 고문풍을 표방하고 패관소품류의 창작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김이양과 신위, 김려와 심로숭 등 새로운 시문풍에 몰두하였던 이들과 친밀하게 교유하였으니, 젊은 시절의 취향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263]

김조순의 詩는 백악시단의 문사들이 시적 표현에서 里語와 俗語를 사용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 시정풍속을 자유분방하게 그려낸 면모가 있다. 또한 당대 서울 일각에서 받아들여졌던 明淸 문예에 영향을 받아, '詩必盛唐'의 의고적 시풍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며, 宋詩와 蘇軾을 선호하고 추종하였다. 그는 의고와 표절을 배격하고 부족하나마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것을 강조하였다.[264]

沈象奎(1766~1838)는 남공철과 시문에 대한 견해를 자주 주고받은 인물로, 남공철이 "지금 穉敎[심상규]의 文은 어찌 그리도 제 마음과 잘 맞는지요?"[265]라고 할 만큼 그의 문학적 취향은 남공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李相璜(1763~1841) 역시 패관소품을 애호하여 김조순과 함께 숙직하며 소설을 읽다가 정조에게 발각되어 자송문을 지어 올리는 일이 있었으며,『서상기』와 같은 책을 좋아하여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측간에 갈 때조차 그것을 손에서 떼지 못했다고 한다.[266]

이들은 모두 정조조에 초계문신으로 활동하였고 순조조에는 세도 정국의 핵심이 되었던 인물들로, 경화세족으로서 서울에 世居하며 청요직을 도맡았고,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당대의 문화를 주도하였으며, 비록 문단에 대한

263) 유봉학,『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89~190면.
264) 鄭元容,『經山集』卷12,「楓皐集跋」: "有韻則古體尤長 … 論者 或疑爲蕪黃, 公常言聚零羽片錦以自耀者, 曷若布帛全疋之裁成哉. 此公之不以剽襲尋撦爲工, 而自成一家語也."
265)『金陵集』卷11,「與沈穉敎書」: "今穉敎之文, 何其與吾心合也."
266) 안순태,「남공철 산문 연구」, 2011, 31면, 주99.

예의 영향력과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관각문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文衡까지 지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명문집안 출신으로 일찍부터 조정에서 동년배 관료로 어울리며 학문적·사상적·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는데, 문학적으로도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였는데[267], 이 그룹의 문학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남공철이다.

더불어 '남공철의 시세계'에서 고찰한 詩들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남공철의 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이 당대 현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공철의 악부시에는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 묘사한 면모가 보이는데, 이것은 그의 현실인식이 두드러졌던 면모였다. 그러나 관료의 입장에서 현실을 드러내놓고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주변의 不遇한 사람들에게로 그 대상이 전환되었고, 표현방식 또한 좀 더 온건해져서 不遇人의 현실을 시를 통해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자 하였다.

둘째로, 남공철의 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이 향유했던 취미와 그들의 일상사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공철은 벗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고동서화 취미를 향유하는 모습을 시에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러한 시에서 18세기 경화세족의 세련된 문예 취향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들이 고동서화 취미를 통해 추구했던 雅趣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시들은 문화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67) 안순태, 앞의 논문, 2면.

마지막으로 남공철의 시는 시인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가식 없이 시로 창작하고자 했던, 18세기 한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 중기에 율곡 이이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 왔던 재도적 문학관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는 性情之正보다 性情之眞에 주목하면서 일어났으며, 인간 본연의 情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남공철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胸中에서 우러나는 시'를 창작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贈別詩에는 벗과의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그리움, 슬픔 등의 감정이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18세기의 시인들이 시인 내면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시의 소재로 즐겨 다루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8세기에서 19세기로 가는 문학사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네 그룹 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형성될 수 있겠다. 그것은 바로 남공철을 위시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이다. 이 그룹은 그 시대의 문예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룹으로서 백악시단에서 백탑시파로 넘어가는 문학사의 흐름 가운데 백악시단과 그 후배 세대를 계승하고 있으며 백탑시파와도 영향을 주고받아 두 그룹 사이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Ⅵ. 結論

金陵 南公轍은 1760년(영조 36년)부터 1840년(헌종 6년)까지 살았던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의 대표적 경화세족이자 관각문인이다. 그는 정조조에 규장각 초계문신이 되어 정조의 근신으로 활동하였고, 순조조에는 세도정국의 핵심인물로 활동하였으며 벼슬은 文衡·영의정에 이르렀다. 남공철이 활동했던 시기는 정치·경제·사회·문예 제 방면에서 변화의 파도가 일었던 시기였는데 그는 이 시기의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공철이 문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文衡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로 산문과 문학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남공철의 생애와 문학관을 바탕으로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남공철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내며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집안과, 唐宋古文을 정통으로 인정했던 스승 김순택의 영향으로 '文以載道論'의 시각에서 六經과 古文을 중시하는 다소 보수적인 고문가로 자랐다. 그는 육경을 학습함으로 그 속에 담긴 正氣를 길러 그 正氣가 문장에 저절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장에 구현해야하는 도를 聖人의 도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6세경에 박지원, 이덕무 등 연암그룹과 교유하면서 문학관이 轉變하게 되었는데, 곧 今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道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공철의 문학은 여전히 고문에 그 바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설명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남공철의 문학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務自己出'의 문학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자신만의 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남공철은 모방과 답습을 일삼던

당시 문단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博學과 沈酣을 통한 '務自己出'의 문학을 제시하였으며, 일생동안 이러한 '務自己出'의 문학을 추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詩에 있어 남공철은 '性情에서 우러난 詩' 또는 '胸中에서 우러난 시'를 중시하였다. 시가 성정에서 우러난다고 한 것은 부친 남유용과 英祖朝 四家, 그리고 김창협의 천기론과 같은 맥락의 논의로 남공철이 천기론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공철이 말한 性情은 性情之眞과 관련 있으며, 감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것으로, '性情에서 우러난 시'라는 것은 곧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된 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남공철은 '胸中流出' 또는 '務自己出'이라고 표현하여 매우 강조하였으며, 결국 남공철은 詩와 文을 막론하고 '務自己出'의 문학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남공철의 시세계를 네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1) 現實認識과 不遇에의 關心에서는 20대 중반에 남공철의 문학관이 한차례 轉變하여 今의 가치를 인식하고 당대의 物事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면모가 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관심이 주변의 不遇한 사람에게로 옮겨져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2) 官僚意識과 歸去來 志向에서는 가문과 오랜 관직생활의 영향으로 남공철의 바탕에 자리잡은 관료의식이 초년기에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관리의 모습으로, 본격적인 중앙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근신으로서 군왕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왕화를 칭송하는 모습으로,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시에 표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出과 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대부 의식이 시에 표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3) 雅趣와 淸遊의 追求에서는 조선후기 대표적 경화세족으로 문예취향을 주도하였던 남공철이 고동서화를 감상하고 시를 지으며 술과 차를 마시는 등의 취

미를 시에 표현하여 雅趣를 드러낸 것과 산수유람시에서 경치나 대상의 운치와 아름다움을 시에 묘사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幽爽淸絶'한 느낌을 통해 세속의 속된 생각을 떨쳐버리며, 淸遊을 추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4) 純粹한 性情의 發現에서는 贈別詩에서 남공철의 솔직한 감정과 꾸밈없는 순수함이 우정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면모는 시가 性情에서 발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胸中에서 나오는 시를 짓고자 했던 남공철의 詩觀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들 시에 남공철의 시적 감수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남공철의 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이 당대 현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이 향유했던 취미와 그들의 일상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공철이 불우한 인물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나, 雅會의 형상화를 통해 雅趣를 드러내고, 벗과의 우정을 문학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이미 산문 작품 연구에서 밝혀진 면모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를 통해 형상화된 면모에서는 남공철의 시적 감수성과 순수함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모는 시인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가식 없이 시로 창작하고자 했던 '務自記出'의 문학적 특징이며, 나아가 18세기 한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러한 문학적 궤적을 보인 것은 남공철 뿐 만은 아니었다. 金祖淳·李晩秀·李相璜·沈象奎·徐榮輔 등은 명문집안 출신으로 일찍부터 조정에서 남공철과 동년배 관료로 어울리며 학문적·사상적·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을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 그룹의 문학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남공철이다. 이 그룹은 그 시대의 문예 상황

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룹으로서 백악시단에서 백탑시파로 넘어가는 문학사의 흐름 가운데 백악시단과 그 후배 세대를 계승하고 있으며 백탑시파와도 영향을 주고받아 그들 그룹 사이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산문가로써만 주목받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남공철의 시를 연구하여 그의 생애와 문학관을 바탕으로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남공철의 문학 전반의 특징을 밝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경화세족·관각문인 그룹의 문학적 위치를 재조명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參考文獻

1. 基本資料

南公轍,『金陵集』,『한국문집총간』272집, 민족문화추진회.

_____,『潁翁續藁』,『한국문집총간』272집, 민족문화추진회.

_____,『潁翁再續藁』,『한국문집총간』272집, 민족문화추진회.

_____,『歸恩堂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영인본.

金昌協,『農巖集』,『한국문집총간』161・162집, 민족문화추진회.

南有容,『雷淵集』,『한국문집총간』217집, 민족문화추진회.

朴齊家,『貞蕤閣集』,『한국문집총간』261집, 민족문화추진회.

徐敬德,『花潭集』,『한국문집총간』24집, 민족문화추진회.

成　俔,『慵齋叢話』.

安鼎福,『順菴集』,『한국문집총간』229・230집, 민족문화추진회.

吳　瑗,『月谷集』,『한국문집총간』218집, 민족문화추진회.

李晬光,『芝峯集』,『한국문집총간』66집, 민족문화추진회.

_____,『芝峯類說』.

李天輔,『晉菴集』,『한국문집총간』218집, 민족문화추진회.

許　筠,『惺所覆瓿藁』,『한국문집총간』74집, 민족문화추진회.

洪直弼,『梅山集』,『한국문집총간』295・296집, 민족문화추진회.

『英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正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純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憲宗實錄』, 한국고전번역원.

2. 著書

강명관,『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김흥규,『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민병수,『한국한시사』, 태학사, 2010.

박현모,『정조 사후 63년: 세도정치기의 국내외 정치연구』, 창비, 2011.

_____,『정치가 정조』, 푸른 역사, 2001.

송기채 외,『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82.

안대회,『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유봉학,『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9.

이성모,『조선왕조사』, 수막새, 2011.

조동일,『한국문학통사』2,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_____,『한국문학통사』3,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정옥자,『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_____,『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정옥자 외,『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게, 1999.

3. 論文

김광섭,「金陵 南公轍의 文學觀과 作品世界」,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0.

_____,「金陵 南公轍 散文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성진,「朝鮮後期 文人들의 生活相과 小品體 散文」, 김도련 편,『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김혜숙,「한국한시론에 있어서 천기의 고찰(2)-천기와 성정-」, 『한국한시연구』3집, 한국한시학회, 1995.
김현경,「南公轍 尺牘 硏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명평자,「金陵 南公轍의 古文論 硏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성범중,「〈장진주〉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한국한시연구』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손유경,「慕齋 金安國의 詩世界 硏究」,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손유경,「慕齋 金安國의 詩文學 硏究 -그의 忠情詩를 중심으로」,『한문고전연구』1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손영희,「雷淵 南有容의 文學觀과 詩 硏究」,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손혜리,「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평에 관한 연구」,『한문학보』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신영주,「금릉 남공철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書畵跋尾』」,『동방한문학』, 47집, 동방한문학회, 2011.
안순태,「南公轍의 傳狀碑誌文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南公轍의 文藝趣向과 漢詩」,『한국한시연구』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_____,「남공철 문학관의 변이 양상에 대한 연구」,『한문교육연구』3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_____,「南公轍 散文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원종례,「미적 범주 '趣'와 '雅'의 심미의식 차이의 변화 추이에 담긴 문학사회학적 의미」,『중국문학』39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3.
윤현철,「金陵 南公轍의 文學論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경아,「南公轍의 文學思想」,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임유경,「18세기 천기론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정연봉,「조선전기 성정 논의와 장유의 천기론」,『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최신호,「조선후기시론의 몇 가지 성격」,『민족문화연구』18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ABSTRACT

A study on Geumneung Nam Gongcheol(金陵 南公轍)' Poetry

Jeong, Yujin
Dept. of Chinese Classics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Nam GongCheol(1760~1840) was a person of distinguished family and the representative literary official in the latter Joseon. He was an attendant to the King Jeongjo and a key figure of politics and took up a prime minister in Soonjo period.

Meanwhile, Studies on Nam GongCheol originated in interests regarding the literary style reform policy of King Jeongjo, have been introduced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ry and his prose overall. However, study regarding a poetry of Nam GongCheol is study of An SunTae only, 「A Study on taste and Cino-Korean Poetry of Nam GongCheol」, and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Nam Gongcheol's poetry. Nam's viewpoint of literature was based on confucian culture. But he recognized the value of 'now(actuality)' through social intercourse with Yeon-am(燕巖) group, and his viewpoint of literature changed,

regarding the *do*(道) as something relative. But above all, The best description for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ry is that he emphasized the creative literary activity. It means that he pursued his own unique writing style that come from one's nature and heart during lives.

Nam GongCheol succeeded to Kim ChangHyeop's Cheon-Gi-Ron(天機論, theory of the profound secrets of Nature) at his poetry through Nam Yuyong, Oh Won, Hwang Gyeongwon, Yi Cheonbo who were quite writers in Yeongjo period. We can see it through what Nam GongCheol emphasized to write a poem producing from one's nature and heart. This shows that Nam GongCheol's versification inherited from Cheon-Gi-Ron.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a poem producing from one's heart is to emphasize the creative literary activity, not to speak of a poem and prose.

Based on Nam's life and his viewpoint of literature, this thesis watched 1) how the interest that Nam GongCheol had about things and phenomena in the present age was exposed to his poetry, recognizing value of 'now' in his youth, and how the interest was enlarged to the surrounding people who could not be appointed. 2) how Nam's bureaucracy that was influenced by his family and public official life was given at his works and what he thought about becoming a public official as a man of noble family. 3) Nam who was A representative person of distinguished family in the latter Joseon pursued tastefulness and a pleasure excursion through the collecting classical works taste, the social intercourse group, *Si-ju-hoe*(詩酒會), and making excursion to hills and waters. 4) Nam's viewpoint of poetry, who attended to write poems coming from one's nature and heart, was revealed at *Jeung-Byeol-Si*(贈別詩, poems putting feelings of a farewell) that expressed his true feelings and unaffected purity through friendship.

In terms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Nam GongCheol was affected of Kim

ChangHyeop's Cheon-Gi-Ron through his father, and his poetry looks close to the poetic circle of the Beak-ak and the later poetical style of the poetic circle. Also, in the history of Cino-Korean poetry, his works are located at the middle step to set to the a sharpened poetical style of the poetic circle of Beak-tap at the refined poetical style of the poetic circle of Beak-ak. These characteristics are observed from the distinguished families and the literary official groups that were active between the 18th century later and the 19th century early days and their literary style looks like Nam's. In short, The meaning that his works have is what it shows the groups' perception of reality and aspects of the collecting classical works taste between the 18th century later and the 19th century early days. And it is meaning that Nam GongCheol acknowledged the pure feelings coming from the inside of a poet and attended to express those as a poem.

This thesis is to study Nam GongCheol's literary works in general by looking into his poetry, who received attention as a prosaist in the meantime.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ake an occasion to find that the distinguished families and the literary official groups which were active between the 18th century later and the 19th century early days are in any position in the history of Cino-Korean poetry.